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8월 2일(음력 7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589 호

학교에 있는 '보물' 관리 0점?

서울세검정초교 안 장의사지 당간지주
낙서투성이 안내판 · 행정당국 무관심

군산발산초교 안 발산리 5층석탑
쓰레기 · 오물로 악취 진동, 안내판 부식

인력 · 예산 부족 속 매뉴얼도 무용지물



1층 기단부가 일부 탈락되고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군산 발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발산리 5층석탑(사진 위). 운동장 한 켠 수풀에 가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내 장의사지 당간지주(사진 오른쪽).



 # 이게 보물이었나?

잘 보호될 것으로 짐작되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보물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도리어 '0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보물 제235호로 지정돼 있는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내 장의사지 당간지주. 빛이 바래고 낙서투성이인 안내판만이 이곳이 통일신라시대에 사찰 터였다는 것을 묵묵히 증언해 주고 있다. 운동장 한켠 수풀에 파묻혀 있어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힘들 정도다.

군산시 발산초등학교 내 발산리 5층 석탑(보물 제276호)도 관리가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안내판이 부식돼 안내문을 알아보기 힘들며 탑 주변에는 쓰레기와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세검정초등학교 이신자 교장은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가 학교 운동장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서울시에 관리를 잘해 줄 것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해 봤지만 소용없었다"며 "보물급 문화재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관리소홀로 훼손된 당간지주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군산문화원 이복웅 원장도 "발산리 5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탑사 양식을 잘 나타낸 석탑으로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제대로 된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훼손된 문화재 관리와 안내판 등의 개 · 보수 작업을 연중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워낙 많다 보니 개 · 보수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으며 넉넉지 않은 문화재 관리 예산도 관리상 한계"라고 말했다.

 # 관리소홀 성보 20건 넘어

이밖에도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불교 문화재는 본지에서 조사한 것만도 약 20여건. 강화 하점면 5층 석탑(보물 제10호)은 지반 유실로 토사가 밀려들어온 데다 탑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울어 있다. 또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290호)의 경우도 대웅전 배면 벽체에 낙서 및 일부 탈락 등 인위적인 훼손이 일어났고 벽체의 균열이 심하다.

 # 전문화 된 관리 인력이 열쇠

이처럼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해서다.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를 비롯해 유형문화재를 관리 및 보수하는 전문 인력은 50여 명뿐이다. 인력확보와 더불어 △향토사학자를 비롯한 관계전문가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재 관리 업무매뉴얼 준수 △행정 당국의 예산확충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결국 일선 시 · 군의 문화관광계에 문화재 담당요원이 배치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읍 · 면 · 동 하부조직에서는 총무계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원을 비롯해 향토사학자들에게 문화재 관리 · 감독권을 부여해 문화재 담당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재 복원과 정비는 문화재청 보수과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해 일괄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에 의해 간단한 조사가 진행된 뒤 외형과 규모 등이 조절되고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정비, 복원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다.

'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 매뉴얼'이 무용지물의 '누명'을 벗어야 제대로 된 관리도 이뤄질 것이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불교계 대표 인터넷 언론 붓다뉴스 대대적 개편



● 더 빠른 뉴스
● 영상뉴스 강화
● 편리한 검색기능
● 사찰 · 지역 · 단체 뉴스 강화

새로워진 buddhanews.com에 오세요

'인류 공생을 향해' 불심 모은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日서 개최

한중일 3국 불교교류 증진을 위한 '제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5~27일 일본 교토와 나라 일대에서 한중일 불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대회는 10월 26일 나라 약사사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시작으로 국제학술강연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인류의 공생을 향하여'라는 대주제 아래 '종교간 대화에 있어서 3국 불교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를 두어 각 나라마다 기조발제와 토론자 3명이 참여해 논의한다.

행사 후에는 나라 법륭사와 동대사, 나루토 영산사 등 성지순례도 진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국측 파견단과 참관단을 1백명 내외로 정하고 8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신도시 포교 어떻게?

포교원, 10일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시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2006년 제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박노현 중앙승가대 강사의 '신도시 포교와 마케팅 전략' 주제발제로 시작된다. 박노현 강사는 연찬회에서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조기룡 동국대 강사.

두번째 발제는 '신도시 도심포교당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이 나선다. 보림 스님은 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줄 계획이다. 여기에 불교신문사 주간 정산 스님이 토론자로 나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수안 스님 통도사 축서암



시방세계 9면
청소년연합회 농촌돕기 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송서울문화마당 이교재 관장
'원칙' 안지키는 불사 4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5면
추대제? 직선제?

21회 불미전 대상 남진세씨 '석가모니불'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에 남진세씨의 조각 '석가모니불'(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위원장 지관)은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작을 7월 26일 발표했다. 대상작 '석가모니불'은 회화 공예 조각부문 최우수작과 경합을 벌인 끝에 선정됐다.

제21회 불미전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완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체는 작은 정으로 터치를 하고 광배와 연화좌대 귀꽃은 도두락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였다"고 대상 선정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강지연 기자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대중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통권 2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재가불교를 생각한다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 박경준
재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 허우성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 ---------- 박영재
원불교 재가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조화 ---------- 최영돈
이상적인 재가불교를 위한 제언 ---------- 성태용
기획연재 ②
건축에 스며든 선의 정신 ---------- 김홍일

자료발굴
백제 성왕의 일본왕 겸임과 불교 포교 -------- 홍윤기
논 단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 학해 스님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 ---------- 홍사성
호탄불교, 접근을 위한 첫걸음 ---------- 한지연
섬 같은 불교, 피자 같은 불교 ---------- 이민용
강연중계
불교와 그리스도교, 그 소통을 말하다 ------- 서명원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 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지역문화 축제 '포교의 신대륙'

조계종 '불교문화환경 조사보고서' 펴내
불교 프로그램 접목 · 사찰축제 확대 등 제시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는 불교는 지역 유 무형 문화재는 물론 생활문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의 보고'이며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지역문화 축제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포교 마당을 넓히는 적절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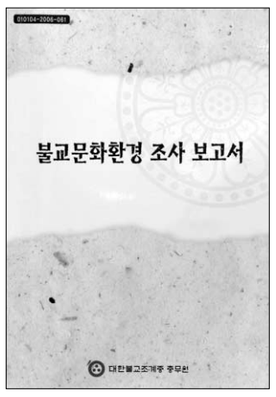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조사한 '시도별 축제개최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601개 축제 중 34개(5.7%)가 불교와 연관을 갖는 축제로 밝혀졌다. 지역문화축제는 포교의 신대륙인 셈이다.

전국축제 중 불교연관 5.7%

지역문화 축제의 문화적 위상과 사회적 파급력이 앞으로 점차 증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렇다면 불교계가 실시하고 있는 불교문화 축제를 지역문화 축제의 핵심으로 부상시킬 방안은 없을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가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문화 축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불교적 활용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내놓은 <불교문화환경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문화 축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계가 개최하는 불교문화 축제는 98건(2004년 조사)이다. 보고서는 이들



축제 가운데 '월정사 불교문화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들을 일일이 실사해 진행 과정과 특징 개선점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별도로 조사한 산사음악회는 31건(2004년 조사)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산사음악회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100여 곳으로 추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단 · 교구본사 '역할' 중요

문광부가 집계한 2005년 시도별 지역문화 축제에서 불교 관련 축제는 전남지역이 대흥사 단풍축제 등 9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팔만대장경 축제 등 5건, 충북이 충주 직지축제 등 5건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 축제에서 불교관련 축제는 단 한건도 없었다. 부산의 경우 범어사 개산문화대제전 1건이 '불교제일도시'의 체면을 지켜 주었다.

보고서는 이들 자료를 종합 분석해 지역문화 축제를 통한 불교 위상 제고 및 포교효과 증대를 위한 선결 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지역축제 현황 및 불교문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지속 △교구본사 별로 해당 지역문화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불교와 연관성이 높은 지역문화 축제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신청 시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불교문화 축제의 경우 종단 차원의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등 지원 필요 등이다.

지속적인 지원이 관건

이들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찰 등 불교문화 축제의 주관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 행정, 홍보,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사업'을 밴치마킹 해 불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편 <불교문화환경 조사 보고서>는 사찰문화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이 조사는 조계종 사찰의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보유실태와 활용현황은 물론 각종 문화모임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문화활동도 조사해 불교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본지 578호 23면 참조)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행원문화상 박상준 · 한기늠씨 선정

행원문화재단, '한글대장경 번역' · '주도적 예술세계' 인정


박상준씨


한기늠씨

제15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박상준씨가, 예술상에 한기늠씨가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제15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7월 28일 발표했다.

역경상 수상자 박상준씨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중앙승가대학교 불전국역원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했다. 오랫동안 한글대장경 번역에 투신해 역경과 연구활동에 매진해 왔다.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증도가사실><아비담비바사론> <금강경언해> 등 다수의 경전을 번역했다.

운문사 강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온 예술상 수상자 한기늠씨는 이탈리아 국립 까라라미술대학과 인도국립 타골대학원 조각과를 졸업했다. 전통적인 불상 조각과는 달리 치열한 '구도'의 이미지로서 불교적 주제를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교계 조각의 새로운 형태를 개척하는 등 불교미술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국내 뿐 아니라 이탈리아 인도 독일 등 해외에서 25회에 이르는 개인전과 100여회의 단체전 등으로 한국 불교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2일 오후2시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강당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지관 원장 공동대표의장 선출

종지협, 10월 종교문화축제 개최 등 논의

7대 종교 대표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7월 27일 서울 삼청각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공동대표의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선출했다.

그동안 지관 스님은 제6대 회장이었던 법장스님의 잔여임기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2년간 제7대 공동대표 의장직을 맡게 됐다. 감사에는 정연택 한기총사무총장, 김재완 민종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이 유임됐다.

이날 새 의장으로 추대된 후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적립된 종지협 기금 5100만 원에 3000만원을 보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임원선출의건 공동대표 및 감사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 올해 주요 사업으로 10월 14일 또는 21일 양일 가운데 하루를 택해 남산 한옥마을이나 시청광장 등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사업 지속돼야" 대국민 호소문 발표

법인관리법개정 등 심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는 7월 26~27일 제10차, 11차 회의를 열고 '법인관리법' '사찰부동산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종헌종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총무원장 선거법 관련 개정안은 8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종지협 소속 7대종교 대표들은 7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엄혹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가 간 호혜와 평등의 원칙하에 평화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이번 호소문에서 "인도적인 남북사업 및 남북민간교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와 사회지도자들도 대화협력을 통한 상생의 지도력을 발휘 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종교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입장료 폐지 불교계 입장 찬성"

박화강 신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밝혀

이병인 교수 등 민간위원 위촉

김재규 前 이사장에 이어 박화강 신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이사장은 7월 26일 오후 2시 신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공원입장료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이사장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찬성한다"며 "입장료를 폐지해 국립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단체 대부분이 입장료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련 주요정책을 조정 협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이규용, 환경부 차관)의 새 민간위원으로 밀양대 이병인 교수(본지 논설위원) 등 7명이 7월 20일자로 선정됐다.

새 민간위원으로는 이병인 교수를 비롯해 대구대 권태호, 성신여대 강혜선, 강원대 정연숙 교수, 생명과평화연구소 조승헌 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옥 수석연구원, 국립공원운동연합 손재용 공동대표 등 7명을 새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13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국립공원의 지정과 해제, 공원 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조용수 기자

"항상 깨어있어야"

지관 원장 강재섭 대표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당부했다(사진).

지관 스님은 7월 25일 예방한 강재섭 대표가 조언을 구하자 "한나라당은 전통이 있고 경험 많은 의원들이 있어 잘 할 것이지만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관 스님은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들 때 혼침(昏沈)과 산란(緣慮)을 경계하듯 늘 성성적적(惺惺寂寂)한,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망한 것도 결국 지도자가 부패해서 그런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데 욕심을 거둬야 하지만 어렵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한강시민사업소 고발

방생협회, 업무방해 등 이유로

서울 천호대교 인근 한강 상류에서 수상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방생법회(회장 이건호)가 "서울시 산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이하 한강사업소) 前 소장 권종수(현 종로구 부구청장)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용수 기자

"계약 아직 유효하다"

예성에드컴, 기자회견서 주장

중단된 조계종 불교역사중앙박물관 공사 새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공업체였던 예성에드컴이 계약 유효를 주장했다.

공동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퍼스디자인의 이규천 전무와 예성에드컴 김환곤 이사는 7월 26일 "처음 계약된 계약서 금액은 69억 3십만원(부가세포함)이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귀책사유가 갑(총무원)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금액 그대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미 예성에드컴이 성실관리의무와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9일 신규사업자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조용수 기자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1천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주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미국 등 몇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용으로만 세계가 함께 쓰면 각 국가들이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나라도 포기한 것이 되어 세계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무기 경쟁을 저지하고 지금 모 지역의 핵과 미사일 사건으로 동아시아의 치솟는 미사일 경쟁까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또다시 6.25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난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도덕적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으므로 반듯이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이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립방안도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나타냄이요,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러 왔다(마태복음 10장 34절)는 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니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계계에서 이를 부인하신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엄한 교리 비판 강연을 인내하여 다 들으신 후 토론하기를 제의하오니 세상이 다 알도록 신문 TV 등 큰 광고를 내시고 공개장소에 보안만 완전하면 기꺼히 가 드림. 그러나 무반응시 긍정으로 간주)**

● 宇宙的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又, 日本國 の方に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天國とい う題の日本語說法をして上げます.

● 세계평화 정토회 가입안내
가입비 무료. 아래 전화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됨. 승 · 속과 종파 초월. 집회는 추후 개별 통지.

● 본회의 목적 :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여 항상 세계평화 일류복지를 위한 일을 계속하려함.
(원을 세운지 30여년 못해와서 한탄)

● 세계평화중심센터 건립을 국내외 독지가께서 도와주십시오
(신문광고 및 일반성금 : 송금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를 지배 압도하는 가공한
巨大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함께
토론을 신청하는 法天스님!
자아! 기독교계에서는 어찌 나올 것인가?
흥미진진!! 호호탕탕!!
기독교의 흥망?? 覺醒?? 근본개혁?? 여부가 달려있는 이나라 아니 세계 미증유의 대설전!!!
기대하시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한다!!
〈우주평화〉 정토회 일동

世界平和 淨土會 代表 法天 鶴山 合掌

•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중요문의 011-9230-2192

“절 복구보다 수재민 돕기가 먼저”

강릉 녹유사, 사찰 피해 불구 대민지원
복구 군장병에 매일 자장면 급식 봉사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난 7월 27일 정선 나전중학교는 학생 대신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선군 재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23사단 58연대 장병들의 임시숙영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로 복구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 장병들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취사장 근처에서 식판을 든채 서성이고 있었다. 강릉 녹유사가 준비한 ‘오늘의 특식’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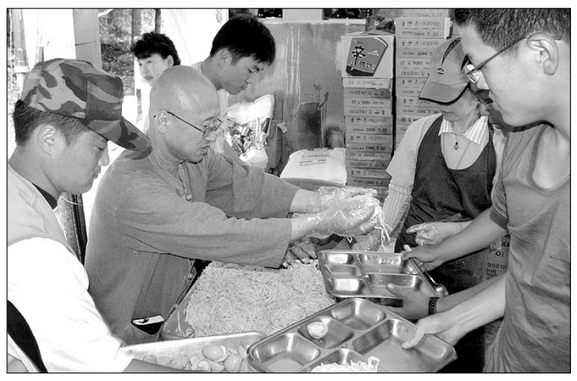
자장면 냄새가 취사장 밖으로 솔솔 새 나오자 장병들은 더 안달이 나 보채기 시작한다.

“아 냄새! 언제 다 되는거에요?”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면을 뽑던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과 조봉한 신도회장이 급히 장병들의 성화(?)를 진정시킨다. 한경희 합창단장도 양념을 다지던 일손을 놓고 스님과 조회장을 거든다.

정오, 배식이 시작되자 장병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배식을 담당한 취사반 장병들이 줄부터 세운다. 사단에서 부사단장과 참모들이 특식을 준비해준 녹유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왔다.


강릉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과 신도들이 정선지역에 파견돼 수해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배식하고 있다.

강릉의 오지 왕산면 대기2리에 위치한 녹유사도 이번 집중호우의 위력을 피하지 못했다. 탄광 사택을 개조해 만든 변변치 못한 도량이지만, 요사채가 침수되고 토사가 밀려내려와 많이 훼손됐다.

하지만 성인 스님은 사찰복구는 접어두고 지역 피해민가를 먼저 챙겼다. 먹을거리와 옷가지를 들고 주변 강릉 왕산면 일대의 수재민들을 찾아 나눠줬다.

26일부터 인근지역을 벗어나 평창 진부면과 대화면, 정선 북평등지에서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자장면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3일 동안 3000명의 장병들이 자장면을 먹고 사기를 충전했다.

이를 위해 성인 스님과 30여 신도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복구현장을 뛰고 있다.

녹유사의 선행은 2001년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올해 5월 8회를 맞은 어르신 효도관광은 지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처음에는 30명이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 올해 600명의 어르신이 무료관광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1년 동안 선행을 위해 쓰이는 돈은 적게 잡아도 4000만원. 기도비와 인등비 등 절 수입을 고스란히 투자한 액수다. 도량불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성인 스님과 녹유사 신도들은 이 길이 중생과 함께 하는 불교라고 믿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정선/글 · 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교계 자비 손길은 계속된다

종단 · 단체 · 사찰 구호단 파견 등 줄이어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대표단,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등이 수해 현장에서 직접 구슬땀을 흘렸다.

지관 스님은 7월 24일 폭우로 훼손된 곡성 도림사를 둘러봤다. 주지 금동 스님으로부터 현황을 설명 받은 지관 스님은 금일봉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등, 부의장 장주 스님 등 중앙종회 대표단도 22일 평창군 일대 수해현장에서 직접 복구에 참여한 한편 100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과 700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도 25일 평창 진부면 호명마을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태고종은 성금 1000만원을 모아 수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종무원에 수재의연금 모금창구를 개설하고 종단 산하 23개 지방교구종무원과 3천여 사찰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교구별로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 및 구호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10명씩 모집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태종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에 파묻힌 진부 진강사 사찰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했다. 19일 복구 작업에는 포크레인 한 대를 비롯해 천태종 춘천 삼운사 신도회 · 합창단, 천태종복지재단 자원봉사자, 진강사 신도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현재 나무뿌리와 철근 등이 뒤엉켜 있는 토사만 조금 남았을 뿐, 대부분의 토사는 걷어낸 상태다.

진각종 종무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지원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쉼터골을 찾아 피해 가옥 5채의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22일 평창군 진부면 수해현장을 찾아 함께 구호활동을 펼쳤다. 밀각심인당 신교도들은 구호품으로 김치 77박스와 과일 등을 전달했다. 회정 정사는 이에 앞서 19일 KBS에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도 26일 평창군 부석면 일원에서 집청소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흥국 회장을 비롯해 오은정 부회장, 김활선 명예회장, 원로 명국환, 나운아, 선선호 사무국장 등 30여 명은 집 안에 쌓인 흙과 오물들을 치우기도 했다(사진).

한국JTS 회원들은 26일 서울 인사동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9개 도시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인사동에서는 노희경 방송작가와 연극인 전무송씨 등이 참여해 “한반도에 희망의 무지개를”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움을 호소했다.

봉선사 신도와 스님, **남양주 구리 사암연합회** 회원 등 150여명도 27일 이번 수해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진부를 방문해 수재민들에게 라면과 쌀 등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에 1억여원의 수해성금이 답지했으며, 평창월정사도 1억3000여만원의 성금을 접수했다.

김주일 · 강지연 · 박봉영 · 남동우 기자

“교단내 성차별 사회관습 탓”

소운 스님 세미나서 주장

“서구불교인들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던가 ‘여성이 출가하면 불법이 전멸한다’는 말을 하는 비구를 출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와 세계와기독교변혁을위한연대 주최로 7월 2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불교측 발표자로 나선 소운 스님(서울 약사암 주지)은 불교의 근본사상에는 성차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스님은 한국불교 교단내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종정, 종회의원, 총무원장 등 종단의 핵심적인 역할 제한 △비구니 참정권 제한 △본사주지 자격제한 △본사주지 선거 비구니 배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소운 스님은 “사회적 관습이 교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며 “종단에 팽배해 있는 관습적인 성차별의식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의 근거로 사회적 양성평등의식이 불교교단에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철폐하고 있는 서구불교 사례를 들었다. 양성평등사회에서 성장한 서구인들은 불교교단에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

소운 스님은 “비구승가는 교단의 이권 독점화를 위해 성차별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비구니승가와 여성 재가자들 또한 스스로 여성을 비하하는 사고를 과감히 떨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봉영 기자

日 소장 ‘조선왕실 의궤’ 환수 추진

조선왕조실록환수委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대표 정념 · 철안, 이하 환수위)가 일본 궁내부에 소장된 ‘조선왕실 의궤’를 찾아 나선다. 환수위 측은 7월 26일 <조선왕조실록>의 약탈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의궤의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수위 총무간사 혜문 스님은 “1922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반출된 의궤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 황실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며 “이런 사실은 2001년 해외전적문화재 연구회(회장 천혜봉)에서 직접 조사해 이미 학계와 정부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지난 6월 1일 조선왕조실록되찾기의원모임 간사 강혜숙 의원을 통해 일본 궁내청에 사실 확인서를 보냈고, 8월 중으로 반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 의궤란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 등을 상세하게 적은 기록이다. 노병철 기자

불교단체협의기구 결성

불교단체들이 상호간 지원체계를 갖추고 정책을 교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만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불교여성개발원, 교사불자연합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7개 단체는 7월 26일 서울 화계사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의 초청으로 모인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10월까지 창립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에 개인종교 묻지 않기로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응시원서에서 시험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7월 26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종자연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시 종교자유 침해 개선요청서’를 접수한데 따른 답변이다.

박봉영 기자

7대 종교 지도자 모임 이스라엘 공격중단 촉구

7대 종교수장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계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은 7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레바논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격 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KCRP는 “인류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전쟁 종식과 중동지역의 평화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난민 구호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KCRP 공동회장단과 김성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이 함께 서명했다.

박봉영 기자

목탁소리

사라지는 가사불사 전통

2004년 3월 가사불사 취재차 들른 통도사(주지 현문). 영산전 부처님 뒤로 여섯 대 재봉틀이 드르륵 드르륵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가사불사를 위한 바쁜 움직임이었다.

지난 7월 26일 다시 찾은 통도사. 가사불사는 입제에서 회향까지 기도만 드리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기도를 집전하는 스님과 신도만 참석해 썰렁함을 더했다. 도편수 스님의 지휘로 매일 3~40명의 불자가 25일 동안 정성다해 진행하던 통도사 가사 불사의 전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통도사는 올해부터 종단방침에 따라 가사불사를 ‘승가법의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송광사, 조계사 더불어 가장 큰 규모로 계속되어 오던 통도사 가사불사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조계종이 최근 종단 가사를 통일하고 제작 보급을 일원화함으로써 종단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찰의 전통은 지켜가면서 의제통일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제안한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입 종 공 고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상에 맞추어 불법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고 미륵부처님의 큰뜻인 용화세계를 구현할 뜻있는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입종을 바랍니다

◆ 자 격 : 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한 승려
◆ 지 역 : 전국 (타종단에서 체탈도첩된자 제외)
◆ 대 우 : •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종단행정에 참여가능하며 각 지역별 교구원장으로 추천
•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행정 지원(사회복지법인허가취득)
• 타 종단에서 수계한 법계인정
• 종단기구에 보직을 원하는 스님은 중앙종회 심사후 가능

행 자 모 집

한국불교미륵종은 불교의 선진화를 앞두고 불법포교와 종단행정의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인 원 : 00명
◆ 학 력 : 고졸이상(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학력소지자)
◆ 나 이 : 40세이하
◆ 자 격 : 부처님 제자로써의 바른 마음가짐과 신체건강한 남여
◆ 특 전
• 6개월간 총무원 직할 사찰에서 승려 기본교육을 시행하며 합동수계식후 승려증발급
• 수계후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수 있도록 주선

한국불교미륵종 연혁
1987년 10월 창 종
200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설립인가 (문화관광부 제229호)
2002년 5월 홈페이지개설 www.mireuk.org
2004년 2월 제3세 운허당 연화대종사 종정취임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설립허가취득 (보건복지부)

접수및 문의처
한국불교미륵종 총본산 관 음 정 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총무원 대표전화 055)345-474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사단법인 한 국 불 교 미 륵 종 총무원장 윤 송정

불사前 문화재 시·발굴작업 반드시 거쳐야

‘원칙’ 안지키는 불사 언제까지?

사찰 불사(佛事)에 대한 일반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대형불사 또는 호화불사,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는 불사와 전통에 어긋나는 불사 등등 불사와 관련한 잡음은 항상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일부에서 벌인 거대불사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전통사찰들이다. 전통을 지켜야 할 불교가 오히려 전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찰의 불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연 ·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불사와 문화재 시 · 발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채 진행되는 불사 등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사진은 장기적인 복원 불사 계획하에 수년째 시 · 발굴을 진행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는 군위 인각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연과의 조화’ 원칙 무시 … 따가운 눈총 받아
‘문화재 보호’ 인식전환 시급, 관련교육 의무화를
총무원-교구본사간 불사심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공간 활용방안 분석없이 크게만…

사찰 건물의 크기가 스님의 원력과 비례한다거나, 또는 건물만 지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대형불사’를 부추겨 왔다. 이는 그동안 스님들과 신도들이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공간과 활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한정된 사찰 공간에 무조건 큰 법당과 선방 등을 짓고 보자는 잘못된 불사관이 빚어낸 결과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사찰 공간과 근대식 대형 법당의 불균형적 가람배치, 가람 내 건축물을 짓기 위한 형식적 문화재 시 · 발굴 조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우선 전각이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전에 사용하던 주불전을 옆으로 옮기거나 철거해서 주불전을 아예 새로 짓는 경우처럼 마구잡이식 불사를 지적할 수 있다.

경남 Y사의 경우 17세기에 만들어진 법당(약 20평 규모)이 작아 바로 옆쪽에 대웅전(약 50평)을 새로 지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4년 전 공주의 K사가 강당 지붕해체보수작업을 하다 대웅전 앞마당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절차도 없이 번개 불에 콩 구워먹기 식으로 아예 건물을 2m가량 옮긴 것도 좋은 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찰은 범종루 해체 복원 작업 시 아예 대형 범종루를 만들려다 서울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강원도의 한 사찰도 몇 년 전 대웅전 옆에 1층짜리 전각 공사를 허가 받았지만 2층으로 지은 후에 현상변경 신청을 다시 해 물의를 빚었다.

대웅전 앞에 정원수를 가꾸는 등의 왜색적(倭色的)인 불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가람은 대웅전 앞마당을 신도 법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해 식재를 삼갔으나 근래들어 정원수를 심고 다듬는 사찰이 늘고 있다.

불사를 하기 전 의무사항인 문화재 시 ·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시 · 발굴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유구나 유물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시 · 발굴을 한다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예가 허다하고 시굴성과를 축소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도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불사가 이루질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들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사의 경우 벌금형, 철거명령,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자체 문화재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를 가중하는 요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자주 열리기 어렵다보니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기다리는데 불편함이 많다. 현상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재 각 지자체 학예실에 학예사를 두고 운영하는 곳은 10% 내외다.

이에 반해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의 복원 과정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인각사는 일연 스님 당시의 가람을 복원하기 위해 지표조사(2000년)와 시굴(2002년)을 거쳐 두 차례 걸쳐 발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당지를 밝혔으며, 가람배치의 기본 축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에 근거해 인각사는 2008년부터 극락전을 중창할 예정이다.

인각사지 발굴을 책임지고 있는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임석규 책임연구원은 “인각사 복원은 장기적인 발굴계획 하에 지금까지 모범적인 수순을 밟아오고 있다”며 “정상적인 시 · 발굴을 통한 복원은 결국 사찰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불사’ 관리할 시스템 없나?

전통사찰 불사와 관련해 정부는 전통사찰보존법을 통해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재산권이나 사찰 보존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비중을 두고 있어 불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사와 관련해 조계종도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조계종은 무분별한 불사와 그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불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계종의 불사심의위원회는 기존의 환경위원회와 성보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사찰의 불사를 관리 · 감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불사를 모두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각 사찰이 자체적으로 불사금을 만들어서 불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조계종 종헌종법의 ‘사찰 부동산 관리령’은 사찰 부동산의 임대, 처분, 신축 등을 할 때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찰 재산의 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불사의 관리 · 감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찰운영위원회법에서는 불사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의 개념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불사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불사심의위’ 제 기능 하도록

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차적인 관건이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간 불사심의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총무원에서 전국 모든 사찰의 불사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 심도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말사에서 이루어지는 불사는 교구본사의 불사심의위원회가 맡고 이를 종단 불사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 김영일 총무차장은 “불사가 생활공간으로서의 측면과 문화재로서의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도 문화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 학예사 확충 등의 법제도를 보완해 전통과 환경을 고려한 불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찰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불사는 전통과 문화재를 지키면서 불교의 역할과 사회적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몇년 전만 해도 스님들이 불사심의를 ‘불사를 방해하는 짓’으로 인식, 불사심의를 위해 사찰을 방문하면 쫓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문화재단체 관계자도 “문화재보호법을 잘 아는 주지스님들조차도 현상변경 절차를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회법에 의한 처벌 이전에 종단이 의무화된 교육을 통해 주지스님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명우 · 박익순 · 노병철 기자

▷불사, 진행절차는?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성보보존법 등에 의거해 규제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경우 불사는 문화재청(또는 시 · 도)과 종단의 이중적인 규제 하에 진행된다.

사찰은 사업계획을 세워 우선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다. 조계종 소속 사찰은 건축허가를 근거로 총무원 신축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

문화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무회의가 신축 승인을 하면 이때서야 비로소 신축 불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찰이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득하면 총무원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현실이다.

승인절차를 거쳐 건물이 지어졌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새 건물이 애초 사업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지만, 공사 완료 후에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제10회 백련불교문화대축제 2006.8.18(금) ~20(일)

회산 연화장(回山 蓮花藏) 세계에서... 10만 연등 밝히기...

삼보귀의하옵고
백련불교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무안군에서 추진한 백련대축제 기간에 제 1회부터 9회까지 꾸준하게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상징인 연꽃방죽에서 무안군 지자체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으면서 축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여. 이번에 새로운 불교문화축제의 특색을 찾기 위해 한마음 큰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보라! 진흙속에 피어오른
한떨기 백련이여
장엄정토 이룩하사
꽃중의 꽃 으뜸일세

세세생생 닦은 모습
당당함이 그 누구랴
청포자락 휘어감아
법좌를 드리웠네

영원한 안식처여
반야동산 텃밭되고
원만자비 베풀어서
온누리에 피게 하소서

세종당시 염화미소
가섭존자 웃었다네
백련이여
그 이름 장부여 장부여

10만평 회산 백련지에 초대하며...
(사)백련불교 문화원장 경훈 분향 합장

첫째날(8월18일) 불교문화큰잔치
개 막 식 : 국제 백련불교문화축제를 열며
공식행사 : 낙원 세계 백련지로 오세요
• 팔관제(八關祭) 큰법회
• 티벳 성라마 칠린 린포체 마정수기 및 방생법회
• 일로품바 명인대회(예선)
• 연꽃노래자랑
• 연등행사 및 탑돌이

둘째날(8월19일) 불교문화큰잔치
공식행사 : 백련지에서 환희를...
• 팔관제(八關祭) 큰법회
• 티벳 성라마 칠린 린포체 마정수기 및 방생법회
• 일로품바 명인대회(예선)
• 연꽃노래자랑
• 연등행사 및 탑돌이

셋째날(8월20일) 불교문화큰잔치
공식행사 : 한판 어울리는 대화합...
• 팔관제(八關祭) 큰법회
• 티벳 성라마 칠린 린포체 마정수기 및 방생법회
• 일로품바 명인대회(결선)
• 연등행사 및 탑돌이(잔디광장)
• 폐막식

공식행사 회산 연화장(回山 蓮花藏) 세계에서... 10만연등 밝히기
부대행사 일로품바명인대회,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탑돌이, 연등점화, 이주여성댄스경연, 풍악한마당, 연꽃노래자랑, 체험이벤트, 팔도풍물장터.
전시행사 석가모니 진신사리 친견 및 만다라 재현, 분청사기전시, 백련차전시, 그림전시, 뿌리공예품 전시, 불교관련상품, 야생화 프레스플라워 전시.
체험행사 흙으로 빗는 체험한마당, 황토염색체험, 다도체험, 3보1배체험, 연꽃길보트탐사, 연꽃생태탐험, 판화체험등.

● 주 관 : 백련불교문화축제 추진위원회 ● 주 최 : (사)백련불교문화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무안군, 대한불교조계종 태고종 법륜종 선각종 총무원, 한국농촌공사 무안 신안지사,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 무안기업도시 주식회사, (주)다연
● 안내전화 : TEL 061)453-2422, 454-8514 / FAX 061)454-0449
● 홈페이지 : www.blotus.or.kr

● 교통안내

항 공	서울 ⇔ 목포 1회	서울 ⇔ 광주 9회
열 차	KTX 서울 ⇔ 목포 7회 새마을호 서울 ⇔ 목포 7회	무궁화호 서울 ⇔ 무안 · 일로 7회 부산 ⇔ 무안 · 일로 2회
버 스	서울 ⇔ 무안 2회 서울 ⇔ 목포 24회	광주 ⇔ 무안 24회 부산 ⇔ 목포 9회
승용차	서울,대전방면 경부,호남고속도로,국도 1호. 부산,경남방면 남해고속도로,국도 2호 대구,경북방면 88올림픽고속도로,국도 1호. 인천,군산방면 서해안고속도로(일로IC)	



현장 전문가가쓰는 부산불교 이야기

전문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 요구

④ 복지시대, 부산불교 현주소는?

짧은 기간 타종교 견제받을 만큼 활성화
장애인복지사업 등 전문영역까지 확대
복지다원주의 맞춘 기술적 성장 과제



이춘성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사무국장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지는 198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이용시설의 증가와 함께 비로소 활기를 찾게 되었다.

21세기 초반인 현시점에서는 타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산도 타 종교기관에 비해 제도권하의 사회복지활동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당시 대한불교신문의 창간 등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던 정관 스님, 혜총 스님, 정련 스님 등 몇몇 스님들이 포교의 방향을 복지활동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실천에 있어 부산에 변변한 법인이 없던 차에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사단법인 가산불교진흥원을 1993년에 부산으로 이전하여 사단법인 불국토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 인접한 통도사 자비원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부산에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법인은 처음으로 설립되게 되었으며, 최초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했다.

이를 계기로 산중불교, 말로만 하는 중생구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단법인 불국토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현재 사회복지법인 내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현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 양정청소년수련관(현재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을 연이어 수탁 운영하게 되어 복지영역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영역까지도 넓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2~3년 사이에 불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타 종교로부터 견제와 아울러 질투(?)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 후발주자로서 의욕과 과감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통한 신뢰성을 높여가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 오히려 기존의 종교단체로부터 견제를 받게 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불교뿐만 아니라 선발 주자였던 타 종교기관들도 보통 한 법인이 2개 이상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는 전 법인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견제를 타개하기 위해 불국토법인 소속이었던 몰운대복지관과 두송복지관이 법인을 새로이 만들면서 스님들과 소속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후 부산 불교계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부산불교의 큰집이라 할 수 있는 범어사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를 설립하여 금정구복지관과 화명복지관을, 진각복지재단에서 낙동복지관을, 공덕향법인에서 공창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용호복지관을 추가로 수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용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운영에서 한발 나아가 전문영역으로의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는 장애인전문 시설인 반야원의 운영을 통해 그동안 부산불교에서 소홀했던 장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얼마 전 장애인요양병원을 설립했다.

모든 종교들이 효사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불교만큼 효를 중시하는 종교도 없다.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만큼 효에 대한 부분은 독보적인 종교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어른신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불국토의 경우 부산 최초로 실비요양시설인 상락정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영도구노인복지관,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불교계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어린이집, 정신장애인보호센터,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적인 팽창이 있는 반면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개신교, 천주교 등 서양종교들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술적 측면에서 불교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러한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에 불교복지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혜총 스님)'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선의의 경쟁유발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과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이다. 다행히 1사찰 1복지기관 참여, 1사찰 1개어린이집 운영 등 일련의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종단을 비롯해 사부대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승가대학 등 학문기관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케 해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물적 · 인적 활동도 필요로 한다. 타 종교들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복지활동을 통해 전도를 하고 있다. 우리 불교도 많은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친목이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타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통해 복지다원주의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 시간적 여유는 만드는 만큼 생긴다.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중생은 물질과 정신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행복을 느낀다.

불교의 가장 수승한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복지사업이다. 이러한 실천방법을 통해 중생구제는 물론이거니와 대중포교의 원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산의 불교복지기관 종사자들은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상호간 정보공유와 경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 주최의 2005년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및 직원 연찬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봉사 통해 사랑 · 화합 확인

통도사자비원, 여름방학 가족봉사캠프 실시

어르신들 말벗되기 등



통도사 자비원은 7월 24일부터 4주간 가족봉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점심공양을 돕고 있는 모습.

노인요양시설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하는 가슴 따뜻한 가족봉사캠프를 7월 24일 실시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휠체어 작동법 등을 배운 참가자들은 점심공양 보조를 시작으로 화장실과 방 청소, 말벗되기, 산책 등의 활동을 펼치며 자비원 어르신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루 봉사 일정이 끝난 후에는 가족단위 윷놀이와 가훈 만들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가족간의 사랑과 화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형과 함께 참가했다는 김종희(언양 중학교 1)군은 "도움이 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신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비원 가족봉사캠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055)381-2005, 2008 이은아 기자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스님)은 7월 23일 원생들의 새 보금자리와 신행터가 될 정토관 준공식을 큰 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진 정토관은 원생 숙소와 컴퓨터실, 도서관, 법당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보리수동산에는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6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영화 상영 등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은 인사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리수동산은 1976년 승욱스님이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 주지 시절 부모 잃은 아이들을 맡아 기른 것이 인연이 돼 4년 전 경남 고성의 한 폐교를 임대하고 30명의 아이들과 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이은아 기자

홍법 스님 28주기 추모법회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운조당 홍법 스님 열반 28주기를 맞아 7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추모법회 및 영정 봉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추모법회는 헌향, 헌화, 추모사, 영정 이운 및 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서울포교당 정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스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복덕을 등불 삼아 험한 세상에도 길 잃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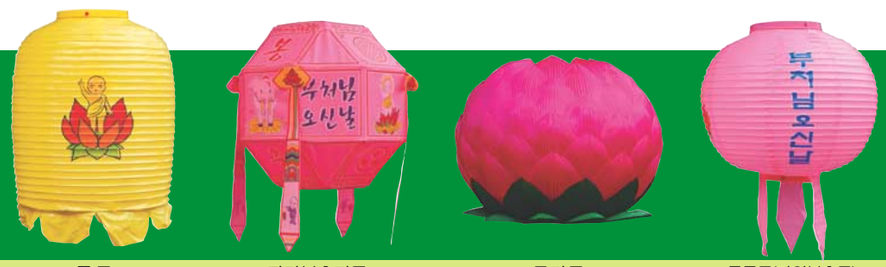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백중은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마음을 닦아서 목련존자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천도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삼세가 도는 법을 말하는 아주 뜻이 깊은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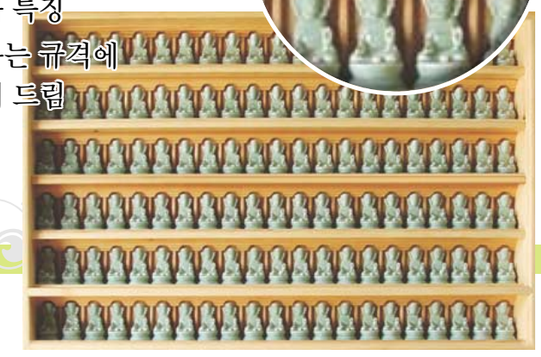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나눔과 공경의 한마당

동화사, 지역민과 함께하는 백중 행사

165곳 경로당과 12개소 요양원 초청
공연 · 어르신 노래 잔치 · 장기자랑 등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올 백중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다.

동화사는 8월 8일(음력 7월 15일) 백중을 맞아 지역주민과 시민 신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경로잔치를 겸한 문화축제를 통일기원대전과 동화사시설단지 분수대일원에서 개최한다.

동화사는 최근 "백중은 예로부터 열심히 노동을 담당한 일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잔치를 열어 노고에 감사하는 민족의 큰 축제일이었으나 모두 사장되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재를 지내는 극히 미미한 전통으로 전해져오고 있다"며 "민족전통을 계승하고 백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백중맞이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귀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스님들의 하안거가 끝나는 회향일인 음력 7월 15일 자자일(自恣日)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우란분경>의 이야기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마을잔치를 겸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고 올 백중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화사는 이미 붓다의집, 신안사랑마을, 자비의집, 관음의집, 화성양로원, 여래원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구 일원의 복지단체 어르신들과 동구지역 165개 경로당과 12개소 요양원 어르신들을 모두 초청했다. 또, 동화사 시설지구 상가번영회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며 함께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한 이날, 동화사는 오전11시부터 동화사통일기원대전에서 조실 진제 스님을 모시고 결제기간 내내 닦은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문을 청해 듣고, 12시부터는 각종사건사고로 희생된 영혼과 전쟁고혼, 건국영가 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백중맞이 축제는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후4시부터 동화시설단지 분수대일원에서 개최한다.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펼쳐지게 될 백중맞이 축제는 대구불자가수회 김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달구벌 민속춤 보존회의 난타공연과 태평무, 부채춤, 진도북춤, 창작무공연과 불자가수들의 가요 민요 악기 공연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래경연 장기자랑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 모든 시민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강강술래 대동한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지고, 모든 참가자들이 컵등 탑돌이를 통해 개인발원과 전체발원의 시간을 갖는 등 저녁 8시까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053)985-4404

배지선 기자

연꽃향기 속 화합 선율을

영남불교대 칠곡도량, 26일 연꽃음악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칠곡도량(주지 대륜, 이하 칠곡도량)이 대구강북지역 아파트촌 한 가운데 마련된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음악축제를 개최한다. 8월 26일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 생태공원인 함지공원 공연장에서 열리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제3회 한 여름밤의 연꽃음악회다.

2004년부터 인근 연못인 운암지에 연꽃을 심고 연꽃이 필 무렵 축제를 벌여왔던 칠곡도량이 지역 주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불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축제의 규모를 키운 것이다.

칠곡도량 신도들은 대구강북지역민의 화합과 문화 창달에 불교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이미 한 달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후2시부터 열리는 연꽃음악회에는 안치환 김혜연, 박정식, 해바라기 등의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고,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금강합창단과 선재어린이 풍물단의 풍물놀이,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 어린이법회 어린이들의 가야금연주 등 영남불교대학 신도 동문들의 다채로운 국악 기악 공연 등이 1, 2부에 걸쳐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공연장 주위에는 양방 한방 무료 진료소를 비롯해 가훈 써주기, 탁본체험, 페이스페인팅, 네일 아트, 컵등 만들기 등 20여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도 설치된다. (053) 313-0108

배지선 기자

수재민 위한 산사음악회
양양 낙산사

수재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는 KBS 춘천총국과 함께 8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낙산사 보타락 특설무대에서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세종솔로이츠 등이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사용된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수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십시일반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33)672-2447~8

박봉영 기자

풍경소리 대구경북지구
운영위원회장에 김윤식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구) 제2대 운영위원회 김윤식 회장 취임식이 7월 22일 대구반월당 보현사에서 봉행됐다.

풍경소리 지도위원장 지운 스님과 보현사 주지 지열 스님 대구신행단체연합회 하재웅 회장을 비롯한 풍경소리 회원 등 100여명의 축하 속에 세림신협 김윤식 이사장이 제2대회장에 취임하고, 전임 김길희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또, 제2대 운영위원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뜻에서 20Kg 쌀 10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어둡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지성 스님, 용연사 회주 추대



대구 용연사(주지 상원)는 지성스님(前 동화사주지) 회주 추대 법회를 7월 25일 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약력 소개, 축하꽃다발 증정, 법문으로 이어진 법회에서 지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과 덕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가장 기본으로 인을 닦고 덕을 쌓으려면 겸손하고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며 "어진 인과 덕을 펼 수 있는 지혜를 갖춰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라"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포항불교사암련 회장
종문 스님 취임, 24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제11대 회장 종문 스님(죽림사 주지 · 사진)의 취임 법회를 7월 24일 포항 그랜드엠 호텔에서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보경사 주지 법달 스님,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천주교 대구대교구 조정헌 주교대리신부,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등 지역 내외빈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과 재가불자 등 3백 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전임회장 이임사, 신임회장 약력소개와 취임사, 축사, 축가로 이어졌다.

종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종교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사암연합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부적으로 포교역량을 높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불교 인재를 발굴하고 불교회관 건립과 불교방송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형중

동련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 사무국장

(사)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대구지구 김형중(44) 사무국장은 10년을 넘게 이 소임을 맡아온 인물이다.

90년대 초반 보현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어린이법회가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든 어린이법회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것이 인연이 됐다. 직접 어린이를 지도해 볼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어린이지도자를 물색하고 관심과 지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다보니 대구시내 어린이지도자들을 하나 둘 알게 되고 대구경북초중고지도자연합회까지 만들게 됐다.

당시 김형중 사무국장은 대구경북초중고지도자연합회 창립회원이면서 회장을 맡아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전국조직망을 짜던 대불어의 연락을 받고 대불어 대구지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나 대불어 대구지구의 활동은 미약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김형중 사무국장만이 홀로 버텼다. 대불어와 대구지역 어린이지도자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대불어 대구지구의 명맥을 유지시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김 사무국장은 자비를 털고 황금 휴일을 고스란히 투자하며 대불어에서 나온 어린이포교 자료를 각 사찰에 일일이 전해주고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일정이 나오면 함께 동참할 것을 권했다. 또, 각 사찰이 언제 여름불교학교를 하는지 어린이들의 참여는 어떤지를 일일이 체크해 파악했다. 혹 어린이지도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면 김형중 사무국장은 당연히 자신의 호주머니를 톡 털어야했다.

"그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지요. 주위에선 저렇게 2~3년 하다 말겠구나 생각했구요." 툭툭 내뱉는 김형중 사무국장의 말투에 우직함이 배어있다.

이젠 대불어 대구지구하면 김형중 사무국장을 모르는 이가 없다. 십년을 한결같이 자료를 모으고 챙겨온 덕에 대구지역 어린이 법회 자료는 다 가지고 있다. 문의가 들어오면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찾아다가 전해주는 열성파다.

그런데 김 사무국장의 이런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는 듯 대불어대구지구가 변하고 있다. 김형중 사무국장이 10년을 홀로 활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지역 어린이포교에 나서줄 스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좋은 벗 풍경소리에서 어린이노랫말을 지었던 선용 스님(현풍포교당 주지)이 쾌히 대불어 대구지구를 맡아줬고 어린이포교에 필요한 교육을 겸한 지역어린이지도자모임을 시작한 것이 이유가 됐다. 이제 겨우 두 번의 모임을 가졌을 뿐인데 호응이 좋다. 매월 열리는 모임에 강사를 찾는 것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김 사무국장의 일이지만 그저 즐겁기만 하다.

10년 활동하며 모은 어린이 법회 자료 큰 재산
지도자모임, 수련회 등 개최하며 포교에 앞장

"어린이포교는 1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당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하지만 10명의 어린이 중 3~4명은 다시 돌아와 역할을 합니다."

김 사무국장은 어린이 포교외에도 대구불교계의 궂은일은 도맡아하는 보살이다. (주)대구텍 프레스성형공으로 일한지 17년째. (주)대구텍에서 불자회인 석불회를 창립한 것도 그다. 11명으로 시작한 회원이 이제 60명을 넘겼다.

그는 이제 대불어 대구지구도 부산처럼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고민에 다시 빠졌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찰 주지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지도자들도 보다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추가통신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과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게춤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될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입 학 식 : 2006년 8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8월 18일 ~ 8월 21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강의 오후시간 실기교육 위주)
8월 1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8월 19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예수재의식 중점
8월 20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8월 21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바루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3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 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화엄사서 농산물 사세요

경내에 매장 열어

국내 처음으로 사찰 경내에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전문매장이 개설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7월 27일 일주문 옆에 '구례군 10대 농 ·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화엄사 대중 스님 30여 명과 서기동 구례군수, 최성욱 군의회의장, 오두성 구례 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장, 구례관내 농,축협 조합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종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쌀 한 톨에도 농민의 땀 7근이 담겨있어 시주의 공덕을 중히 여겨왔다"며 "농민의 공덕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농산물 매장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정경섭 구례군 농민회장도 "농업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화엄사야말로 진정한 우리고을의 천년고찰이다"고 선언하고, "화엄사 농산물 매장을 시작으로 농민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례 화엄사는 7월 27일 국내 처음으로 사찰 경내에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 전문매장을 개설했다.

이날 일주문 옆에 개관한 화엄사 농산물 매장은 5.5평 규모로 화엄사가 무상임대하고 구례군 농민회가 자체운영한다.

농산물 매장에는 산수유, 우리밀, 오이, 단감, 토종꿀, 고로쇠, 녹차, 산채, 매실, 쌀 등 구례군에서 지정한 10대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된다.

화엄사는 이번 농산물 매장 개설과 함께 공양물을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바꾸고 사찰 홈페이지에 지역 농,특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화엄사 농산물 매장 개관식에 참가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계자도 기아자동차 생협,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키로 약속해 지역 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화엄사는 지난 4월 8일 구례군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볍씨 담그기, 모내기 등 농민회 공동작업에 화엄사 대중 스님들이 동참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농산물 매장 개설에 앞서 화엄사는 지난 7월 25일 각황전에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3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이날 점안식에서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아미타 부처님은 10만 8천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정도를 닦아 정진하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이다"고 설했다. (061)782-7600

글 · 사진= 이준엽 기자

법당 전체 극락정토 표현

김제 청운사 무량광전

요즘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 www.baekryon.com)에는 하소백련축제가 한창이다. 구품연지가 연상되는 계단식 백련지에는 눈부신 백련이 줄지도 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이다. 지난 겨울, 물을 이용해 백련의 개화시기를 조절하였다. 그래서 연지에서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뽀얀 자태가 연이어 나투게 된다.

금년으로 5회째 맞는 하소백련 축제도 꽃과 함께 여름내내 펼쳐진다. 청운사 주지이자 탱화장인 도원 스님(무형문화재 26호)의 연꽃 그림전을 필두로 돌 조각전, 시화전, 네팔 사진전, 솟대 깃발전 등 이것저것 눈요깃감이 즐비하다. 특히 법당에서 만나는 수억년전 원시보물전은 특별하다. 백악기 공룡알에서 신생대 나무 화석까지 200여점의 돌 화석은 신비하기조차 하다.

청운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화석이 전시된 전각 '무량광전(無量光殿)'이다.


무량광전 내외벽에 조성된 아미타경 사경(위)과 관무량수경 불화(아래).

벽면 사방에 사경 · 16관법 불화 장엄
법당 한바퀴 돌며 '아미타경' 일독 가능

지난 6월 25일 하소백련 축제 시작과 함께 단청불사를 마친 이 전각은 멀리서보면 여느 사찰 건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특별함이 눈에 띈다.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을 그대로 옮겨온 듯 하다.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도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앉으셨다. 전각을 장엄하는 단청도 아미타불 정토극락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정토삼부경>을 옮겨놓았다.

이 전각이 특별한 것은 단청의 내용이다. 우선 현판과 나란히 하는 외벽 윗부분에는 한글로 푼 <아미타경>을 사경했다. 법당 외부를 한바퀴 돌며 읽다보면 저절로 <아미타경>을 독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당 벽면을 경전사경으로 단청한 곳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각 벽면 중간 부분에는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이 내부에서 외부벽까지 불화로 그려져 있다. 또한 벽면 아래 부분은 무명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표현한 창작불화 '연이야기'가 자리해 있다. 달 해 겨울 봄 여름 가을 발심 원력 성각 등 깨침의 과정을 9단계로 표현한 이 불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을 달리하며 다양한 정토세계를 맛보도록 한다. 이같은 창작불화는 전각 내부에도 있다. 삼국유사의 염불수행에 관한 내용과 향가를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다.

무량광전의 내부 대들보, 포벽, 불벽에도 연화화생도와 시방공양도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지난 일년간 무량광전 단청을 직접 작업한 주지 도원 스님은 "무량광전은 아미타불을 불심의 본존으로 삼고, 그 가르침인 <정토삼부경>을 법보의 중심으로 했다. 또한 대 · 소 경전을 지표로 삼아 염불하고, 참선하며 나와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이 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청운사는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정토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자 한다. <관무량수경>에서 제시하는 16관법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화와 수행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063)543-1248

이준엽 기자

전주 덕진연못 · 무안 회산백련지

연꽃축제 '활짝'

호남 지역 최대 연꽃 자생지인 전주 덕진연못과 무안 회산백련지에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연꽃축제가 복원됐다.

전북 우리문화원(원장 이용의)과 전통생활예절보존회(회장 이림)는 7월 22일 전주 덕진연못에서 '2006 전주연꽃축제'를 개최했다.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꽃 축제는 초 · 중 · 고생의 연꽃 그리기 및 백일장 대회, 들차경연과 청소년 다례체험, 공연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김완주 전북지사, 백남운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조선의 마지막 황손 이석 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주 덕진연못에서는 40여년 전부터 연꽃축제가 열렸으나, 최근 일부 단체에서 불교색채가 있는 연꽃축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전주 예술제'로 진행됐다.

우리문화원 이용의 원장(파라미타 전북지부장)은 "덕진연못에서 연꽃이 필 때면 시민이 연꽃을 바라보며 쉬어갔다"며 "앞으로 해마다 연꽃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축제한마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덕진연못은 넓이가 총 3만여평으로, 이 가운데 1만3000평에 홍련이 자생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양 최대 백련 자생지인 무안 회산백련지에서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백련불교문화 대축제'가 열린다.

백련불교문화축제 기간동안 백련지에는 10만개의 연등이 밝혀지며 팔관재, 린포체 마정수기, 방생 법회 등 불교행사와 일로품바명인대회, 무안방언구사 경연대회,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대회 등이 열린다.

또한 부대행사로 황토염색, 연 그림판화, 부처님 사리친견, 만다라 재현, 백련차 전시 등 현장 체험도 진행된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천년고찰 내소사 · 미황사 재가자 대상 참선수련회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 · www.naesosa.org)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님들과 함께하는 참선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내소사 대중 스님들과 함께 회승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수련회는 초심자를 위한 참선습의 위주로 펼쳐지며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참선 수련회를 기획한 진호 스님은 "각 사찰마다 체험위주의 템플스테이가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참선 수행을 원하는 재가자들을 위한 곳이 별로 없다"며 "1주일이면 깨칠 수 있다고 강조하신 해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련법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내소사는 또한 이번 참선 수련회와 함께 해마다 봄철에 실시해온 '내소사 7일 용맹정진'을 금년부터 가을에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0월 22일부터 18일까지 68차 용맹정진을 펼친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 · www.mihwangsa.com)도 참선 전문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를 8월 8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

'참 나를 찾아가는 7박8일간의 출가수행'이란 부제와 함께 매월 1회씩 열리고 있는 '참 사람의 향기'는 묵언, 오후불식과 참선 정진으로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행기간 동안 마음청정(장호흡), 마음집중(수식관), 직관수행(화두) 등의 수행체계와 수행문답, 법문이 펼쳐진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연대 장애인 자립 후원

평화실천 광주 전남 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는 7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의회에서 제안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단체가 되어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2회 평화백일장을 오는 10월 22일 문빈정사에서 실시하며, 북녘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키로 했다. 이준엽 기자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8월 한달 인도문화축제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은 8월 한달간 박물관 1층 공연장에서 티벳,인도문화 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8월 5일, 12일, 19일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남인도 전통춤 모히니아땀(변영미), 남인도 전통악기 미라브 연주(자야프라사드), 엑타르 연주와 타골시 노래(박양희), 인도명상곡 반스리 연주(밀린드다테), 탐브라 연주(김진묵) 등이 선보인다. 대원사는 또한 사찰 경내지 연못에 식재한 세계 각국의 수련(108종)과 각종 수상식물(50여종)을 공개하는 연꽃축제를 8월말까지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2006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8기(3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일 시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선사상	김호귀 교수
		팔천송반야경	김형준 교수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최봉수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6년 8월 1일 ~9월 4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10월 12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 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포교사과정 (30명) 법 사 과 정 (2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6년 8월 1일 ~9월 7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5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5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5일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법사과정) : 9월 5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5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6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7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6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민병홍법사	실 기
• 바 라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인각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6년 9월 9일까지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바라반)

3. 개강일시 9월 9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6일(수) 오후 7시 (야간반)
8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불교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 발족

특수부대 · 경찰 출신 봉사단원 110명 확보
국제 NGO와 연대 … 국내외서 활동 계획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은 7월 26일 결성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내외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으로 연락주세요"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구조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될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이 7월 26일 평택 법장사에서 결성법회와 함께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재난구조봉사단은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의 피해외에 국가적 재난과 대형사고 및 테러 등 사회적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전문 구조단으로도 활동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봉사단의 구성은 총무원장 정산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추대하고,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 단장을 맡는다.

또한 천태종총무원 사회부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전국 광역시별로 지부와 지회를 구축해 전국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모집된 봉사단원은 대략 110명 정도다.

SSU(Ship Salvage Unit, 해군해난구조대) 전우회 소속 불자 회원 60여명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교계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한 60여 천태종 종도까지 합한 숫자다.

특히 천태종 사회부 산하에는 현재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인천 황룡사, 분당 대광사, 포항 황해사 등 5곳 정도의 지부가 설치돼 있다.

단장 무원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한 사찰당 5~10명 정도 단원들을 모집해 본격활동에 들어가는 9월까지 2백명 정도 규모의 봉사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봉사단외에도 실무운영팀들을 이달안으로 조직하고 각 지부지회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난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도 재난구조봉사단을 파견해 국제 NGO단체와 연대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재난은 SSU 회원들이 맡고, 일반재난은 천태종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맡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난의 성격에 관계없이 서로 인력지원을 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봉사단원 자격도 해병대,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 출신을 비롯해 소방서, 방재청, 경찰 출신자들로 제한했다.

천태종은 재난구조봉사가 특수 전문과정이라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해 봉사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광역시별로 구성할 지부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들이 매일 매일의 활동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봉사단을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앞으로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은 기본 재해구조 업무외에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중 청소 △한강 및 전국의 하천 살리기 운동 △해상에서 파손된 선박 인계작업 △해저에 있는 주요 물건 인양 작업 등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성법회에는 SSU(Ship Salvage Unit, 해군해난구조대) 전우회 소속 회원 30여 명과 일반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원효종 종정서리 직대 향운 총무원장 맡아

원효종 중앙종회는 7월 15일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현재 공석인 종정 스님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법에 따라 새 종정 선출시까지 총무원장 향운 스님을 종정서리 직무대행에 임명키로 결의했다.

또한 원효종 중앙종회는 이날 종단 규정원장으로 선임된 혜인 스님을 승적 허위사실 보고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김주일 기자

총지종 경로수련법회

총지종은 8월 30·31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고유스호스텔에서 각 사원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 6회 경로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법회에서는 우승 통리원장 법문에 이어 예불과 교리특강, 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02)552-1080 김주일 기자

울릉도서 '독도 아리랑' 합창

8월 2~4일 회당문화축제

울릉도 지역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제 6회 회당문화축제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울릉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 등이 후원하는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열린다.

'독도아리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당문화축제는 8월 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3일에는 도동항 가설무대에서 회당문화축제 기념행사와 풍등날리기, 장사익, 한영애씨 등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한 각종 독도사랑 이벤트행사 등이 마련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진각종 서울청년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망등 달기, 독도사랑 전각탁본 등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진각복지재단은 지난 6월 19일 울릉군으로부터 수탁 받은 보육시설 '꿈나무 어린이집' 개원식을 8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본격 가동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통리원 2층 회의실에서 제 3회 종무회의를 갖고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기본 추진안을 마련했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통리원장 직속기구로서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정해 기념사업회 명칭과 기구 등을 확정하는 한편 10월 중 기념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새터민 템플스테이 8월 2~3일 원주 성문사서

천태종은 8월2~3일 양일간 원주 성문사서 자유와 평화를 찾아 사선을 넘은 새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3회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와 천태종 사회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의식, 관음정근, 다도체험 등을 불교문화와 습의의식 체험을 비롯해 촛불기도, 유서쓰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비구니회 군포교 나섰다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서 수계법회

전계사에 회장 명성 스님 지도부 대거 참석 격려



7월 22일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전계사(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이 장병들에게 수계증을 나누어 주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펼쳐 화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은 7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700만원의 후원금과 초코파이 100박스를 호국 연무사에 전달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회장 명성, 총무부장 운달, 섭외부장 성정, 재무부장 명수, 법련사 주지 혜광 스님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군포교 활성화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의지를 드러냈다.

회장 명성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를 받은 장병 2천여명은 오계를 받들고 불자로서 건강하고 밝게 군생활을 마치겠다고 서원했다.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가 생긴 이래 비구니 스님이 전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계법회에 이어 펼쳐진 2부 공연법회에서는 의정부 및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율동, 춤,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수계장병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올해초 회장 명성 스님이 솔선수범으로 군포교를 위해 5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4월 19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1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보시한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전국비구니회에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위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와 조만간 군 병원 법당에서 군포교에 나설 비구니 스님을 선발할 계획이다.

명성 스님은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군불교 현실은 많이 열악한 것 같다"며 "향후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위문법회, 비구니 스님 민간인 법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이날 수계법회에 동참해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군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매달 마지막째주 토요일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평균 2천여 불자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어 사찰, 기업 등의 후원으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KY Life is Entertainment Kumyoung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업1팀)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새 세상 느끼게 한 달콤·살벌 품앗이!

밭에서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아 마을로 나르고 있는 학생들. 한여름 더위로 많은 땀을 흘렸지만 흘린 땀만큼 보람도 크다.

수철이(충암고 1년)와 창규(한양대 3년)가 곡괭이를 잡고 나섰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답지 않게 능숙하게 원추리를 캔다. 뒤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는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 사이로 땀방울이 반짝거린다. 농촌으로 간 학생들. 그들은 왜 여기에 온 것일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농촌 일손돕기 현장

고교·대학생 회원 25명
부여 거전마을서 팜스테이
밭일·페인트칠 등 울력하며
"농촌 이해·일의 가치 배웠죠"

#농촌사람들과의 만남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5일 오후.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마을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들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의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25명.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작업복 차림으로 나섰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거전마을의 이길용(54) 이장, 서용순(41) 부녀회장, 김혜정(36) 부녀회 총무, 그리고 김운환(51) 사무국장이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을 맞았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가세요. 환영합니다."

이길용 이장이 인사말을 하자 학생들을 박수를 치며 환대에 답한다. 김운환 사무국장이 3일간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임무'를 부여했다. 마을회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에 마을 안내도를 그리고 마을회관 좌우에 설치돼 있는 두 개의 정자에 방수페인트를 칠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농촌체험 '출사표'

임무가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더니 각 그룹별로 회의를 한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불교청소년연합회 지수연 기획팀장은 그런 학생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 연합회는 '그룹'이라는 외래어 대신 협동의 의미인 '모둠'이라는 우리말을 쓰고 있었다.

3개 모둠이 각각 반장을 뽑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지 팀장에게 알리고 각 모둠 반장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겁니다. 최강 1모둠이 됩시다."(1모둠 최미순·서울 해성여상 2년)



원추리 캐고 다듬기



방수액, 이렇게 칠하는거 맞죠?



마을지도 그리기 쉽지 않네!



여름엔 역시 '물장난'이 최고!

"단결해서 다른 모둠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2모둠 양설·동대부고 2년)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모둠 김성수·동대부고 2년)

#마을 안내판 만들기

안내판 그리기를 맡은 3모둠의 서연철(한양공고 1년)·조용호(동대부고 1년)·함성훈(서일대 1년)과 연합회 임지혜 총무가 트럭 뒤에 올라타고 마을 탐사에 나섰다. 거전마을 오른쪽에 위치한 '닭바실마을'로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덩달아 연철이, 용호, 성훈이의 손놀림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길을 그리고 냇가를 그리고 마을을 그리며 안내판에 그릴 밑그림을 스케치한다.

"재미있느냐"고 묻자 연철이가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하며 웃는다.

거전마을 왼쪽 정골마을에서도 학생들의 스케치는 계속됐다.

"왜 정골마을이에요?" "몇 가구나 살아요?"

학생들의 질문이 김운환 사무국장에게 쏟아진다. 뜨거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본 마을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정자 아래로 불러 모은다.

"거기 뜨거워, 이리로 와."

#페인트칠은 처음인데…

"내가 제일 잘하지. 이것 봐 잘 칠해졌잖아."

2모둠의 단비(서울 해성여상 2년)가 정자 한 복판에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페인트칠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2모둠 반장인 양설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페인트를 옷에 안 묻히려고 했는데, 벌써 묻어버렸으니…"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3모둠 학생들이 마을 스케치를 하고 있을 동안 1모둠과 2모둠 학생들은 정자에 페인트칠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쉬울 리가 없다. 1모둠 반장 미순이는 "페인트가 동이 나 더 칠할 수가 없다"며 정자에서 내려왔다.

페인트가 모자라기도 했지만, 자신이 칠한 곳이 다른 사람이 칠한 곳과 색깔이 달라 덧칠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꼭 해보고 싶어요!

"원추리 캐는데 자원할 사람!" 김 사무국장의 말이 떨어지자 민규(동국대 1년)와 예나(삼육대 1년)가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자 남학생들이 모두 해보고 싶다고 나섰고, 자그마한 체구의 1모둠 반장 미순이도 가세했다.

"해보고 싶어요. 뭐든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민규가 면장갑을 끼며 '전의'를 불태운다. 밭일을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하는 눈치다.

인근 밭에 올라 원추리를 캐고 마을 아래로 나르는 작업이 시작됐다.

"원추리는 백합과 풀로 이뇨작용에 좋고 변비에도 좋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이걸 먹고 시원하게 배설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김사무국장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나가 "저 변비 있는데, 이거 싸 갈 수 있어요?"하며 너스레를 떨자 한마당 웃음꽃이 피었다.

#우리는 지금 농촌에 있다

농촌, 생태, 품앗이 이 모두를 하루 이틀 만에 배우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원추리가 어떤 풀인지, 농촌은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름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농부들의 얼굴 색깔은 어떤지, 정자에 앉아보니 느낌이 어땠는지 알게 됐으니까.

"재미있는 경험도 할 테고, 힘든 경험도 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농촌체험 제목도 '달콤 살벌한 품앗이'로 했어요."

지수연 청소년 연합회 기획팀장의 말대로 보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26일과 27일에는 시장을 봐와서 직접 끼니를 해결하는 '농촌시장체험'과 참깨 수확, 마을계곡 주변환경 미화, 부여탐방 등으로 2박 3일간의 농촌체험을 마무리했다.

부여/글=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농촌체험 올해로 두번째
보람 찾고 자연 소중함 배우고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지난해 조치원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가 두 번째다. 불교청소년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심성계발과 생태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동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농촌체험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보람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농촌체험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신뢰 바탕으로 한 동기부여가 '생명'

'사찰경영' 노하우를 듣다

아직도 사찰을 '경영'한다고 하면 세속적이라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객서비스, 문화공간 제공 등 기업경영의 요소들은 사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더군다나 수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조직력을 갖춘 대형사찰이 늘어나면서 '사찰 경영'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모범사찰을 일군 스님들로부터 '사찰경영'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조직 원력 공유하는 분신 만들어라



지광 스님
서울 능인선원 원장

"능인선원의 힘은 사람과 조직에서 나옵니다. 원아분신변진찰(願我分身遍塵刹, 원컨대 나의 분신 펴게 하소서)의 분신처럼 나의 원력을 함께 공유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핵심인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능인선원을 22년만에 22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형사찰로 일군 원장 지광 스님. 혼자의 힘으로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능인선원의 성장동력은 잘 짜여진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끄는 중간리더, 즉 핵심인자에 있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1000여 '능인등'은 가정법회를 근간으로 하고, '능인등' 10개가 모여 구역법회를 이룬다. 구역법회는 52곳의 광역법회에 소속돼 믿음을 키운다. 이 조직을 지도하는 이들은 중간리더격인 50여 현법사와 60여 정법사들이다. 집중수련과 책임감 부여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양약(良藥)이다.

지광 스님은 조직에 앞서 신심과 수행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신행관을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조직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 1시간 교육 위해 20시간 투자



우학 스님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불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느끼는 불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도교육을 사찰 경영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여느 사찰과는 달리 관음사라는 절 이름 앞에 영남불교대학을 붙인 것은 교육에 역량을 쏟겠다는 원력의 표현이다. 그러나 스님이 말하는 교육은 평범한 신도교육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도교육이다.

우학 스님은 '교육→수행→봉사 · 회향'으로 이어지는 신도관리체계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두 번째 경영 노하우로 제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신도들은 반드시 수행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고, 아울러 봉사조에 편성돼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찰과 스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학 스님은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되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법문과 강의가 교육의 핵심이다. 여기에 사찰 재정을 투명화하고 신도들의 가정과 회사 보다 좋은 도량을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교안을 만들기 위해 20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신도들은 신행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살려



환성 스님
공주 영평사 주지

"사찰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니까 스님도 아니라는 식의 불교계 내부의 비아냥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생산불교'의 선두주자 공주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절초축제 등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 숙제를 풀었다. (주)영평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영평사는 '장군죽염'으로 출발,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비롯해 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해 지역민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수익금을 어린이 · 청소년 복지 등에 재투자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낸 점도 환성 스님의 경영노하우. 어린이 · 청소년 등 지역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신뢰를 꾸준히 쌓은 것이 주효했다.

"스님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자립경제를 시도한다면 '생산불교' 실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스님의 뜻을 바로 알면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라



무구 스님
서울 수효사 효림원 원장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처음의 이미지가 지금의 수효사를 만든 것 같아요. 요즘 신도들은 기도만 해서는 절에 남지 않습니다.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해요."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과 활발한 활동으로 복지도량의 모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 17년전부터 서울 아현동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에 힘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효림원 원장 무구 스님은 포교당 문을 열면서부터 지역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시작했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지역민에게 밑반찬, 제수용품, 무료급식 등으로 회향했다.

"수효사 신도들은 바쁘고 힘들어서 법회는 못오더라도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빠질 수가 있나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보다 좋은 동기부여는 없는 셈이지요."

교양대학을 복지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수효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수효사 복지대학은 자원봉사인력의 산실이면서 신도들의 복지마인드를 키우는 요람이다. 무구 스님은 복지대학과 지역봉사로 사회적으로 기여를 중시하는 요즘 신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스텐 물고기 풍경

'스텐 물고기 풍경'은 해인사종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풍경입니다. 섬세한 문양과 독특한 착색방식으로 처리해 색상이 아름답고, 물고기와 체인줄 등을 스텐리스로 제작하여 바람에 쉽게 떨어지거나 녹이 슬지 않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경의 표면도 밝고 정교하게 제작하여 한층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풍경은 지름 14cm, 높이 17cm 규격이고, 물고기는 길이 22cm, 높이 9.5cm입니다.

가격 : 1개-12만원, 2개-20만원

분다의 경제학 (13)

필요악?

무기상들이 제철을 만났다. 석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엄청난 오일 달러로 국제 시장의 큰 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은 그나마 잠잠하던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질렀다. 첨단 무기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레바논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유가가 폭등해서 중동 산유국들의 주머니에 돈이 쌓여 있을 때면 어김없이 중동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자국의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동국가들은 금고를 열어 무기를 사 모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마다 무기상들은 이들 중동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곤 했다.

그래서 오일가격의 진정한 수혜자는 무기상과 군수업자들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에도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일달러가 두둑해진 중동국가들은 첨단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력에서 밀려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레바논을 보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군수산업은 강대국들의 경제 지탱의 핵심
생명 빼앗는 행위 불살생계 가르침 어긋나
인간 존엄성 유지 위해 선진국 노력 보여야

군수산업은 전쟁을 먹이로 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산업이다.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없다면 군수산업은 존재할 수 없고 무기를 제조해서 살아가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군수산업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방선진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의 배후에는 서방 선진국의 무기상들이 은밀히 개입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대국에게 있어서 군수산업은 자신들의 힘을 생산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군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할 정도로 우리 군수산업이 발전했다고 한다.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 민족이 당한 시련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멀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부터 가까이는 일제침략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가져야만 했다.

군사력이 약해서 불행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그랬다. 힘이 약하면 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상황은 지금이라고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힘이 약한 국가와 민족에게 군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군수산업은 필요악인가?

불교의 가르침에 오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불살생계는 불교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불살생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군수산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군수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 간의 충돌이 군수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와 군수산업에 대한 한 국가의 욕심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한 국가만 군비를 축소하려고 노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군비축소는 여러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자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무기와 군수산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길이 어렵고 험하다고 해도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결코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핵확산 금지 조약 등 군비경쟁을 축소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몇몇 강대국들이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경제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통상전략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으로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먼저 양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배경에 강대국들이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함에 감탄을 한다. 혐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5도 판화와 베틀린 옥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플즙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뭣보다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어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 (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뭘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뭘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현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침술·기치료
관절염, 오십견 중풍
허리통증, 각종 물혹, 우울증
※특이공능정수, 기치료 전수
(중국교포출장치료)
010-9137-1667

불교의식 일체를 봉행해 드립니다
낙성식, 점안식, 49재,
천도재,용왕재,방생,시달림,
작법, 천수바라 등등
염불당 011-527-543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범음범패 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예	바라	사	각
안		륙	수	나비		종의
식	49재	재	재	춤	물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친환경 한지 영가 옷
순수 한지로 제작,
일반 영가옷과 치수 동일.
그늘음, 냄새 전혀 없습니다.
도심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실용신안 26799호
의장등록 22988호
054)972-9933
전화번호 메모하세요!

농협 장례보험
● 사망 시 1,000만원~ 3,000만원까지 장례비 지급!
● 75세까지 무진단 가입, 종신보장!
● 사망시 차회 보험료 납입면제!
(상조회사는 발인식 전날 미납금을 완불합니다)
영등포농협 공제사업단 팀장 차창수
019-209-0299
02)847-9273~4

군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포교원 (급) 구함
017-297-4097

불심으로 스님모시고 한가족 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1-9778-0408

평생 함께 하실 부전스님,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태고종스님 환영)
극락사 납골당 공원
018-427-2256

백중제 지내주실 스님한분을 모십니다
▷일자 8월6일, 8월8일(2회)
019-9373-3535

기도정진할 비구 및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1-9803-6301

기문둔갑응시요결 (총 414쪽)
부록 : 기문둔갑만세력 (2006-2013년)
지은이 : 가운 김상래 출판사: 지혜문
책값: 택배비포함 \ 30,000
계좌번호 지혜문 기업은행
201-034628-04-011
02)963-6305
016-379-6305

산사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 무량사)
011-363-9790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노원주 상계 2동
달마선원
02)952-813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출퇴근
강남구청역사거리(7호선)
010-5541-6568
02)458-1108(주간만가능)

기도정진할 30~40대 비구니부전스님 행자스님모십니다
055)271-5753
010-3193-6433

불교 전통의식 배우면서 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011-9317-6686

강원지역 노스님 노보살님이 계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작은암자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이같은 곳을 알고 계신 신도님도 연락바랍니다
도솔암 주지 합장
011-623-3408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소재
조계종단등록사찰
016-9677-4895

부전스님 행자, 공양주 여사무원 모집
▷경기 평택
031) 682-3169

해인사 백련암 日字 스님께 공고합니다 거창 정각사 주지 소임자를 구합니다
055) 944-2905
011-9503-4848

본 사찰에서는 주변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수시로 공양을 제공하기 위해 운송차량(승합차)이 필요하오니 뜻을 함께 하실 불자님들의 차량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경북 성주 벽진면 매적산 연화사
주지 보원스님 백
054) 931-0044
010-3153-1273

성실한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5~65세)
054) 971-75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북한산성
011-9350-321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구 (50~60대)
010-4574-2117

실상사는 조화로운 삶 ,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 살림의 실현지입니다
생명, 평화 살림의 이념을 몸과 마음으로 엮어나가실 공양주를 모십니다.
▷보시금 70만원 수습 1개월 (보시금의 80% 지급)
010-2474-1070
063) 636-3031 실상사 종무소

착하고 성실한 공양주 모심
▷조계종사찰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척과리
조용하고 경관이 좋음
017-544-555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051) 542-4848
011-551-1719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보유
011-9337-2870

노후생활을 함께할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혼자 계신 분)
나이 : 60~65세
건강하신 여성분
017-573-290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 /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당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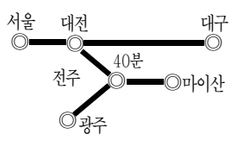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조상영가천도
시부모 영가 · 친정부모 영가 · 태아 영가 · 각종질병 사고로 인한 · 사별한 남편부인 · 조부모 형제자매 일가친척

가족법회 법사 · 거사법회 자녀교육상담
체계있게 경전을 독송한 후 천도합니다. 가족에게는 삼재팔난 업장소멸하여 소원성취 됩니다. 대불정능엄신주·우리말·천수경·지장경·영가천도책을 열심히 독송기도 하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체계있게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독송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치매예방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마산 245-2662 안성 010-9242-035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남해 / 위치 / 위치 : 경남
- 법당 : 13평 / 법당 : 대전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요사 : 80평 / 요사 : 80평
- 부지 : 500평 / 부지 : 50평 / 부지 : 850평
- 가액: 1억 9500 / 가액 : 7억 5천 / 가액 : 3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주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상담후결정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인접서창 신도지
- 대지 : 60평
- 건물 1층 32평, 2층 29평 삼신각 4평(단청필) 신축한지 3년(법당시설 A급)
- 가액: 2억 6천만원(대출 9천포함) 아파트 대단지 인구 10만 육박 주차시설편리

*꼭 필요하신 스님분만 전화바랍

011-868-599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정선, 소금강
- 화남8경,용마소,종유굴,화암신약수
- 빼어난 경관 명당1필지에 9470평 (임 5370평,전 4100평) ※관리지역

※사찰,펜션,방가로,콘도, 휴양지로 최적지
※진입로 잘 되어 있음

017-331-157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근교 / 위치: 가평
- 부지: 550평 / 부지: 99평
- 법당: 15평 고찰 / 법당: 30평
- 요사: 20평 산속 / 요사: 46평
- 가액: 2억 1천만 / 가액: 1억 9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하천부지 20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4평(목재), 삼신각10평, 위패당 및 납골당 85평
- 가액:16억 5천만원

031)543-6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목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급)안내
- 영천-건천 IC에서 20분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 가액: 1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위치	부지	가액
• 밀양	약1000평	2억8천
• 서울	약 90평	4억2천
• 남양주시	약1800평	17억
• 부산	4층건물 (뒷산,약수터 도심포교최적)	1억 5천 (1억5천 융자별도)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및 요양원, 양로원 최적지 (서울)
- 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대지 182평, 건평 170평, 3층 건물
- 엘리베이터, 정자, 주차시설

※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정이전 관계로 안내함

02)3216-0572 / 3216-9011
011-441-1966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동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3천만원

011-511-2609
064)748-200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만리
- 법당16평,요사채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금남로5가 (충장로5가)
- 3층 중 2,3층 사용
- 평수: 총 40평
- 2, 3층 법당으로 이루어짐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163-474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3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566-1번지외 6필지
- 총평수 : 1,346평, 법당 : 14평, 요사채 : 25명 농지전용허가필 (지적 : 400평, 대지 : 94평)
- 가액 : 2억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청동 삼존불 봉안
※ 경관이 수려하며 계곡인접

연락처 : 033)433-7256
010-4480-0507/011-349-15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산시소재
- 부지: 800평(종교용지)
- 법당: 25평 (목조, 단청)
- 요사: 30평,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2억 8천만원
- 특징: 도심에 이쓰면서 계곡과 산세가 어우러진 사찰이며 특히 신라시대 유물이 있는 고사찰임

- 위치: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약 100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가액: 2억 5천만원
- 특징: 도심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시내 근교
- 대지 : 900평
- 건물 : 1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1-511-770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절충가능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700만원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10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절충가능)
- 중부.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인접 요즘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희소식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사찰
- 종교집회장 5100평 전체관리지역 - 평당 20만원
- 곤지암 전원 주택단지 5500평 - 평당 25만원
- 요양원 최고 유황물 6000평 - 평당 20만원
- 가액 : 10억 모두를 불교재단에 불사하겠습니다

031)767-0837 / 033)462-361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대전시 유성구(유성시장 내)
- 상가건물. 3층건물에 2층
- 법당 30평 집기일체 완비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042)823-3758
011-332-529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뒷길)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약 40평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017-587-7193

사찰 및 사찰부지 안내
- 평수 : 1000 ~ 3 만평 (100% 평지)
- 가격 : 평당 25 만원 (가격 절충)
- 위치 : 서생 간절곶 바다전망 환상적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뜨는 곳

※부산시내 사찰 및 암자, 토굴, 포교당 다수 확보

사찰전문 부산 연산 부동산
011-560-8522
051)863-6661

명당(부귀영화지지)터 사찰(납골당)적지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도로양호)
- 면적: 산 37,000평 전 1,000평 대지 200평
- 교통: 고령읍에서 15분거리 대구에서 40분
- 가액: 8억원

010-4573-7277(지산선생)

포교당(급)안내
- 대구시 중구 남산동
- 법당: 30평
- 2층 건물 중 2층
- 청동아미타 부처님, 약사여래 지장보살, 각단탱화 (범종)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조정가능)

053)255-8984
011-822-8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785-567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부곡 2동
- 평수: 43평
- 스님방 1칸, 공양간, 화장실 별도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011-584-6959
010-9136-6959

사찰터안내
- 산좋고 물맑은 충남공주시
- 무성산 기슭 임야 8천평내
- 주택2동 38평 25평
- 도랑이 깊고 계곡물 흐르면서옹달샘 있음

041)854-0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평리동 대로변
- 평수: 45평(3층건물 2층)
- 법당 25평,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 친견실, 침실, 공양간, 음향시설, 단청 에어컨, 기타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대작 불사후 이전한 포교원임

010-9511-4963

사찰 인연을 맺고자합니다
- 경주 남산
- 보물 부처님 계신 사찰
- 기암 괴석 수 많이 있음
- 터 5만평 (垈 2만평)
- 요사채 공사 10억
- 온천개발 및 고시완료
- 지방도 접 35억
- 무학대사 기도도량
- 경북 포항시 죽장
- 터 2만평 요사채 등 10채
- 천하절경 계곡물 多
- 지방도 접 인연 중요시
- 불사 비용 20억

016-512-7777 / 016-502-43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삼천포
- 3층 건물 중 3층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5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 833-5866

구합니다
사찰 및 암자 구합니다
(전세나 월세)
▷지역관계없음
010-8828-30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5일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시설하지 약 1년 된 주지실, 법당 지대방, 각 에어컨, 난방완비
- 보증금 :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5천 소유(2천 3백 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만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동구 성내2동
- 평수 : 100평
- 법당, 방3, 창고1, 후원1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 월 150만원(관리비 별도)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292-1090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동면 소재지
- 국유지 450평, 사유지 300평
- 목조인법당 25평, 조립벽돌요사 33평
- 산신각, 문화재급약사여래석불
- 시내 5분거리, 포교도량으로 적합함
- 양도가 : 1억 7천 일시불 절충가함

심심풀이 전화 금합니다

011-677-8525

사 찰 터 안 내
- 절터, 전원주택, 펜션 민박촌, 연수원, 기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하리 224 , 약 2000평 151-3 , 약 3000평
- 위치: 가조 온천(지산)와 (가천) 합천호 사이

016-831-3366
055) 944-66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전체 2천평 임법당(20평) 요사채 산신각(전통건축)
- 산세좋고, 전기, 수도,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1억5천만원

016-9255-8090

사찰안내
- 위치: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120평. 2층 24평
- 슬라브 2층 24평 법당, 요사채1, 산신각
- 산세수려한 산자락아래 비구니기도터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해운대구 재송동 최고 요지
- 약 50평, 사무실, 법당, 공양간, 주지실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 집기 비품 35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9-293-9369

시골촌집안내
- 위치 : 경남 거제군 일운면 거제대학 밑에 바닷가 바닷가 전망좋음
- 평수 : 117평
- 가액 : 1억 5백만원

011-594-152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15분거리 큰도로변에서 5분 나주역까지 7분
- 대지: 400평
- 법당: 18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청주시내 충북대학교 약 200M 시장 약 200M 공단오거리 약 200M
- 대지 50평 1층 요사, 방 4, 주방, 화장실, 거실 2층 요사, 방 3, 주방, 화장실, 거실 3층 법당, 지하창고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사 찰 터 안 내
- 주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 대지: 70평, 건물: 85평 (1.2층)
- 창고, 작은 정원등, 소나무 외곽 대문앞 소나무 등 북악산 자락 뒤에 산이 보임

장소는 스님 토굴이나 명상 요가 센타등 절이나 박물관 등으로 적합

011-335-9663
011-669-09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마산에서 10분거리 교통편리
- 평수: 4층건물 중 2층에 24평
- 시설: 법당, 주방, 스님방, 샤워실 완비
- 24평 전체 보일러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저렴하게 보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55) 587-0017
011-9560-2700

포교당안내
- 위치 : 전주시내 고급아파트 밀집지역 3층건물중 2층
- 평수: 35평
- 법당, 스님방, 공양간, 화장실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063)271-7688
010-3038-6788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3,300만원

010-6460-1316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

한국불교 재가자의 위상은?

해탈 가능성 · 삶과 수행의 조화 · 교육 등 거론

'재가자는 출가자보다 하열한가, 현생에 복을 닦아 다음 생에 출가자로 태어나 불법을 믿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출 · 재가자는 단지 역할이 다를 뿐, 불법을 닦는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가?'

불교계 대표적인 대중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06년 여름호 특집에서 한국불교 재가의 위상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내던진 화두는 '재가불교를 생각한다'. 불교학자, 재가수행자 및 신행운동가, 불교계 NGO 활동가 등이 논문 6편을 내놓았다.

특집논문에서 논의의 첫 포문을 연 박경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란 주제에서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박 원장은 특히 "유마경, 승만경 등의 대승경전에서는 출 · 재가를 계급화한다거나 불교를 초월주의 또는 출세간주의화하려는 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진정한 수레가 된다. 화합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난해 '우리함께 회관' 개관식에서 출 · 재가 지도자가 기념떡을 자르는 모습.

'일본왕 겸한 백제성왕' 자료발굴 눈길

이에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바가바드 기따>의 까르마 요가에서 재가자의 해탈 가능성을 가늠했다. 허 교수는 "기따의 요가 사상이 삶의 현장에서 행위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며 "'봉사하라, 의무를 이행하라'는 <기따>의 가르침이 현실적인 삶을 수행과 일치시켜 그 속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생활과 수행을 조화시키는 재가자들의 체험담도 소개됐다. 재가수행단체 '선도회'를 이끄는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란 주제로, 현실의 삶과 수행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방편들을 설명했으며, 최영돈 원불교 서울청년선방 지도법사(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원불교 재가자로서 삶과 수행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상적인 재가불교를 위한 제언도 제시됐다.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철학과 교수)은 "출가중과 재가중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불교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출 · 재가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또 "출가수행과 재가수행은 달라야 한다"며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자들의 무분별한 '스님 흉내 내기'와 출가자들의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식의 무책임함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은 '오늘날의 재가불자교육을 돌아본다'는 주제로, 주요 불교대학 교과목을 중심으로 재가불교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불교평론>에서는 '백제 성왕이 일본왕을 겸임했다'는 홍윤기 교수(한국외대 교양학부)의 자료발굴, 혜심 선사의 선시 세계를 조명한 학해 스님(선운사 승가대 학감)의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등 다양한 논문들이 수록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금강대-파키스탄 펀자브大 학술교류 협정

'울너콜렉션' 디지털화 추진

오스트리아 빈대학 공동 참여

금강대학교(총장 조성환)와 파키스탄 펀자브대학교가 상호 간 학술교류 및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8월 2일 펀자브대학교 본부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 및 학생 상호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대회 추진 △공동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다.

특히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국내 최초로 인도학/불교학 관련 필사본을 본격적으로 입수하게 되는 '울너콜렉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울너콜렉션이란 펀자브대 도서관장을 역임함 울너 교수가 인도 전역에서 수집한 8000여점의 불교학 자료 필사본. 그동안 이 울너콜렉션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적 분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울너콜렉션 디지털화 사업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이 공동 참여하고 사업기간은 10년이다.

펀자브대학은 파키스탄 펀자브 라호르에 소재하고 있으며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세계 4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펀자브대학은 단과 대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문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동양학 이슬람학 과학 공학 치의학 의학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교직원 613명과 240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매장문화재 지리 정보 웹서비스

문화재청, 공주 · 부여 · 김해 · 고령 등 4개 지역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정밀수치지형도상에서 문화유적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GIS)'를 구축해 인터넷(gis-heritage.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는 전국의 문화유적을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화유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공개에서는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고령군 4개소 지역 내 1592개의 유 · 무형문화재가 소개되며 이중 불교관련 문화재는 김해 무쌍사지와 공주 갑사 대웅전과 동종, 부여 무량사 등을 포함해 약 100여개.

문화재청은 "1: 5000 축척의 정밀수치지형도상에서 유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체계는 현재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해 3차원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도 유적 주변의 지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성지인 여수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 등지를 순례하는 '2006년 여름 워크숍'을 연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8>

무어의 법칙

문명학자들은 지난 50년간의 인류의 발전이 그전 수 천년 동안의 발전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중세의 왕보다도 현대의 중산층이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 속에는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과 반도체 통신과 같은 전자 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당연한 통신 수단으로 여겨지는 휴대전화 역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조차도 힘든 생활필수품이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화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 반도체 공학자들은 소형화의 척도로서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 한다. 무어의 법칙이란 1970년 대 초,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집적시켜 칩을 만드는 소위 직접회로(IC: integrated circuit)라는 기술을 산업화하기 시작할 때 한 개의 칩에 집적해서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매년 30%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말한다. 당시 이를 예측한 사람은 현재 모든 PC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인텔이라는 회사의 창업자 무어이다. 이러한 예측은 마치 진리처럼 과거 30년 이상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세계의 과학 기술자들은 칩의 면적은 증가시키지 않고도 무어의 예측대로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기 위해서 작게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작음의 척도인 최소 선폭 또한 매년 15% 이상 감소했다. 필자가 대학원생 당시 최소 선폭이 10마이크론 정도였는데, 현재 기흥 그리고 이천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50나노 이하의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무어의 예측의 끝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소형화를 추구하는 공학자들은 인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미세 칩을 만들어 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의료기술 분야에도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변화의 많고 적음의 척도로 시간적인 변화율을 사용한다. 만약 변화율이 현재의 상태에 비례하면 그 변화율은 지수함수적인 변화가 된다. 어린이의 매년 키의 증가가 당시 키에 비례한다면 너무 빨리 커서 주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어느 정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다가 증가가 멈추게 되는데 이때 감소율 또한 지수함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수함수적인 변화의 모습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이 만든 무어의 변화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없이 현재 크기의 수십 퍼센트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어의 예측은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지만 끝없는 경쟁과 자연의 파괴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설하신 탐 진 치와 무어의 법칙이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어의 법칙에 의한 과학기술 장비에 의해서 홍수도 쉽게 예측하고, 암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과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의 현대적인 해석과 적용이 불자들의 당면 과제일지도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반도체 소형화 기술 인간의 상상력 뛰어넘어
생활편리 이면에 무한경쟁 · 자연파괴 불가피



그림 : 문병성

대한불교선교종 행자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종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 모집대상(5名 ~ 7名)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 문 의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 한 불 교 선 교 종 총 무 원

무구정광대다라니범서 소장용 액자 및 사경집 발간



가격 5,000원
(윤달 예수제 사경기도 법보시 사용사찰은 할인 구매 가능함)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정성껏 계를 지키며 법답게 공양을 올리고 이 주문을 77번 읽어주면 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리라.
이 다라니를 지성으로 77번 외워주면 나쁜 곳에 태어났더라도 즉시 그곳을 떠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 다라니를 집안에 모셔놓기만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거니와 하물며 사경하고 항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말로써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 범서 액자 10만원 · 금니 다라니 20만원

범서 반야심경, 범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서 능엄주 외 모든 범서 다라니가 있습니다.
(경명주사, 금니, 묵서)
소장액자는 덕산스님이 직접 쓰신 다라니입니다.

회원가입주문하신분께는 20%할인 해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943-2107, 011-9585-0386
● 한글주소 : 불교기획(www.bulta.co.kr) 인터넷 주소창에 불교기획만 치세요.

※ 광명진언, 대불정능엄주 범서 사경본도 곧 출간됩니다.

일주문



통리원장배 미니축구대회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19일에서 20일까지 위덕대 운동장에서 제1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어린이)이 미니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원심원사 범종불사 입재

연천 원심원사 주지 세민 스님은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원심원사 복원불사를 위한 범종불사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031)834-8467



어린이들을 위한 다도 아카데미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8월 2일부터 9일까지 대흥사와 차문화유적지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61)535-5775



우리음악 체험마당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7월 31일 김포 메이필드호텔 야외공원에서 선재법당 어린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음악 체험마당을 개최했다.



불교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연수회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효천 스님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동청소년수련관에서 제1회 영남 불교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간화선입문 프로그램 수료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봉화 축서사에서 '제1기 간화선입문 프로그램' 수련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2030 지리산 명상 기행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구례 천은사, 노고단 등지에서 2030 지리산 명상 기행을 연다.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장 유국현 △교무처 교원인사팀장 김승용 △입학처 입학관리실장 한문우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장 구태회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김종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이동규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실장 겸 동국포스트 부주간 박명관 △대학원 행정지원실장 홍성조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장 김종진 △공학교육연구센터 행정지원팀장 안재봉

경주캠퍼스 △연구처장 이동웅 △기획처 심사평가팀장 김근묵△교무처 교원인사팀장 안석호 △교무처 입학관리실장 김영수 △연구처 산학연구지원팀장 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겸직) 정성호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장 이진형 △산학협력단 행정지원팀장 이진희

"몸·마음 편한 공간 지역민에 보시"

달마사에 무료진료소 '하늘뜨락' 연 주지 호산 스님



"달마사가 위치해 있는 흑석동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2004년 3월 불교계 최초로 문예대학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서울 달마사 주지 호산 스님(사진). 호산 스님은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기 위해 무료진료소 '하늘뜨락'을 7월 25일 개설했다.

하늘뜨락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내과를 중심으로 양방 치료를 한다. 셋째 주 토요일에는 한방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아픈 심신을 다스릴 계획이다.

"의료진도 달마사 신도를 비롯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약사보살의 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나선 것입니다."

하늘뜨락은 진료가 없을 때에는 찻집과 지대방 역할을 한다. 절을 찾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의료서비스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상담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호산 스님은 2003년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달마사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시에 귀속됐던 180여평의 땅을 되찾았고, 사찰 홍보 전단지를 인근 아파트에 하나하나 꽂았다. 어린이 법회와 여름불교학교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앞장섰으며, 산사영화제를 통해 문화도량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달마사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도량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02)813-747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006 부다피아 영어·역사문화체험캠프 참가자들이 7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한 모습.

하와이 부다피아 영어·문화캠프 '출발'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2006 부다피아 영어·역사문화체험 캠프'가 시작됐다.

10여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8월 17일까지 21박 22일간 하와이 무량사에서 원어민 교수진의 미국의 어학연수기관 교재를 통한 단계별 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3주간의 일정으로 원어민 선생님에게 총 60시간의 수준별 영어강의도 받는다. 또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실제상황에 적용해본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잠수함 및 요트 등의 해양스포츠와 관광명소 탐방 등의 과외활동도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현대불교 하와이 캠프 커뮤니티(hompy.buddhapia.com/homepy/hawaii)에서 참가자들의 생활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소개한다. **이은비 기자**

같은날(7월 22일) 서울·대구서 '불광축구단' 떴다



서울 불광사 종무원·직원 '의기투합'



대구 불광사 불교대 동문 '화합발원'

7월 22일 두 곳에서 같은 이름의 축구단이 창단돼 화제다.

첫 번째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 '불광축구단'. 감독은 축구선수 출신인 허성국 영업국장이 맡았다. 불광사 스님들과 종무원, 출판사 직원, 청년회 회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불광축구단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석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할 계획이다. 또 매월 1회 불교계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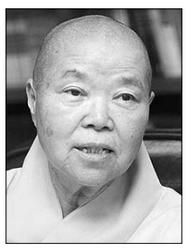
두 번째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 '불광축구단'. 불광축구단은 스포츠를 통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경북불교대학 동문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져 불광불교종합복지관 원만 건립을 발원하기 위해 22일 창단됐다.

불광축구단 지도법사는 돈관 스님, 단장은 조인구 경북불교대학 사무국장이며, 회장은 정옥수씨, 감독 겸 코치는 황치모씨다. 회원 40여명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6시 성암산 초등학교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동다송문화상' 수상

명성 스님, 차 연구 등 공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사진)이 7월 31일 부산 크라운호텔 3층 목련홀에서 열린 칠월칠석 다례회에서 '동다송문화상'을 수상했다.

동다송문화회(회장 박수자)는 "명성 스님이 서예와 꽃꽂이, 차 등 한국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온 점을 높이 사 동다송문화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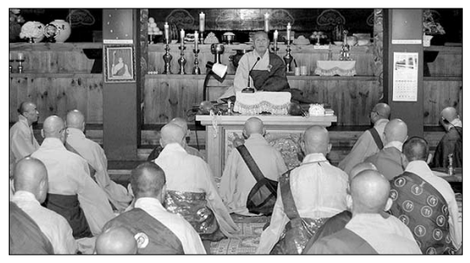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제1회 태종대 수국축제 개최



부산 태종사(주지 진용)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태종대 수국축제를 개최했다. 수국축제는 3000여평 태종사 경내를 가득 채운 수국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 소리와 함께하는 국악공연, 제기차기, 투호놀이, 떡매치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범추당 정수 스님 49재 봉행



청주 풍주선원장 범추당 정수 종사 49재가 조계종 원로의원 이두·혜정, 청주청원사암연합회장 각의, 청주 보현사 조실 원봉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2일 풍주선원에서 봉행됐다. 49재는 정수 종사 육성법문 청취, 혜정 스님 법어, 각계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8월의 환우' 폐동맥류 앓는 조미라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8월의 환우로 선정된 조미라(42·사진)씨는 지난 2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베체트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만성적인 폐동맥류를 앓는 조씨에게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발병 전 식당보조로 일하며 가족 생계를 꾸려왔던 조씨로써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조씨에게는 세 자녀도 있다. 그러나 큰 아들은 1999년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조씨 가족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의뢰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줬었다. (02)723-5101 농협 053-01-243778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종웅)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기본'도 못지키는 사람들

일찍이 나라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변고를 당하면 왕이나 목민관은 하늘 아래 엎드려 고두사죄의 예를 다해 천심과 민심을 달랬다.

올해도 장마철과 태풍 내습이 맞물려 전국토가 소위 '물폭탄'을 맞아 인명피해가 심대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수만명의 이재민은 살 의욕마저 놓아버릴 지경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구 지원의 손길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과 격려의 미담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도저히 양식 있는 인간의 행위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망발의 소행들이 있다니, 참으로 같은 하늘 아래 더불어 숨 쉬고 살아가기가 민망한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국정을 대신해서 잘 처리해달라고 맡긴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무리로 짝을 지어 극심한 수해지구 근방의 골프장에서 '굿 샷'을 외치며 골프놀이를 했다는 사실은 차마 믿기지 아니하는 수준이다.

딱히 이 한 건만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어느 지자체의 장이라는 목민관은 그 판에 음주가무의 유흥행각을 했는가 하면, 외유의 길을 나선 경우도 있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결코 이 건으로 해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 공격하고자 하는 정파적 의도는 없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작금에 걸쳐 끊임없이 벌어져 왔다는 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인사들이 그 동안 보여온 칠면조 꽁무니 같은 역겨운 위선과 부정한 비행이 이제나저제나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순박한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열불이 나는 것이다.

이미 전직 국무총리가 3·1절 골프로 낙마를 하고, 출입기자와의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시비에 휘말려 있는 선량, 일개 법조 브로커의 수뢰명단에 줄줄이 엮인 전현직 법조인 간부, 지방 토호세력 조폭들과 동석하여 호형호제한 지법 판사들, 마침 교육부총리가 되겠다는 인사가 논문의 이중 제출이니 제자 논문의 임의 재탕 시비에 말려들고 있는 일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그럴싸한 외래어를 써가면서 한바탕 질타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손쉬운 말로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아니, 이런 비유는 소가 들으면 화를 낼 일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존경이든 아쉬운 것 없이 많은 대중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도층들이 당연히 행하고 지켜야 할 영광된 사회적 책무를 왜 소홀히 하는지,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그 위치에 도달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왜 앞장 서 본을 보이며 선도해 나가야 할 인사들이 먼저 탐욕과 부질없는 세속의 영욕과 재화에 눈이 멀어 자기본분을 내팽개치고 결국 대중의 지탄을 온몸에 받는 우를 범하고 말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청렴의 미덕을 기대하기보다 더 이상 추악한 위선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무지와 파렴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백성들이 참으로 안쓰럽다.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은 자기 분수에 맞게 몸과 마음의 안락과 화평을 유지하며 이 세상천지의 만물과 더불어 생명을 공유하는 일이 아닐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록을 넘어서면서까지 무리하게 추구하여 남의 삶을 위축시키고 피폐하게 하는 탐욕의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당연히 솔선수범하여 이 사회의 선도와 모범으로 서야할 위인들이 후안무치하게 목불인견의 비행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다움의 품위와 자존을 지키는 일이 지난한 것임을 알겠다. 우리 모두 새삼 세속오계의 준엄한 가르침을 자기 경책의 죽비소리로 삼아 가슴을 씻어내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요즈음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불교계의 핫 이슈는 단연 '문화재의 반환'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을 환수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삼성박물관 리움에 소장된 현등사 사리기 반환 소송, 백양사 아미타회상도 반환 문제까지 꼬리를 물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무사히 돌려받았지만, 어디에 소장하느냐의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등사 사리기는 법원에서 현재의 현등사와 원래의 현등사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삼성박물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원 소유자인 백양사와 현 소장자인 불교미술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였으나, 다행히 불교미술관에서 기증하기로 양보함으로써 지난 7월 14일 백양사로 돌아갔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성보문화재는 고향을 떠나 박물관, 개인의 집, 그리고 외국에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중창'이란 불도저 앞에 오랜 세월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슬픔도 목격해야 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던 시절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이 확 달라져 가고 있다. 사찰마다 앞을 다투어 성보박물관을 짓고, 올해에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집을 떠난 성보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계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다.

성보문화재는 불교의 아름다운 역사이다. 오랜 역사가 빛나고, 풍부한 내용이 화려하며, 그 예술세계가 무엇보다 독특하다. 기와 조각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인 것이다. 흩어진 것은 모으고, 헤진 곳은 붙이며, 빠진 곳은 채우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최근에 불기 시작한 성보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불교의 찬란한 역사를 가꾸어 나갈 청신호임에 틀림없다. ■정병모(경주대 문화재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전쟁과 증오

코살라국의 파사익왕이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사위성으로 피신했다. 걸식을 나온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싸움에 이기면 원수가 늘고 싸움에 진 괴로움은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기고 짐을 둘 다 버리면 누우나 깨나 항상 마음 평온하리라"
〈잡아함경〉

전쟁은 야만이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보름을 넘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당초 정치단체인 헤즈볼라에 의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병사 2명의 구출하겠다며 12일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포로 구출이 목적이 아니라 레바논 침공이 실제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망자만 4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만 200명이 넘는다한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참상과 팔다리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와해될 때까지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탈리아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국제회의를 열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탓에 평화유지군의 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레바논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 뻔하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죄 없는 민간인과 아이들을 참혹하게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야만'은 이제 멈춰야 한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고통속에 신음하는 레바논 국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그들을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방식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두고 추대제와 일정 승랍이상의 종도가 참여하는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대제와 직선제에 대한 주장을 명진 스님과 장적 스님에게 들었다.

대립·갈등 푸는 열쇠 '추대제'

추천 받아 등록·선관위 심사·추대회의 '만장일치'

현 총무원장 선거제는 공약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자칫 금품살포 등의 매표행위로 이어져 종단의 위신을 먹칠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때마다 표를 사고파는 모습은 몸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제안한 '추대제'는 종단의 주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종단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에 적합하고 능통한 적임자를 대상으로 종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같이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각 교구종회에서 선발한 9인의 위원 등으로 추대회의를 구성한다. 이어 교구본사 주지 5인 이상, 중앙종회의원 20인 이상, 교구추대위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관위가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1인이면 곧바로 추대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추대한다. 단 2인 이상일 경우 추대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추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종정예하의 추첨형식 등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추대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추대과정에서 상호간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지 않게 되므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 간의 대립이 완화될 것이며 선거의 승·패자 사이에 나타나는 균열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을 것이다. 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종도의사 직접 수렴하는 '직선제'

시간·비용 절감, 선거과정 혼란도 막을 수 있어

1994년 종단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종도중심의 종헌종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선거법은 종단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타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선거법을 보완하고 이전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직선제를 제시하고 싶다.

직선제는 종도의 의사를 직접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과정에 나타난 각종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행 간선제는 1차 선거인단 선거와 2차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반해, 직선제는 1회 선거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과정의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승랍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경우 종도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비구 비구니 스님의 승랍을 차별할 경우 비구니 참정권의 제한 시비, 교구별 지역별 투표소 설치 및 선거관리인력 확보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는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가 승랍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2%는 비구 비구니의 차별 없이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계종도 총무원장 선거에 직선제를 검토해야 할 때다. 장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대'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 생활속의 수행 ◆

부산법기불교대학 제9기 모집

불교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실습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불교대학이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개강 : 〈야간반〉 2006년 8월 24일(목요일)(저녁 07:00-09:00)
〈주간반〉 2006년 8월 25일(금요일)(오전 10:00-12:00)
·접수 및 문의 : 부산법기선원(051-516-9104) www.bubkisa.or.kr
·수강료 : 총 80,000원(교재비 포함)

차례	강 의 일 정	비 고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 (결인관, 호흡관, 설관)과 염법	실수행 (좌선과 행선)
4강	불교교리 –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수행문답
5강	산행–요처수행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호흡점검
7강	철야정진, 상기의 극복(멜로디)	선배의 수행경험담,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도반의 수행담
9강	수행자의 자세와 건강관리	호흡점검
10강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실수행 (좌선과 행선)
11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무념과 반야, 삼신불	이근관, 안근관
12강	봉사활동	
13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멜로디연습
14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설문조사, 발원
15강	수료식, 선지식 법문	

* 주,야간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 서울법기불교대학 일정은 서울선원(02-854-184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선원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 20m직진 → 왼쪽 청룡빌딩 4층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성남시민의 공찰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

회주 : 인왕 스님 주지 : 혜안 스님



기도성취 영험도량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 약사사 유리광 여래불이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약사사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한산성 만덕산 약사사는 주봉인 청량산을 중심으로 문형산(497m), 매지봉(400m), 검단산(542m) 등에 둘러싸여 있다. 문화관광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약사사는 주변에 높고 낮은 산이 많고 등산로가 발달돼 성남시민의 휴식처이자 수행기도처로서 성남 시민의 정신적인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 7 ☎031-734-3205)

약사사의 유래

현재의 약사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경내에는 암자터가 있었다. 성남 지방 농부들에 따르면 이 암자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있는 기도처였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첩첩산중의 암자터가 현재의 약사사로 모습을 갖춘 것은 1967년. 창건주 인왕 스님이 인왕 약사암에 머물때 부처님의 현몽을 얻고서 부터다. 어느날 인왕 스님의 꿈에 아미타여래가 나타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남한산성 만덕산에 있는 굴로 찾아오라고 했다. 창건주 인왕 스님은 약사암 주지 스님에게 이 꿈을 말하고 아미타여래께서 말씀하신 곳을 찾게 됐다. 하지만 서너달 동안 만덕산만 헤맸을 뿐 굴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어느날 지금의 성남 은행동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만덕산의 만덕바위와 함께 그 밑에 조그만 암자터와 굴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왕 스님은 그제서야 만덕산 암자터로 찾아가 이 곳이 바로 아미타여래가 현몽한 만년성지임을 확신하고 땅을 매입한 뒤 절을 중창해 약사사를 창건했다. 약사사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며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모시고 있다.



성남시민의 정신적 쉼터인 약사사 대웅보전 전경.

■ 약사사 출토유물인 3층석탑

이 석탑은 1999년 3월 대웅보전 중창불사를 위해 대지를 정리하던 중 출토됐다. 현재는 하층 기단 2매, 갑석부재 5매, 옥개석 1석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형상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2층 기단을 구비한 3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약사사에서는 고려중기부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평기와 편과 토기 및 다양한 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감수: 박경식 문화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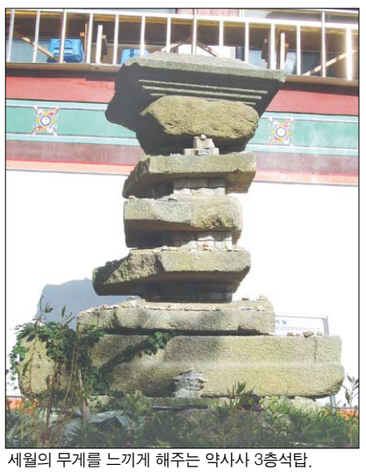
■ 성남 시민들에게 약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인구 100만에 이르는 성남 시민의 공찰인 전통사찰 약사사. 경내에 들어서면 기도성취 영험도량임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약사유리광여래불이 사바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큰 출토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전통을 간직한 약사사는 기독교세가 유독 강한 성남 지역에서 불법홍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사는 남한산 도립공원 안에 위치해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다.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약사사만큼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에게 쉼터이자 번뇌와 고통을 치유하는 정신적 안식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약사사에서 고요한 정신적 휴식을 얻으며 속세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참회를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백만 성남 시민들에겐 남한산성 약사사가 주는 고마움은 이루 말할 것이 없다. 언제든지 이웃과 가족이 먼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절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바쁜 일상에 벗어나 약사사를 찾아가 마음을 맑히고 온갖 번뇌를 일순 끊는 여유를 만끽하며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다보면 좀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약사사 3층석탑.



■ 주지 혜안 스님

'보살행은 하나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는 우주법계를 무대로 하여 살아가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만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가 있는가하면 거북이나 학처럼 천년의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중생도 있고 그 삶의 영역도 가지가지로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들 대다수는 본래의 성품 즉 불성(佛性) 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의 업력에 따라 익힌 습관대로 일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토록 중생을 교화하고 자신의 업력을 녹여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 본래 의 밝고 깨끗한 본성자리로 환원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의 성품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성이라 말하며 왜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자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합치되는 순수한 성품대로 살며 그 자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현재의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 일은 아마 허공계가 다할지라도 무너져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종자는 나고 뿌리지 않은 종자는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과(因果)의 법칙입니다.

이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누우면 추위에 떨면서 누울 곳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이 생각나서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불안해지는 보살의 마음말입니다. 모두가 보살의 마음이 되어 함께 돕고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빛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온통 그대로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약사사의 봉사활동

미얀마 문화재청과 문화교류, 스리랑카 문화센터 등 건립 지원
2006년 12월 미얀마 바간시 땀민쇼 대탑 완공 대법회 및 낙성식 예정



약사사 해외봉사단인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 은 미얀마 문화재청과 교류를 통해 바간지역의 훼손된 탑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약사사 해외봉사단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

약사사는 미얀마 문화재청과 활발한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미얀마 바간지역에 산재한 훼손된 탑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바간의 무수한 대탑들은 세월의 모진풍파로 허물어 졌지만 미얀마 정부의 경제적인 능력 부족과 관리 부실로 안타깝게 여기던 차 2003년부터 미얀마 정부와 바간시의 도움을 받아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주요 탑과 주변의 작은 탑들을 완성했으며 주변 마무리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약사사는 미얀마 최대종단인 아마라푸라종과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2003년 12월 땀민쇼 대탑 복원 대법회시 만달레이시에 위치한 아마라푸라종 대강당에서 교류 협약 문서 전달식과 가사공양을 했다. 이어 양곤 타이거 고아원을 방문해 성금 전달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약사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네스코지정 바간 대탑(땀민쇼) 불사도 2006년말에 복원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원불사가 마무리 되는 올 12월 약사사 해외봉사단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비롯해 신도들과 낙성법회 참가 및 대규모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스리랑카와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1983년 불교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메타난타 국립 승가대 도서관 건립에 큰 지원을 했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온 스리랑카 문화센터 건립 기념으로 기공식 법회도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약사사 해외봉사단인 '연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간의 불교 발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약사사 국내봉사단(여래구도 봉사단)



'여래구도 봉사단' 은 매년 지역노인들을 위해 노인잔치를 열고있다.



'여래구도 봉사단' 은 보살행의 일환으로 장애우들에게 휠체어도 보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된지 18년째를 맞은 약사사 국내봉사단인 '여래구도 봉사단'은 이웃사랑 자비실천의 정신으로 성남지역 무료급식소를 18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남한산성 공원 입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 12시에 하루 200여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성남시에서 장기간 무료급식을 매일 지속하고 있는 곳은 약사사 여래구도 봉사단이 유일하다. 또한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보름 전에 여래구도 봉사단 주최로 노인잔치도 열고 있다. 올해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참석했으며,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의 댄스공연과 인기 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성남시민을 위한 불교영화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8월 한달간 다섯 번에 걸쳐 개최해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여래구도 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돕기와 장애우 돕기 일환으로 장학금 후원과 휠체어 전달도 하고 있다.

〈여래구도봉사단 후원계좌:우체국 104281-01-000524 예금주:불교봉사단〉

■ 약사사 학생회

1960년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학생회를 자아개발 · 심신수량 · 자비실천 을 목적으로 조직해 청년 불자 포교에 힘을 쏟았다. 현재 학생회는 주말을 이용해 학생 법회를 갖고 사물놀이와 영어교육, 하계수련회 및 국내, 외에서 각종 문화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약사사 학생회의 사물놀이 공연 모습.

■ 약사사 합창단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충실히 전파하고 있다. 약사사의 각종 법회는 물론이고 노인잔치 등 다양한 행사에서 찬불가를 부르며 활발한 음성공양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년 이상 단원들끼리 호흡을 맞춰와 전국 어느 사찰에도 뒤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송서울문화마당은 이교재 관장이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의 옛이름을 활용해 직접 작명을 했다.

송서울문화마당 이교재관장

문화체험시켜 오지(奧地)를 '悟地'로

관장 · 사진작가 · 포교사 등 호칭 다양
폐교 리모델링해 지역문화 알리기 앞장
매주 일요일 인근 군법당서 법회 집전
농촌체험장 운영, 주민에 수입·화합 도움



향기 도반의

강원도 최전방 평화의 댐 부근에 위치한 오미분교.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없어 2004년 폐교가 되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지 중의 오지이지만 농촌 체험을 비롯해 강원도 양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오미분교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바꾼 주인공은 바로 송서울문화마당 이교재(72) 관장. 황해도 태생의 실향민인 이 관장은 노년을 고향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2004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송서울문화마당을 오픈했다.

지금은 강원도 양구를 소개하는 포토 갤러리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최신 영상 설비를 구비해 첫째, 셋째주 목요일 7시에 지역 주민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는 등 지역 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오미리 손원제 이장은 "처음 송서울문화마당을 개설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영화도 볼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영정 사진도 찍어 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특히 마을 회의나 기타 행사에 자문을 해 주는 등 사랑방 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있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말한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사진을 접한 이 관장은 평생을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해왔다. 1993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직장을 퇴직할때까지 평생 전국의 명산 명찰을 찾아다니며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재를 촬영했고 국전에 수차례 입상을 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우리 문화, 특히 성보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서 더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문화역사탐방 전문강사로 사법연수원, 삼성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사찰을 직접 소개하며 불교 알리기에도 일조를 했다.

송서울문화마당을 개설하면서 문화역사탐방 전문강사로는 활동을 하지 못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 양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또한 양구를 소개하는 슬라이더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며 일일이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촬영한 문화재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지역 박물관 또는 관청에 희귀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 문화 보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문을 듣고 휴가를 이용해 송서울문화마당을 찾은 김영희(고양시 일산동)씨는 "지역을 소개하는 사진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며 "관장님이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상세한 지역 설명을 하는 것이 마치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평생 은행원을 업으로 살았던 이 관장. 직장을 퇴직하면서 여생을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조계사 불교대학 1기로 입학해 학생회장 소임을 맡아 도반을 위한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졸업과 함께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이 관장은 우연히 불교방송을 청취하다가 강원도 최전방 부대 군종병을 통해 군 불교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됐다. 수소문끝에 방송에 출연한 군종병을 찾아가 부대 법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 양구와 인연을 맺었고 10년을 한결같이 매달 서울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법회 지원을 하다가 2004년부터는 아예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일요일이면 매주 인근 군법당에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이 관장은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농촌체험장운영을 건의했다. 삭막한 도시인들에게는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농가 수입은 물론 화합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송서울문화마당 1층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감자캐기, 옥수수 수확, 고기잡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관장은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해 사진 강좌, 한문강좌, 중국어 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만류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장님' '선생님' '법사님' '작가님'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이교재 관장. 남은 삶 동안 불법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싶다며 웃음을 보인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불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양구/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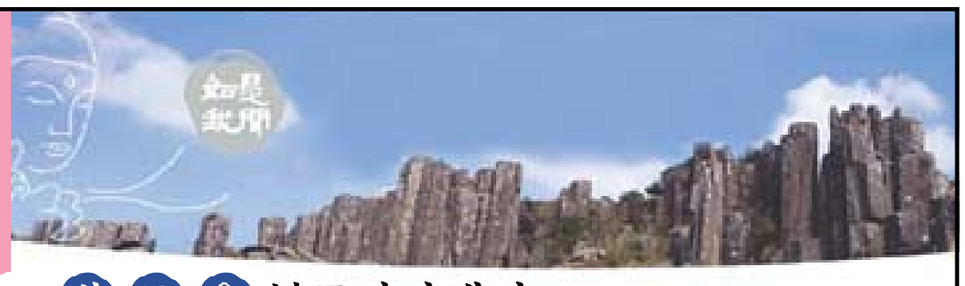


■ 30,000원 (무료배송)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3〉 무진 거사 장상영 (상)

어쩌다가 운전하며 장거리를 가는 도중 무료하여 라디오 채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종교방송이 잡힐 때가 있다. 그 날은 누군지는 몰라도 하도 언변이 뛰어난 설교를 하고 있기에 혹여 설법기술 익히는데 도움이 될까해 그대로 두었다.

이름깨나 날리는 외래 종교의 성직자라고 하는데 자기종교 이론에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종교에 대한 이해수준은, 아니나 다를까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팔촌씨가 아깝군. 남의 종교와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부터 좀 해라."

바로 채널을 돌려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해지기 마련이다. 제대로 알면 감히 입을 댈 수가 있겠는가. '전기(前期) 장상영' (물론 '후기(後期) 장상영' 과는 구별되는) 이 부활했나 보다.



예전에 중원의 거사들 역시 처음부터 불교에 호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와 벼슬살이를 위하여 유가서를 끼고 살아온 까닭에 상대적으로 배불론적 성향을 바탕에 깔게 된 것 같다. 문제는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절집에 많은 기문(記文)과 비문(碑文)을 남긴 무진(無盡)거사 장상영(張商英 1043~1121) 역시 그러했다. 19세 때 과거에 합격하여 처음맡은 소임이 문서와 장부관리 및 정리였다. 어느 날 사찰에 들렀다가 잘 정돈된 경전과 불교문서들을 접하고서 "우리 공자의 가르침이 오랑캐의 책만큼도 사람들의 숭상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날 밤새도록 서재에 앉아 먹을 갈고 붓을 빨면서 종이 위에 기대 긴 한숨을 쉬면서 야반삼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자 부인이 남편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길래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거사는 낮의 일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후 '무불론(無佛論)' 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하자(前期 장상영) 부인이 어이없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미 '부처가 없는 것(無佛)' 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새삼 '무불론' 을 지어서 그들을 공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대학자이니 불교경전을 읽어보고 그 모순점을 찾아내 정당한 공박을 해 보십시오."

자기모순을 일깨워준 부인의 안목에 감탄하면서 일단 '무불론' 쓰기를 중지했다. 그리하여 불교의 경전을 섭렵하던 중 〈유마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불법에 깊은 신심이 생겨 오히려 불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호법론〉을 짓게 되었으니(後期 장상영)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러고 보면 그 부인이 안목 있는 '인로왕보살' 인 셈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인연도 예사롭지 않다. 장상영이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어느 낯선 집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전날 그 집의 주인장(뒷날 장인어른)

불교의 모순점 찾아내려고 경전 섭렵하던 중

'유마경' 에 감명…깊은 신심 생겨 '호법론' 써

꿈에 선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정승을 맞이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첫새벽부터 방을 깨끗하게 치워두고 종일 기다렸으나 정승은 고사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해질 무렵 빨지도 않은 꼬질꼬질한 두루막을 입은 가난한 선비가 찾아왔다. 긴가 민가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예의를 갖추어 맞이한 후 그에게 물었다.

"선비께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오?"

"과거보러 가는 길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옳거니…. 미래의 정승이란 말이지)

"아직 부인이 없다면 내 딸을 그대에게 보내 집 청소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구려."

거듭 사양했으나 간청을 물리칠 방도가 없었다. 설사 낙방할지라도 혼인하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이튿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급제하였고 그는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마음 비우니 '눈높이 교육' 선명

교사연수 – 통찰명상 수련현장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

"해와 달이 바뀌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서울 보리수선원에서 열린 '2006 하계 교사직무연수' 참가자들이 좌선을 하며 '마음' 을 챙기고 있다.

새로운 삶의 방향 세우고

학생 대하는 마음자세 가다듬어

2006 하계 교사직무연수 '통찰명상(위빠사나) 수련회' 제1기 연수 3일째인 7월 26일 오후 보리수선원. 보리수선원 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이 수련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자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20명 수련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수행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편안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현재입니다.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십시오."

 # 종교도 참가이유도 달랐지만…

7월 24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진행된 '2006 하계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 제1기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등의 종교인과 무종교인 등 종교가 저마다 다르다. 이들이 이번 연수에 참가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위빠사나 수행이 무엇인지 알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온 사람도 있고, 학교로 온 공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수행을 경험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다.

위빠사나 수행이 불교의 수행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불교의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는데 종교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번 수행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교단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 몸 · 마음의 변화 알아차리기

"손바닥을 바닥에 대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을 손바닥에 두세요. 다시 마음을 손등에 두세요. 마음을 어깨에 두세요. 세 가지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느낌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것입니다."

붓다락키타 스님의 말이 이어졌다.

"좌선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손에다 두었다가, 배에 두었다가 귀에 두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좌선자세를 푼 교사들이 경행을 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도 공주대 교수이자 보리수선원 지도법사인 위오기 교수의 지도로 두 차례 경행을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걷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행(經行). 경행은 정진력을 키우는 좋은 자세로 좌선의 기초가 된다.

"편안하게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발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느끼십시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것 같지만 막상 경행을 하는 교사들은 적잖게 힘들어한다. 그래도 수련 이틀째보다는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한다.

10분간의 휴식.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은 경행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누워버린다.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수련생들은 경행과 좌선을 반복하며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 교사들의 반응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각박하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비우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서울안평초등학교 이영애 교사 • 61 • 불교)

"대학원에서 대체의학 가운데 음악치료를 공부하다 위빠사나를 만났었다. 위빠사나를 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을 비울 수 있어 좋았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불교수행을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수련이 좋다고 생각해 두 분의 선생님에게 권유까지 했다. 개신교에는 이런 수행법이 없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서울방배중학교 윤인숙 교사 • 46 • 개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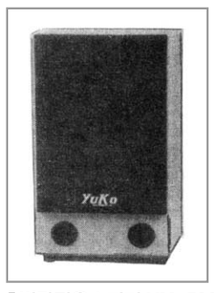
"내 자신이 마음을 얼마나 등한시 했는지를 알게 됐다. 수련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룰 때 삼독심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원불교에서도 '속 깊은 마음공부' 를 강조한다. 원불교 수행법은 아니지만 위빠사나 수련은 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 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서울성일중학교 김영화 교사 • 52 • 원불교)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았는데 막히는 부분을 풀지 못했다. 지인의 소개로 위빠사나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해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사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서울동북고등학교 윤석우 교사 • 43 • 무교)

글 · 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화제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제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역대제왕에서 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있을때마다 치후신의 영험으로 어떤전쟁에도 반드시 이긴다 하는 확신이 있었고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후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것입니다. 여태껏 어느 누구도 친견하지 못햇던 아주 오래된 연대미상의 치우천황을 스님이 모시고 있었읍니다 어느날 신도님이 땅 매매가 되지않고 일이 잘 풀리지않아 우연이 인터넷을 보다가 치우천황을 발견하고 스님이 모시고 있는분이 머리관은 치우천황(붉은악마) 송곳니는 치우천황의 상징입니다.
스님은 때가 옴을 알고 치우천황의 영험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치우제를 올리고 중생의 원을 발원하였습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치우천황은 꿈에 나타났고 땅은 매매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들 위하여 이소식을 세상에 널리알려 치우신의 영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져 합니다 치우천왕은 그자체가 승리이고 성취 입니다 인연이 되시는분은 소승의 지장사에 오셔서 치후천황을 친견하시고 정성을 드려 기도 하시면 치우신의 신비의 영험으로 구하고 뜻하는바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실것입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왕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우도 족자와 함께 그동안 스님이 경험한 치우천황 소원성취 기도비법을 지장사 치우천황의 운기를 받은 후 점안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읍니다. 기도비법을 보시고 열심히 정진 하시면 반드시 영험을 받으실것입니다.
치우도는 보물입니다 치우도를 소장하시면 반드시 영험을 보실것 입니다.
◆ 족자크기 : (가로 50cm×세로×120cm) ◆ 보시금 : 10만원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公 告
불교재산 관리법에 의해 1965년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 제83호로 등록한 대한불교 불입종 종명을 참칭하거나 도용할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고함.
불기 2550년 7월 21일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어느 조직이든 리더십이 조직이 성패를 좌우하게 마련이다. 이는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몇몇 신행단체들은 개인의 신행에 치중하고 간혹 기회가 닿으면 자원봉사를 펼치던 과거의 틀에서 탈피해, 불교적 삶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 기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불자여성 리더십교육강좌를 펼치고 있는 여성불교개발원이나,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최근 마련한 '마이(마하야나) 리더스 클럽',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포부도 알차다.



신행단체들, 인재양성 팔 걷고 나섰다

'리더십'을 배우자!

'마이 리더스 클럽' 16일부터

'마이 리더스 클럽'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올해 처음 개설하는 통합리더십 교육이다. 8월 16일~11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며 불교와 리더십, 경영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접목했다. (02)2278-3417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인류를 깨운 위대한 스승, 인간 붓다'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생을 다시 조명하는 것을 비롯,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경준 원장, 부산 한국티베트센터를 이끄는 초펠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프로그램 전반에 자칫 '외형적 성공'에 매몰될 수 있는 기존 리더십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相生)을 기본으로 한 불교적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화엄경에서 선재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았던 것에 빗대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강좌를 마친 뒤에도 수강생들의 클럽을 꾸려 매월 한 번씩 종교지도자와 석학, 경제관료, CEO 등에게 특강을 듣는 정기월례 조찬 포럼을 열고, 해마다 한 차례씩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슐락시바락사 등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과의 교류 행사도 열겠다는 포부다.

2003년부터 해마다 대학생 불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리더십 캠프를 펼쳐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보라 · 이하 대불련)는 올해도 8월 10~15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아름다운 청춘, 대학생 불자들의 화랑선언'을 주제로 '2006 리더십 캠프'를 개최한다. (02)732-0239

'불교적 리더십' 개발 고민중

대불련 리더십캠프는 창의성, 대화능력 등 젊은 불자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화와 영상매체를 통한 리더십 교육, 대화방법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지도력 개발 등이 주를 이룬다.

또 캠프 마지막 단계는 각자의 구체적 목표를 정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불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 · 이하 대불청)는 올해 하반기 중 만해대학에 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총 18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738-3386

그간 임원교육에 독일식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을 도입하는 등 리더십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대불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지난해 불자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제1회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도 리더십 강좌 교육과정을 기초, 기본, 심화교육으로 나눠 준비 중이다. (02)722-2101

누구나 어디서나 CEO처럼

리더십 강좌를 개설하는 이들 단체의 특징이 있다면, 임원진이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다른 리더십 강좌와는 달리 불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다.

불교아카데미 이영철 소장은 "그간 대부분의 리더십 교육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도자나 준지도자만을 대상으로 한 '친목모임' 성격이 짙었다"고 지적하며 "불교와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들어 리더십 교육에 눈을 돌리는 신행단체들이 늘어난 이유로는, 한계에 부딪힌 불교계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간에 포교활동을 담당할 기존 불자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을 이끄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대불련 신보라 회장은 "언제 어느 곳에 서든 최고경영자(CEO)처럼 목적의식이 뚜렷한 불자를 양성해 이들을 통한 포교와 전법활동을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행방법"이라며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청년 불자들이 각 대학으로 돌아가 불자 뿐 아니라 무종교인 · 타종교인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자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사회에 나가서 불교적 사명을 갖고 불교를 전파해 이끌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파라미타 연합캠프 1300명 참가
신행 · 전통문화 · 답사 체험



제9회 파라미타청소년 전국연합캠프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간 한려 · 남해 유스호스텔 등 경남 남해군 일대에서 열렸다.

파라미타 청소년 회원과 일반 청소년 1300명이 참가한 연합캠프는 참가 청소년들이 문수 · 보현 · 관음 · 미륵 4개조로 나뉘어 신행 · 회향 · 전통문화 · 답사 등 4개의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체험하고 즐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행 프로그램으로는 양초로 불교캐릭터 만들기, 불교 애니어그램(성격검사), 탑과 연꽃 만들기가 진행됐으며, 새끼 꼬기, 투호, 솥대 만들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문화를 체험했다.

답사 프로그램으로는 금산 보리암 탐방이 진행됐으며 래프팅과 갯벌체험의 회향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다.

또 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백일장도 열렸으며, 지부별 예선 통과자(2팀)들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 음악놀이 페스티벌(사진)은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연출했다.

파라미타 조한곤 과장은 "이번 캠프는 파라미타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것이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대불청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

대한불교청년회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에 나선다.

이번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청년회원들의 활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불청 캄보디아 불교유적 답사단은 바콩사원 · 프레아코 사원 · 룰레이 사원 · 반테이 스레이 사원 등 룰루스 유적지를 답사하고 앙코르톰 유적군과 앙코르와트 등을 둘러본다. 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민원인을 부처님 대하듯"

금천구청 불심회 한경헌 회장

서울 금천구 독산 3동 한경헌 동장이 출근하는 시간은 한 시간 이른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조계종 홈페이지를 보며 불교계 동향을 체크한다. 불교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법문이나 불교계 단체들의 활동을 눈여겨본다.

2003년부터 금천구청 불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경헌 동장은 구청 내에서도 신심깊은 불자로 소문나 있다. 불심회 정기법회는 물론이고 틈나는 대로 성지순례를 하며 불심을 다진다.

결국 한 동장이 나서고 그제야 민원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선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대하고 있는 한 동장의 태도에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요." 당연히 할 도리를 하고 있다며 겸손해 하는 한 동장. 하지만 한 동장이 많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주민들을 대해야 한다는 자세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을 부처님 대하듯이 하니까 편안하고 좋더군요. 어려운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독산3동 한경헌(오른쪽) 동장이 동직원을 격려하며 함께 웃고 있다.

공무원 생활 35년. 이쯤이면 '무게'잡고 '대접'받고 싶을 법도 하지만 한 동장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그래서 부하직원들은 한 동장처럼 편안한 상사도 없다고 말한다. 한 동장에게 상하간의 갈등은 '남'의 얘기다.

금천구청에서 근무하다 독산3동장으로 온 것은 1년 전. 구청업무와는 달리 대민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1개 동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요즘, 각종 민원과 요구사항이 많아져 동장직을 수행하기란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찾아와 무조건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다든지, 법률상이나 규정상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생업과 관련해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동장은 직원들에게 불교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동 직원들은 한 동장이 구청 불심회 회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본받을만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평균 20~30명의 주민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독산 3동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한경헌 동장. 독산 3동 사람들에게 한 동장은 분명 '훌륭한 공무원'임이 틀림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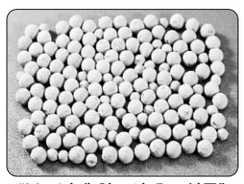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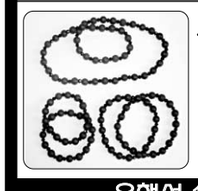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2>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모든 법 알고 보면 텅 빈 성품
범부들 도리 몰라 생사 윤회

시비와 분별은 번뇌의 뿌리로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선종(禪宗)에서는 허상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화두를 통하여 변함없는 '참마음'을 바로 보라고 가르친다. 그 참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 참마음과 하나가 되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텅 빈 마음'이 된다.

바로 그때 그 마음 자체가 빛이 되어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법문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선가귀감> 32장에서는 이 도리를 이야기한다.

須虛懷自照 信一念緣起無生.

모름지기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에 생멸이 없음을 믿는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텅 빈 성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밝히고 있다"고 했다. 본문의 허회자조(虛懷自照)에서 허회(虛懷)는 '텅 빈 마음'이고, 자조(自照)는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이니, 그래서 공적영지(空寂靈知)라고 말하기도 한다. '텅 빈 마음'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이고[空寂],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이란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신령스런 앎'이기 때문이다(靈知). 따라서 허회자조(虛懷自照)란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없어진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에 생멸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될 것이다.

본문의 '일념(一念)'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한 생각'을 말한다.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에서 "한 찰나에 구백 번의 생멸이 있고 한 생각 속에 구십 번의 찰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한 생각 속에 팔만 일천 번의 생멸이 있다는 것이다. 생멸이란 어떤 인연이 모여 생겨난 법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되는 것을 말하니, 한 생각 속에 팔만 일천 개의 법이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수많은 법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법은 다 여러 인연이 어울려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연이 모이면 법이 만들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 법이 사라진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바로 이것이다.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 인연법인 것이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통은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열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 십이연기법이 대표적이다.

이 십이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이 있다. 순관은 십이연기를 순서대로 관찰하여 인연이 모임으로써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곧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으니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라고 관하는 것이다.

이 순관에 의하면,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생이 있고 노사가 있게 된다. 서로 서로의 인연으로 세간의 법이 벌어져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세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을 모르는 데서 생겨난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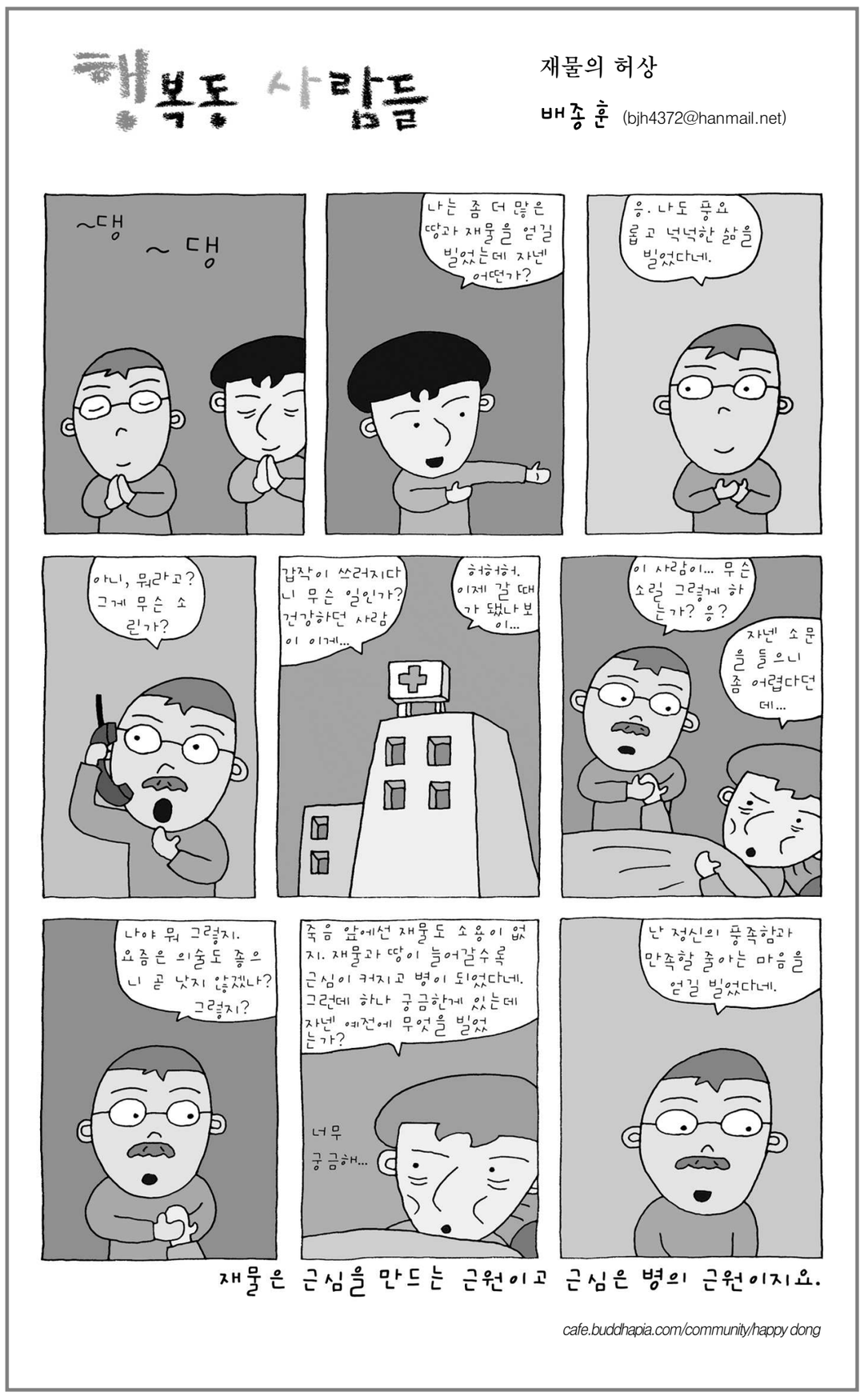
<기신론>에서도 "하나의 법계로서 '텅 빈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한마음'에 홀연 한 생각이 일어났으니 이를 무명이라 한다"라고 하니, 본디 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순관에서는 이 무명을 인정하여 차근차근 중생계의 모습을 만들었으나, 그와는 달리 역관은 이 무명의 실체를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무명으로 오염된 중생계를 떠나 텅 빈 마음이 되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곧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며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라고 관하는 것이다.

또 역관에 따르면, 무명이 멸하므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마침내 생이 멸하고 노사가 멸하게 된다. 서로서로의 인연이 멸하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니, 텅 빈 충만으로서 부처님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관의 견해로 보면 모든 인연이 흩어졌으므로 세간에 실제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다(空性). 이것이 무생(無生)의 도리이다.

텅 빈 마음으로써 서로서로의 인연이 멸하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무생의 이치이다. 이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다. 이 세상 모든 법의 실체는 알고 보면 텅 빈 성품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해 변화할 것이 없다. 범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에 집착해 쳇바퀴처럼 일어났다 소멸하는 번뇌를 일으켜 생사로 윤회를 하게 되나,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바로 열반에 든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각오(覺悟)

원래 '각오(覺悟)'란 말은 '거룩한 지혜를 일으켜 잠을 깨는 것과 같이 훤하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로, 수행자들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불법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부터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은 각고의 정진을 아끼지 않았지요.

일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달마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해 팔을 자른 2조 혜가 선사의 각오를 말해볼까요. 토굴에서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에 열중했던 달마. 어느 날, 등 뒤에서 묘한 느낌이 와 닿는 순간 입을 열었지요.

"그대는 등 뒤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따위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정법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절제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달마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이후로는 그 유명한 달마의 '안심법문(安心)'이 나오지요.

이처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목숨을 건 정진은 끊임없이 계속돼왔지요.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광명을 깨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3강 8장 "부처를 낳은 법(依法出生分)"

경전은 상품에 붙은 태그

길을 잘 좇아가야 한다. 6장에서, "내가 설하는 설법은 뗏목같은 것"이라고 했고, 7장에서는 이어 "나는 아무 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분명한 다짐을 받았다. 이처럼 <금강경>은 불교의 맨 꼭대기에서, "마침내 불교는 없다!"고 외치고 있다. 그것은 각자의 불성 속에 있거나, 혹은 아무데도 없다. 책은 뗏목이고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 알아야 할 것은. 혜능의 표현을 빌리면, '무상지리(無相之理)'이지 '문자장구(文字章句)'가 아니다. 8장은 이 취지를 다시금 부연한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라도

–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엄청나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겠느냐. 이 공덕은 공덕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卽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무상(無相)이란 뻐김도 굴욕도 없다는 뜻이다. 일희일비(一喜一悲), 재물이든 명예든, 잃더라도 그런가 하고, 얻더라도 운이 좋았다고 여겨라. 그것들은 두루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연에 속하는 것, 불교식으로 연기(緣起)에 속하는 것을 남 준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다. 그때 비로소 '공덕'이란 것이 성립한다! 이 역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여기 공덕의 '성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가치평가를 내린, 그 평가가 개입된 결과로서의 사물의 '특질'을 가리킨다. 가령 "내가 그것을 주었다"거나, "나는 너한테 손해를 입혔다"는 의식이나 기억이 그것이다. 이 분별(分別)을 지워야,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공덕이란 것이 성립한다.

육조의 해설을 듣는다.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끙차, 들어다 보시하면, 얻는 복이 많겠지. 그러나 진정한 '자기'에는 아무런 이익될 것이 없다. (물론, 손해될 것도 없다. 진정한 이익이란) 마하반야바라밀에 의거해 수행함으로써 자성(自性)이 여러 유(有)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을 복덕성이라고 한다. 마음에 능소(能所), 즉 너와 나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면 복덕성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눈녹듯 사라진 자리가 복덕성이다. 마음이 불교(佛敎), 즉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의 삶과 행동을 따라 할 때, 그것이 복덕성이고,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는 복덕성이 아니다."

혜능은 이렇게 마음의 능소(能所)를 경계한다. 마음이 너와 나를 가리면 이런 저런 유(有)에 떨어진다. 유(有)란 내가 누누이 말한 바 있듯이, 객관적 세계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有)란 심리적 분별(分別)의 이런 저런 결과를 말한다. 가령 "내가 택시에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는 객관적 사실인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다! 불교는 내가 어떤 사태를 의식하고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태는 의미화되고, 존재성(有)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나 유의할 것은, 문자적으로, 혜능은 '복덕성'을 나와는 다르게 해석했다. 그는 언제나 정통을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는 각자에게 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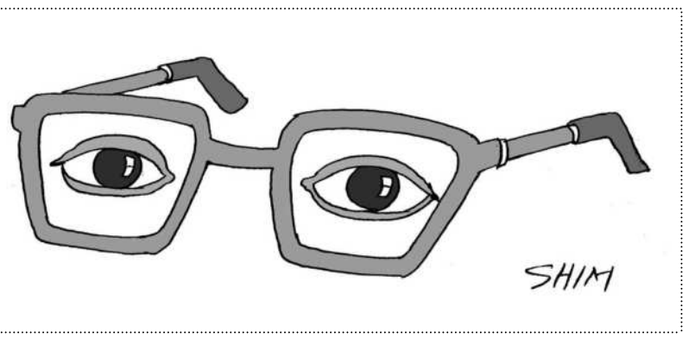
불교를 설하는 공덕

– "만약, 누가 있어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지닌다면 나아가 이 경전의 핵심 몇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복덕은 (저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조건없이 내놓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 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손에 쥔 다이아몬드보다 불교의 지혜 가르침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와 지위를 좋아한다. 우리네 평생이 그것을 추구하는데 바쳐져 있기도 하다. 삶의 어느 순간, 그래도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시간이 지나 역시 물질로 돌아가지만, 그는 이전의 그가 아니다. 허망(虛妄)을 엿본 자는 균형을 찾을 줄 안다. 추구에 절도를 갖게 되고, 전체와 이웃을 돌아보기도 한다. 또 삶의 가치를 연봉이나 조건 너머만으로 따지지 않게 되고, 그것을 괄호치고 '사람'을 보는 여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

삶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현자들



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갖고 있는 문화나 문명은 축복받았다. 우리가 꼭 그렇다. 20세기 초, 열강이 무력으로 침입해 올 때 불교의 산중 스님들이나 유교의 선비들은 무력하기 이를데 없었다. 영혼이 어떻게 총칼을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21세기 '마음'의 세기에, 우리는 그 시대 착오적(?) 유산으로 하여, 삶을 다시 라인업 할 보다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되었다.

육조의 해설을 부연한다. "12부 (대장경의) 가르침, 그 핵심 취지는 사구(四句) 가운데 다 들어있다.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경전들이 찬탄들하고 있는 사구게는 '반야바라밀다'이고, 마하반야는 제 부처의 어머니였다. 삼세의 제불이 모두 이 경을 의지하여 성불할 수 있었다. <반야심경>에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않던가. 스승을 따라 배움에 나선 것을 '수(受)'라 하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에 몰두하는 것을 '지(持)'라고 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자리(自利)라면, 남을 위해 풀어 설명해주는 것은 이타(利他)이니, 그 공덕은 광대(廣大), 넓고 커 한량이 없다."

이 경으로부터 부처가

– "어째서냐, 수보리야. 일체 제불과 그들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 까닭이다."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

물론 여기 '경전(經典)'이란 책에 쓰인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혜능 또한 그렇게 썼다. 그것은 말하자면, 삶을 이해하고(方便), 바깥의 유혹과 마음의 장애물을 걷어내어(決斷)…. 언제 어느 때나 성성한 깨달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지혜'이다.

–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의 진리 혹은 깨달음이란, 실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다."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佛法.

다시금 불교가 종국적 진리가 아니고 방편설화임을 확인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거두어들였다. 원효의 어법을 빌리면, 세웠다가 다시 부수었고(立破), 주었다가 다시 빼앗은(與奪)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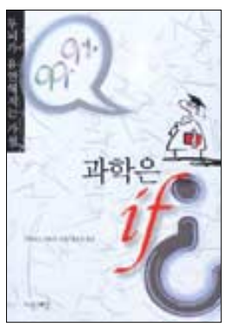
육조의 부연설명을 듣는다. "(불교의) 일체 문자는 이를테면 '태그' 혹은 '손가락' 같은 것이다. 태그와 손가락은 그림자요 메아리란 뜻이다. 태그를 통해 상품의 종류와 가치를 알고, 손가락을 따라 달이 있는 곳을 알지만, 유의할지니,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태그는 상품이 아닌 것을…. 경전 또한 진리를 알리지만, 경전이 곧 진리는 아니다. 경전의 글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진리는 혜안(慧眼), 즉 지혜의 눈으로서만 볼 수 있다. 경전만 보고 그 진리를 캐치하지 못한 자는 붓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그는 종내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六祖: 此說, 一切文字章句如標如指. 標指者是影響之義. 依標取物, 依指觀月. 月不是指, 標不是物. 但依經取法, 經不是法. 經文卽肉眼可見, 法卽慧眼能見. 若無慧眼者, 但見其經, 不見其法, 卽不解佛意. 旣不解佛意, 終不成佛道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가설이 없다면 과학도 없다



과학은 if ¿
(두뇌가 유연해지는 가설)
다케우치 가오루 지음
홍성민 옮김
다른세상| 9000원

'가설이야말로 과학의 기본이다'

<과학은 if ¿>는 과학이 만능은 아니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세상은 전부 가설로 되어 있는 만큼 과학도 만능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신의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가설이 어떻게 과학을 지배하고 있는지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믿기 어렵지만 99.9%나 가설로 되어있는 과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가장 첫 물음은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까?' 이다.

놀랍게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아직 완벽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는 최첨단 과학인 항공역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보통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공기의 속력이 빨라지면 그 부분의 압력은 낮아진다는 '베르누이의 정리'로 설명한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바람이 비행기 날개에 부딪치면서 위 아래 둘로 나뉜뒤 날개의 뒤쪽에서 바람이 합류한다고 설명한다. 비행기 날개의 단면은 위쪽이 평평한 아래쪽에 비해 굽어있어서 위쪽 공기의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 날개의 위 아래 압력차가 생기고 기체는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 뭔가 이상한데' 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날개부분에서 위 아래로 나뉜 공기가 왜 동시에 합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조사해보니 결과는 역시 합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바람 사이에 시차가 일어났다.

결국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로 소개된 베르누이의 정리 이론은 단순한 억지나 속임수임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하늘을 날고 있는 수천대의 비행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저자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고 하는 언뜻 보기에 당연한 사실조차 그 진짜원인은 다양한 경험칙에 의한 추측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다루면서 모든 것은 가설 위에 지어진,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설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서로의 가설에 귀를 기울이도록 조언하고 있다.

> 비행기가 하늘 나는 원리
> 경험 근거한 가설일뿐
>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
> 개념 · 상식 의심해보고
> 사물 보는 눈 넓혀보자

삼라만상의 사실은 인정하되 그 전제가 되는 개념이나 상식을 의심해 봄으로써 사물을 보는 눈을 넓히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상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유연한 사고로 세계를 보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저자인 다케우치 가오루는 1960년에 태어났다. 도쿄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의 맥길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과학 작가인 동시에 유카와 가오루라는 펜네임으로 미스터리 작품도 쓰고 있다. 활짝 웃는 얼굴 덕분에 얻은 '꽃아저씨'라는 별명답게 늘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소문이 있다. 저서로는 <세계가 바뀌는 현대물리학> <호킹 허시간의 우주>등 다수가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토록 행복한 하루(포토명상, 길상사의 사계)
예담, 이종승 지음

'사람과의 인연은 어쩌면 편협합니다. 편협의 부정은 새로운 세계의 긍정을 내포합니다. 사람이 주는 맑음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 내게 맑음을 준 이는 사람보다는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송진 냄새 솔솔 나는 죽은 소나무 토막이 백년은 거뜬이 간다고 했지요. 아무리 봐도 나무가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맑음이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을 나았습니다. 인연 덕에 눈도 봅니다. 세상에 흩날리는 눈도 보이는 것이지요. 인연입니다.'

위에 소개된 '눈과 인연' 이야기처럼 이 책에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온 배려, 인연, 사랑, 조화, 평화 등의 마음이 들게 한다.

포토 에세이라는 형식이 그러하듯 책 자체에 여유(?)가 많아 좋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사찰의 좋은 사진, 좋은 글을 감상한다는 기분에 빠지면 된다.

성북동 길상사.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던가라는 짧은 생각을 한다. 역시 만들어진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항상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된다.

(simplegomi, lifelog.blog.naver.com/simplegomi)

환경운동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건 아니지



굿뉴스- 나쁜뉴스에 절망한 사람들을 위한
샨티, 데이비드스즈키 외 지음

"발전은 환경을 저해한다."

이 말은 수많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린 명제이다. 발전이 사회의 최우선이 된 마당에 환경을 위하는 것을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과 사회정의 운동은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결과적으로 빈곤의 논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될만한 책이다.

책의 서두에 소개된 것처럼 꿀벌처럼 살면 된다는 이야기다. 꿀벌은 이꽃 저꽃에서 꿀이란 자원을 끌어모으지만, 결코 꽃을 해치지는 않는다. 꿀벌은 오히려 꽃의 번식을 돕는다. 꿀벌이 없으면 꽃도 없다. 바로 이런 논리로 환경을 보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환경운동도 꿀벌의 움직임처럼 부드럽고 쉬워보인다. 그런 것이 사회적이며, 지구적인 규모로 확장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책이 보이는 착상은 신선하다.

(김광진(smang), 211.174.180.201/bandishop/index.php)

책속의 밑줄긋기



○… 티베트의 어느 곳을 횡단하든 매년 봄과 가을에는 기러기들을 볼 수 있다. 개별 무리들은 각기 다른 전통적인 직선 루트로 여행한다. 그들은 비행을 위해 지상이 환해지는 만월기(滿月期)를 택하는 것일까? 티베트인들은 기러기에 대해 감동적일 정도의 경의를 표한다. 어떤 티베트인이라도 기러기를 해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또 성스러운 마나사로바 호수는 히말라야 산맥과 트랜스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꿈꾸듯 누워 있다. 인도에서 온 순례자들은 그 연안까지 찾아와 수정처럼 맑은 물로 몸을 씻는다. "그 물결로 몸을 씻는 이는 범천의 극락에 이를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이는 시바 신의 천국(대자재천大自在天)에 들어가 백세(百世)의 죄에서 구원되리라"라는 말이 전한다.

–<티베트 원정기>, 본문 199쪽, 301쪽에서, 스벤 헤딘 지음, 학고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동서출판 밀양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 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8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묵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8월 6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대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 / 8월20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051-545-2460
금강경 / 8월27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선가귀감 등 모든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97-2460 www.zenparadise.com

이솝우화보다 재밌는 불교이야기



어린이 팔만대장경 2 · 3 신현득 지음 | 현암사 | 각권 8500원

'이솝우화보다 재미있고, 아라비안나이트보다 신나는 불교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자타카'라고 불리우는 <본생경>에는 547편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며, 교훈적인 이야기가 실려있다.

세상에 나온 지 15년만에 완성된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동화작가 신현득(동화작가)이 숨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을 쉽고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이에 문조현(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해학적인 그림을 더해 책의 완성도가 높다.

<첫번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1991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이후, 1992년엔 <두번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1994년엔 <세번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차례차례 발간되어 전 3권의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이 책은 세대를 거쳐 부모가 아이 손에, 그 아이가 커 다시 아이 손에 전해 주어도 손색없는 주옥같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장래에 어린이가 팔만대장경 의 모두 읽어보겠다는 꿈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지은이 신현득씨는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20년간 줄곧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75년 한국일보 편집국기자를 거쳐 현재는 어린이를 위한 동시 동화를 쓰는데 전념하고 있다.

'백유경'에 실린 우화 60가지 만화로



만화 백유경
김장렬 지음
솔바람 | 1만원

즉 지혜에 아직 눈뜨지 못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비유문학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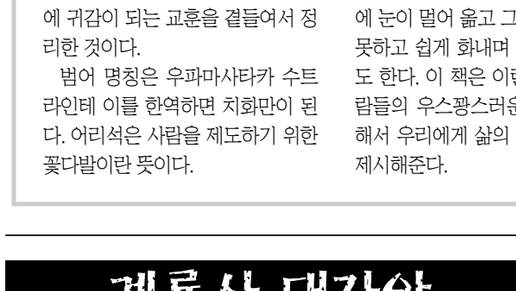
이 책 <만화 백유경>은 <백유경> 원전에 나오는 우화 중에서 60가지 이야기를 가려 뽑아서 만화로 엮은 것이다.

소개되는 우화는 '연꽃 따러 갔다가' '소금만 먹은 사람' '어리석은 도둑' '말라 버린 소젖' '한 냥의 빚과 네 냥의 손해' '스승과 두 제자' '오두막집의 두 사람' '증오심만 남은 사람' '복주머니 속의 금화' '호수에 빠진 술잔' 등이다.

<백유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며 남을 미워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혜안을 제시해준다.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普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갑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차·명상 즐기는 유치원생들

어린이 정서발달 돕는 '아동 차훈명상' 발간·보시





청룡유치원 원장인 정명 스님이 유치원생들과 차훈명상을 하는 모습.

아이들을 위한 웰빙서 및 인성지침서라 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하늘북에서 출간된 차와 명상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법을 소개하는 <아동 차훈명상>이 그것이다.

차훈명상은 두 손은 찻잔에 배인 온기를 품고 어루만지고, 얼굴은 그 감(훈)에 골고루 쐬고 녹아들고, 오로지 찻잔 속 차와 자신의 닿은 듯 스치는 듯 교감에 집중하면서 상념과 잡념들을 하나 둘 벗어던지고 마침내 차도 찻잔도 잊고 자신마저 잊어가는 명상수련법.

5세, 6세 유치원생들이 수련생으로 등장해서 수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출간한 <아동 차훈명상>은 서울 청룡유치원 원장인 정명 스님이 다년간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께 차훈명상을 하면서 수련한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책에는 차의 향과 모양을 보면서 음미하면서 집중력을 강화하는 '차훈득기', 호흡과 하나되는 주의집중 체조명상 '도인호흡', 신체를 바라보며 마음을모으는 '정좌명상' 신체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는 '정좌명상'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신체발달을 도와주는 건강타법 '환귀원처',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인차훈법, 다이어트를 위한 통기차훈법, 몸의 정화를 위한 단식차훈법 등의 내용과 효과가 소개되고 있다.

이 수련서는 아이들의 주의집중력 훈련과 감기명상에 효과적이며, 정서교육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 발간되자마자 정명 스님은 서울 시내 유치원 986곳과 교계 유치원 및 어린이 집 265곳, 어린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곳 296곳에 <아동 차훈명상>을 법공양 전문업체인 삼보제자를 통하여 법공양했다.

한편 정명 스님은 7월 27일~28일 미국 샌리앤드로 소재 불교문화센터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지도법사로 초빙돼 북가주 한인들을 상대로 미주 최초 차훈명상의 모든 것에 대한 원정특강을 하고 돌아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명은 모두 소중하구나



생명의 저울
김경호 지음
푸른나무 |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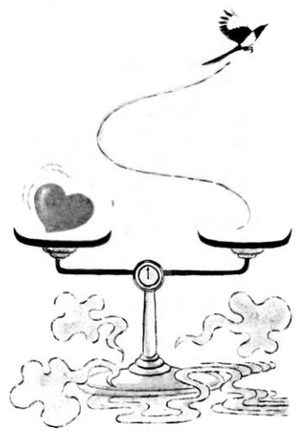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 배고픈 매에 습격당한 까치를 가슴에 품어준다. 배고픈 매가 자기도 이 까치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항의한다. 그러자 수행자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까치 무게만큼 도려 매에게 준다.

이렇듯 까치, 코끼리, 심지어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덩치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우리는 그 생명들의 몸무게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을지언정, 생명의 소중함은 달아볼 수 없다(사진).

<생명의 저울>은 불교 경전에 실려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16편을 뽑았다.

불교사회운동가인 김경호씨가 엮은 <생명의 저울>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은 그것이 크든 작든, 아름답든 추하든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에는 작고 힘 없는 동물이라도, 지위가 낮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생명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다. 니이다이, 가라가, 우파리, 쥬리판타카, 인드라 등의 수행자들을 통해 겸손과 부지런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배운 것을 실천하는 모습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불교의 경전에서 가려 뽑았는데도 보편적 진리를 담아 종교적 냄새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다. **김원우 기자**

미국의 아동 심리학 박사인 조인스 밀스 박사가 직접 쓴 치유와 희망 이야기 동화책 2권이 나왔다. 조인스 밀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전문가로, 연극 치료와 아동심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하여 국제 연극치료상을 받은 심리학 박사이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짜임새 있는 줄거리, 부드럽고 인상적인 그림, 간단한 치료법 등 아이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준다.

내 친구의 죽음 막을 수 없나요



<부드러운 버드나무>는 나무 마법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부드러운 버드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은 나무와 아람이는 연못 건너편에 있는 부드러운 버드나무를 특히 좋아한다. 어느 날 부드러운 버드나무 위에서 놀던 아람이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친구의 모습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무껍질은 울퉁불퉁하고, 잎들은 누렇게 변해 있다. 걱정이 된 아람이가 나무 마법사를 불러오지만, 이번에는 나무 마법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나무 마법사는 죽어 가는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작은 나무와 다람쥐에게, 비록 친구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도 이야기와 사랑으로 친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병든 영혼, 사랑으로 치유하다



<작은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 가지를 잃어버린 작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심각한 병에 걸려 두려움과 자책감, 그리고 걱정에 빠진 아이들이 평안을 되찾고 용기를 심어준다.

사나운 폭풍이 숲 속에 휘몰아쳤을 때, 다람쥐 아람이는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어 간다. 그러나 뿌리박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작은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 많은 가지들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병에 걸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자책감, 그리고 걱정에 빠지게된다.

작은 나무가 걱정된 아람이는 나무 마법사 어루니와 만지니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무 마법사들은 '행복한 마법의 숨쉬기'로 불안해하는 작은 나무를 진정시키고,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진찰과 나뭇잎 붕대를 이용한 수술로 작은 나무의 부러진 가지를 치료해준다.

부드러운 버드나무 / 작은나무
조이스밀스 지음 | 미래엠앤비 | 각권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신(新)유식학	밀양, 고목, 1만2000원
· 묵조선 입문	석란, 김호귀, 1만원
· 일연을 묻는다	현암사, 고운기, 1만5000원
·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오후에, 만공스님, 1만5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신국판/ 312쪽/ 9,500원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소만 적어가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접신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에...

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에 이경아·김송자씨

8월 30~9월 5일 인사아트센터서 전시


최우수상 이경아 作 '석가모니 삼존불'.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는 회화 97점, 조각 23점, 공예 30점 등 총 15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총 54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특별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 1점 포함), 우수상 3점(특별상인 문화재청장상 1점 포함), 장려상 6점, 특선 12점, 입선 29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 '석가모니불'은 재료가 거칠고, 크기가 작은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토속적인 신앙과 투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석가모니불'은 한국의 미를 토속적으로 표현하며 연화좌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로 교화를 하고 계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200만원(작품구입비 포함), 최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상패 및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불미전은 접수된 작품의 65%가 회화였다. 7월 21일 제2차 불미전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들도 회화 5명, 조각 3명, 공예 3명 등 회화에 비중을 뒀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최완수 관장(간송미술관)을 비롯해, 오원배 교수(동국대), 이진형 관장(여진미술관), 강순형 학예연구실장(광주박물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장 최완수 관장은 "좋은 작품도 많았지만 태작, 수준미달 작품들도 있어서 기법이나 불교이해가 수준미달인 경우 가차없이 낙선시켰다"며 "불미전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 예년보다 가혹한 기준으로 심사한만큼 접수작품수에 비해 입선이 적었다"고 전체적인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제정된 정부기관특별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최우수상급이며, 우수상급인 문화재청장상은 보다 전통적인 기능성을 담은 작품에 돌아갔다.

수상작은 8월 30일~9월 5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2시. 강지연 기자

▌제21회 불미전 수상작

수상 훈격	분야	작가명	작품명
대상	조각	남진세	석가모니불
최우수상	회화	이경아	석가모니 삼존불
최우수상	공예	김송자	12각찻상(신묘장구대다라니)
문화관광부장관상(특별상)	회화	윤신아	나한
우수상	회화	전미향	노사불도
우수상	조각	소정숙	목어(4 in 1)
문화재청장상(특별상)	공예	장채원	국당초문 염주함
장려상	회화	김은옥	심우도
장려상	회화	예정화	영산회상도
장려상	공예	이청실	발원
장려상	공예	윤미성	한지 단청문 불화액자
장려상	조각	노정웅	연지에 핀 불심
장려상	조각	김평기	목조약사여래삼존불


문화관광부장관상 윤신아 作 '나한'.


우수상 전미향 作 '노사불도'.


최우수상 김송자 作 '12각 찻상'.


문화재청장상 장채원 作 '국당초문 염주함'.


'목조오나한상'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선보였다.

종로구 사립박물관 뭉쳤다

가회·목인 등 9곳 쇳대박물관서 연합展


가회박물관이 전시에서 선보인 '추상인물도 8폭 병풍'.

종로구에 위치한 사립박물관 9곳이 독특한 '종로구 박물관 연합전'을 7월 27일~8월 16일 서울 쇳대박물관 2·3층 전시장에서 펼친다.

사립박물관의 일번지 종로구를 대표하는 가회·목인·삼성출판·세계장신구·쇳대·짚풀생활사·초전섬유-퀼트·한국불교미술박물관, 티베트뮤지엄 등 총 9개 사립박물관이 동참했다.

이번 연합전을 기획한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은 "운영의 어려움은 사립박물관 모두가 한결같이 겪는 당면과제로 폐관 위기에 처한 박물관도 여럿 있다"며 "사립박물관의 고사는 우리 문화의 한 기둥이 상실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기에 사립박물관들이 힘을 합쳐 수집을 시작할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문화 선구자의 등불 아홉 개를 밝히려 한다"고 이번 연합전의 의미를 밝힌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동일 지역 사립박물관들의 소장품 연합전시회. 연합전이 주는 문화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번 연합전을 개최하는 의미를 9개 사립박물관 연합은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사립박물관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자리매김, 둘째 사립박물관이 아니면 기획할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한 소장품의 한 지붕 전시, 셋째 재정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립박물관의 자생력 실험 등이다.

전시회에서는 라마승 성장(티베트뮤지엄), 목조오나한상, 의겸등필수월관음도(보물 제1204호, 이상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봉황을 탄 동자(목인박물관), 티베트 자물쇠(쇳대박물관), 추상인물도8폭병풍(가회박물관), 옷본(삼성출판박물관), 오색비단조각보 자기(초전섬유-퀼트박물관) 등 9개 사립박물관의 간판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1000원으로 책정된 전시회 입장료는 전액 종로구 지역의 불우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02)766-649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웃는 도깨비, 인기 비결은?




원숭이도깨비


왕눈이도깨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위해 마련한 2006 체험과 함께 하는 특별전 '웃는 도깨비'가 7월 21일 개관한 이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8월 12일까지 마련된 각종 체험행사는 모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 개방되는 '웃는 도깨비' 특별전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선조들의 일상 곳곳에 자리잡았던 도깨비의 얼굴을 접할 수 있다.

'웃는 도깨비'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깨비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하며 장난기 넘치는 익살스러운 존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양면성을 가진 도깨비를 표현한 문화재 130여점을 선보인다.

사찰 건축물의 처마 부분에 그려넣은 도깨비 얼굴, 도깨비와 용을 그려 넣거나 조각해 상여를 장식했던 반원 모양의 용수판,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귀면와 등 평소 전래설화에서나 만나던 도깨비의 모습을 전통기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옴마니반메훔이 써진 삼두조 부적과 사천왕상, 호랑이, 번, 목인, 목조동자상, 석제동자상, 목탁, 여산신 등도 만날 수 있다. (02)3011-2163

강지연 기자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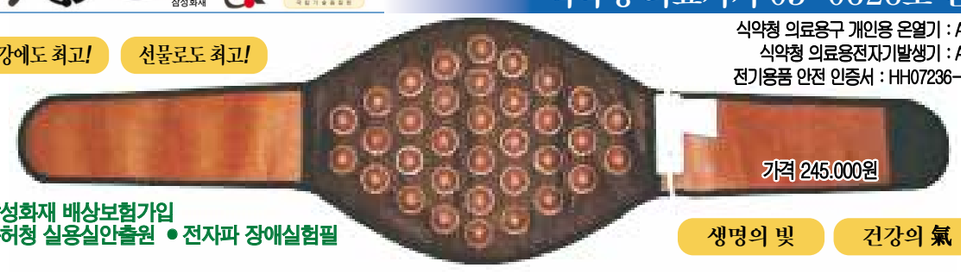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생명의 빛 건강의 氣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허약한 氣회복
※ 아랫배가 냉하신 분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수안 스님 (통도사 축서암 주석)



국내외 수많은 전시회 열어, 불우어린이 장애인 등 돕기 앞장

수안 스님은 | 1940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57년 석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64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수선안거. 1979년 이리 이재민 돕기 선묵전, 1985년 프랑스 파리 초대전, 1986년 중앙승가대 건립기금 마련전 등 독일 러시아 모로코 대만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불우어린이, 장애인 등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중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다.

통도사 축서암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첫 마주치는 스님의 작품. 스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작품이 된다.



선서화의 거장 수안 스님의 환한 미소는 문수동자를 닮았다.

그림 속 문수동자 닮은 웃음

게으름 경계위해 그림 시작…거침없는 선과 색 '선서화 대가'

매일 요가로 심신 단련, 법문할 땐 '우리 소원은 성불'로 마무리

선서화(禪書畵)의 거장 중멧돌 수안 스님. 누가 '중멧돌(스님의 호)'이 뭐냐고 물었더니 수안 스님은 큰멧돌, 작은멧돌 사이에 중간멧돌이라고 답했단다. 수안 스님의 유머는 늘 이런 식이다.

수안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화계사에서 법문을 했다. 감칠맛이 절로 나는 감로법문이 한 시간 반여를 이어지는 동안 신도들의 배꼽을 서너 번 뺐다. 법문이 끝날 무렵에는 박수를 많이 쳐야 엔도르핀이 생긴다며 신도들을 당신의 '박수부대'로 만들었다. 그것도 성에 안차는지 끝내 '우리의 소원은 성불'을 한곡 거창하게 뽑고 서야 법좌에서 내려 오셨다.

이튿날인 24일, 양산 통도사 축서암으로 스님을 찾아뵈었다. 첫 만남부터 까다로웠다. 기자가 삼배를 올리는데 절을 하는 손에 정성이 없다고 불호령이셨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경상도 할배였다. 손끝에 힘을 주고 정성을 다하라며 시범까지 보이셨다. 그러나 이후 스님은 소탈하면서 천진한 모습을 내내 유지했다. 흔히 갖게 되는 편견, 예를 들면 예술가는 괴팍스럽다는 이미지를 전혀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스님은 수좌생활을 오래 하셨다.

수안 스님의 그림과 전각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경지는 절대 아님을 느끼게 된다. 스님의 상징이 된 '안(眼)'자 서명은 만년의 세월을 이은 상형문자와 전서의 결합이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감각이 숨어있다. 거침없는 먹선 하나, 글씨 한 획, 채색 한 번도 예사로 하지 않는 꼼꼼함을 발견할 때면 질려버릴 정도다. 국내외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스님의 선서화는 오채먹(五彩墨)을 사용한다. 강렬한 원색은 아무나 쉽게 사용하기 힘든 까다로운 색. 그러나 스님은 선서화에 채색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선서화는 맑고 깨끗한 선의 맛(禪味)이 느껴져야 한다"는 수안 스님은 "오랜 세월 꽃과 나무 바위처럼 자연 속에서 보아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이라고 말한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자연은 가장 훌륭한 내 그림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스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 앓았던 병 때문이었다. 수안 스님은 열일곱에 출가했다. 코흘리개 시절 절과 인연을 맺었지만 출가는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어느날 보니 자연스럽게 삭발염의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만약 누가 스님에게 "출가하라"고 권했다면 바로 절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선방을 돌며 선지식을 찾아다니던 젊은 시절, 수행의 이력이 붙기 시작하자 내심 100일 정도만 바짝 용맹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겨울 아무도 살지 않는 산중토굴을 빌려 쌀 한말, 소금 한 되를 짊어지고 정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마(睡魔)는 참기 어려운 난관이었다. 수마를 쫓기 위해 매일 산위 계곡의 얼음위에서 맨발로 서서 고행을 시작했다.



악필(握筆)로 그리는 문수동자의 해맑은 웃음.

수안 스님은 당시를 "멍청해서 길을 가도 죽는 길로만 갔다"고 회고했다. 예정된 100일이 가까워 오니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오장육부에 전해져 성불은커녕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만큼 몸을 해치고 말았다.

한번 망가진 몸은 선원 대중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수 없이 산사를 찾아가 요양을 시작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몸을 써서 수행하는, 신라 유가종의 수행법도 익혔다. 건강을 거의 회복한 지금도 매일 요가로 몸을 단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무렵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선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세졌던 신도가 결혼 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졌다.

첫 작품은 초가집과 소나무였다. 그림 한켠에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이라고 선종 고련의 선시도 그럴듯하게 써넣었다. 그해 연말에는 강진 백련암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활짝 웃고 있는 신라의 인면와(人面瓦)를 그려 연하장으로 보냈다. 뜻하지 않게 그린 연하장은 당시 많은 이들의 화제가 됐다.

1979년 이리역 폭파사건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을 내면서 본격적인 선서화가로 세상에 이름을 냈다.

수안 스님은 요즘도 잡지, 신문, 전시회 등을 가리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을 그려준다. 이 세상이 내 전시관이고 내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탁탁탁 털어버린다는 생각에서다. 수안 스님의 그림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수동자상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문수보살의 상호를 직접보고 형상화 한 것이란다.

실천과 지혜를 상징한다는 그림속 문수동자를 보면 볼수록 웃고 있는 수안 스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

글=조용수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오늘 하루 무얼 구했습니까?

수안 스님의 가르침

우주의 법은 법사가 법상에 올라오기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을 가닥을 지어, 이렇게 하면 법이고 저렇게 하면 비법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에 중생이라 합니다.

문수보살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여의봉(如意棒)'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봉이라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물건인 듯싶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쓰는 '효자손' 말입니다. 이거 하나면 가려운 것을 긁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의봉이나 효자손이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생활 자체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속에 들어있는 지폐를 보세요. '한국은행권'이라고 인쇄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한국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줄 압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게도 한평생 수행을 해온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며칠 전에 한분이 휠체어 타고 제가 있는 축서암을 찾아와 "스님 학 천마리를 모으려 했는데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라며 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얼핏 봐도 그분의 행색이 흔히 길에서 껌이나 뭐 그런 걸 파는 분 같아요. 그 단지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니 오백원짜리가 들었어요. 그 오백원짜리에 새겨진 학 천마리를 제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하필 제게 이런 걸 주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스님은 거지가 오면 꼭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하고 묻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꼭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고맙게도 그날 오백원 동전에 새겨진 학들은 제가 원장으로 있는 통도사 자비원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동냥을 오는 이들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는 1985년에 처음 해외에서 선서화(禪書畵) 전시를 시작했는데, 어느 해는 미국 하와이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같이 여행을 하던 백인 한분이 여행이 끝나자 신문인쇄가 안 된 면을 일부러 골라 1달러를 정성스럽게 싸서 버스 운전사에게 주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운전사가 정중히 일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진심이 담긴 진정한 사람과 사람의 인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감동적인지 저도 다음에 그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따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되돌아와 절에 있는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동냥을 왔어요. 하와이에서의 일은 생각나지도 않고, 순간 젊은 사람이 동냥 오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흔쾌하지 않아요. 하도 떼를 써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고 언짢은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는 겁니다.

한때는 스스로 일등 수좌라고 자부심을 가지던 내가, 내 것도 아닌 신도들 시줏돈으로 살면서 중생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 사람의 업을 무시하는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아! 나는 진정한 스님이 아니구나. 이런 내가 무슨 수행자냐, 그냥 절 지키는 사람이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뒤부터는 비록 자장면 값 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동냥을 오면 꼭 봉투에 담아 돈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차도 대접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아저씨, 다음에 또 오이소"하고 인사도 빼먹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몇 해 전 열반한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께서 전화를 해서 "수안 스님,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라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암자에 있는데 덩치가 산만한 사람 몇이 절에 털썩 하더니 저더러 그림을 해내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해주기는 뭣하고 그럼 왜 그림을 원하느냐 했더니, 자신들은 젊어서 죄를 짓고 형무소를 살다 불교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적응 하지도 못 하고 여러 큰스님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다고 합니다.

뻔뻔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 정말 싫었지만 큰스님의 부탁이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2003년 겨울에 월하 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다비식을 하던 날 거화를 하려고 섰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앞으로 절집에서 살면서 누가 내게 "수안이 자비를 베푸소"하는 말을 하겠나하는 싶은 생각이 일면서 큰 참회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절을 하면서 눈물이 철철 흐르는데 얼마나 환희심이 나던지 내 몸이 같이 불속으로 들어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견 정업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팔정도는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8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실천하면 그냥 성불하게 되고 성인이 됩니다. 제가 동냥치들에게 "아저씨 다시 오이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명(正命)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밖으로 나오면 다 여행입니다. 불자의 여행은 성불을 구하는 구도행입니다. 오늘 하루는 뭘 구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서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지식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오직 내 자성불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게 섞인 수안 스님의 법문은 늘 자기 고백적이다. 불자들은 정신없이 웃다가도 그속에 담긴 불법의 깊이를 느낄때면 자신도 모르게 감화된다.

> 누구나 문수보살의 '여의봉' 가지고 있어
> 가려운 곳 긁어 주는 '효자손' 같은 이치
> 우리 생활 자체가 불법임을 알아야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6>



우리는 인간 몸 빌려 살아갈 뿐 처지 직시하면 진정한 수행자 괴로움 원인 알아내 잘라내세요

어쩔 수 없는 범부의 속성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기세에 놀라 미친 듯이 달아났지만 광야에는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안에 있는 나무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뿌리를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커다란 독사 세 마리가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우물 벽에는 독사 네 마리가 똬리를 틀고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나운 코끼리가 날뛰고 있는 저 위로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목숨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때마침 어디선가 홀연히 바람이 불어와 위태롭게 나무뿌리에 매달려 있는 그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 꿀 다섯 방울이 그의 입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달콤하던지 꿀맛에 취하여 그는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두로위우타연왕설법경)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바로 저 우물에 매달린 사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사의 막막한 광야를 헤매다 어쩌다 인간의 몸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은 목숨을 갉아 먹어 가는데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그 옆을 보아도 나를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온통 덧없고 괴로운 것들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도 입 속으로 떨어지는 다섯 방울의 달콤한 꿀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죄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콤한 꿀이 입 속으로 떨어져도 절대로 자기의 처지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를 직시하고, 이 우물 속에서 죽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른 우물 속에서 똑같이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어리석은 범부중생이고, 후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선 수행자요, 불보살입니다. 범부중생은 괴롭다고 몸부림치면서도 눈앞의 쾌락에 정신이 팔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든 생사의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다시는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란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불교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식의 부처님 가르침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그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괴롭다면, 그것이 진실로 괴롭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내어라', 그래서 '괴로움을 끊도록 노력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여덟 가지 바른 수행법(팔정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해가 닥쳤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우리 이웃들은 그 귀한 목숨을 잃거나 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고스란히 물길 속에 떠내려 보내고 맙니다. 자연의 법칙은 정확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 괴롭다고 울부짖는 것일까요?

진짜 괴롭다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재해의 원인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살짝 가려두고 임시방편, 땜질처방, 전시행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만 합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누군가가 물에 휩쓸려 죽고 어느 산간마을이 매몰될 것이 뻔한데 입속의 꿀 몇 방울에 취하여 괴로운 처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범부의 속성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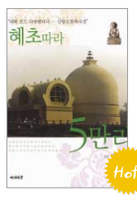
즐거운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간화선 종풍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냐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Hot!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Hot!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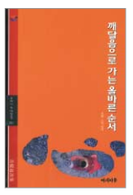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상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 에서 벌어지는 사건



선 방 일 기
'지허'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 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 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6,0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스님 이야기
수행 · 복지 · 포교 · 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스님들의 치열한 삶과 열정이 소개된다. 85명 스님들의 수행일화 속에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가득 담겨있다. 그 자체로 절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 불교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스님들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어 의미가 깊다.
448쪽 / 값 12,000원
지묵 지음 외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 정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문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10명의 대선사들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고스란히 옮겨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준다.
A5 / 449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

오래된 찻잔, 차 맛도 일품

'청대 차도자 명품전' 연 김영효씨 유물도자 시음회 마련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사진 맨 왼쪽)가 7월 20일 서울 방배동 갤러리 '루브'에서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제음료박람회 조직위 출범
12월 8~11일 부산 벡스코서

차와 커피, 와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음료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음료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손해식,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 이사장)는 7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12월 8~11일 부산 벡스코에서 '2006 국제음료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음료학회(회장 박병권)와 전시컨벤션업체 다인 커뮤니케이션(대표 구성근)이 주최한다. 그동안 차와 와인 등 개별 음료와 관련된 박람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음료 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원회는 "전 세계 15개국 이상의 음료 전문가 및 바이어 300여명과 국내 음료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식 위원장은 "국제음료박람회는 국내 음료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국제음료박람회에 참가할 음료관련업체 모집하고 있다. www.ibexpo.net (051)744-3715

"이 자사호들은 청대(淸代) 자사작가 혜명신(1598~1684)의 작품입니다. '이슬 한 방울 떨어지는 듯한' 일적호(一滴壺)와 물을 끓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대호(大壺)를 함께 감상해보시죠. 여기 보이는 찻잔은 뚜껑까지 갖춰진 청대 나비문양잔입니다. 이제 이 다구들로 차를 우려 마셔볼까요?"

7월 20일, '청대 차도자 명품전'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갤러리 '루브'에서는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와 강연을 마련한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가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된 찻잔을 꺼내 참가자들에게 건네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받아요." "이렇게 귀한 걸 만져도 될지 모르겠네요."

주위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는 다관에 차를 우리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차의 향을 품은 다호로 차를 우리면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맛본 차는 1990년대 국내에 수입된 천량차. 40년은 족히 묵은 차다. 우려진 차는 수백 만원을 호가하는 '유물 찻잔'에 따라진다. 참가자들은 조심스레 찻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음미한다. 조영숙(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씨는 "박물관에나 있을 것 같은 오래된 차호에 차를 우려마시니 기분이 특별하다"며 "차를 마신지는 오래 됐는데 차도구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신기해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장식장에 두고 감상만할 뿐 실제 차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차계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날 시음회는 색다른 풍경임에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을까?

"6~7년 전부터 국내에도 보이차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다 가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보이차와 자사호다보니 '속지 않고 구입하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없습니다.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죠. 안목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품, 명품 차도구를 많이 감상하고 직접 차를 우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초 차와 인연을 맺게 된 김씨는 그간 보이차와 자사호의 세계에 빠져 보이차와 차도구 수집에 나섰다.

수백만원대 유물찻잔에
40년 묵은 명품차 시음
향·차 주제 전시회 계획

"의식차(儀式茶)의 궁극이 가루차라면, 반차(般茶) 즉 생활차의 궁극은 보이차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피로를 풀고 소화능력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데 보이차는 더 없이 적합한 음료입니다."

현재 그가 수집한 작품은 청대 황실 다도구를 비롯한 300여 점. 인터넷 카페(cafe.naver.com/oldpuer)와 '바보다원'이란 차회를 운영하며 자신이 수집한 차도구를 이용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차도구를 차회 회원들과 함께 공부하는데만 사용했습니다. 전시를 할 기회나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차인들이 차도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만간 불가(佛家)의 중요한 공양물인 향과 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분향자차전(焚香煮茶展)'도 선보일 것입니다."

"세계 차 시장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안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씨는 "차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출장 감정에 응할 용의가 있고, 사찰에서도 차 강좌를 열고 싶다"며 관심있는 차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31)247-968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청대 자사작가 혜명신의 일적호(가운데 동전 옆)와 대호(오른쪽).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자사작품으로 '갈덕화'라는 낙관이 선명하다.



청대 자사호를 설명하고 있는 김영효씨.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3. 신비의 음료

② 커피의 수난과 승리

커피가 발견된 이후 몇 세기 동안 커피는 일반인들에게는 단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용에 불과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다. 다만 특권 계층인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밤새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마신 지적 음료이자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으며, 이슬람 사원에서만 향유된 값비싼 이용품이었다.

이런 커피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은 1517년 메카(Mecca,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도시)의 카이르 베이라는 젊은 총독에 의해서다. 그는 커피 애호가와 반대론자들이 며칠간 설전을 벌이게 해 커피 음용을 금지하기 위한 종교적 논쟁을 벌였다. 그 논쟁의 대부분은 "커피의 검은색은 나무의 죽은 부분으로 숯과 같다하여 죄인의 음식으로 여겼고", "의식을 2배로 또렷하게 한다하여 악마로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격렬한 폭동으로 커피 하우스가 불에 타 사람이 죽기도 했다.



파리의 커피행상(M. 엥겔브레히트, 1735). 프랑스에서는 17세기까지 커피가 대중화되지 않았다.

결국 총독은 이것을 계기로 커피 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매료된 사람들은 습관처럼 커피를 마셨다. 금지령은 아무런 효과 없이 철회되었다.

이 소식은 메카를 중심으로 상인과 종교인들에 의하여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이슬람지역의 간이식당에는 와인 대신 커피를 판매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선교차원으로 커피의 음용을 권하였고,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 이름)에서는 와인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1554년 터키의 골든혼의 번화가에 멕테비이르판(mekteb-i-irfan) 즉 '문화 학교'라는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커피는 '소매가 넓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들이 체스를 두며 마시는 우유'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으며 새로운 풍속이 만들어졌다.

상인들에 의해 마르세유에 유입된 커피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마실 수 있는 약으로 규정됐다. 의사들은 커피에 유해한 성분이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의사들 사이에서 약리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르세유에는 노래를 부르며 집집마다 커피를 팔러 다니는 외국인 행상이 있었으나 대중적이지 못했다. 이는 커피에 대한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동안 아직도 '커피는 약'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촛대와 거울, 대리석 탁자로 꾸민 프랑스식의 새로운 커피하우스인 '카페 프로코프'가 탄생한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한 기호식품으로

커피 금지령에도 불구 애호가들 더욱 증가
마르세유 비엔나 진입하며 유럽으로 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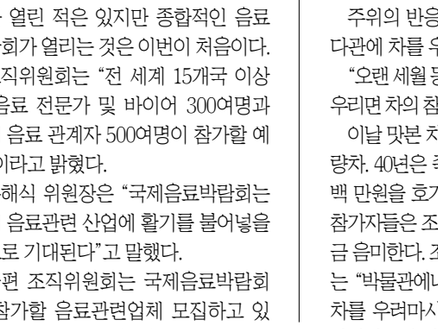
서 커피의 대중화를 예고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식 커피 음용을 유행시킨 것은 전쟁이었다. 이슬람 민족이 1683년 비엔나까지 진입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후 낙타 수십 마리와 커피콩 수백포대를 남기고 퇴각한 것이다. 낙타의 먹이라고 여겨 커피콩 포대를 불에 태우기도 하였다. 콜쉬츠키(전쟁 중에 비엔나를 위해 공을 세웠다)의 요청으로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커피는 비엔나 사람들 기호에 맞추어 지기 시작했다.

입천장에 달라붙는 커피 찌꺼기를 여과기에 걸러내고 꿀과 우유를 가미해 검은색을 연하게 하고 맛을 부드럽게 한 비엔나커피는 대중에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투르크와의 전쟁동안 포도밭이 파괴되어 와인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커피 향기는 수난 속에서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마르세유와 비엔나를 정복하며 유럽으로 퍼지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조립식 방기로 No-1210 7000×4000×3300(mm) 가격:6,800,000
◆이중창 이중벽 황토흙 방기로 No-2100 7200×4700×3300(mm) 가격:8,500,000
물,흙속에서도 썩지 않는 기둥,들과루는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이
주택농장,휴양림,펜션,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함(원하는 사이즈 주문 생산가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흙 벽돌
◆물로 청소하는 평상 No-1540
1800×1030×350(mm)
가격:190,000 ⇨ 할인가:150,000
◆물로 청소하는 벤치테이블 6인용 No-1530
1500×1700×750(mm)
가격:450,000 ⇨ 할인가:380,000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청두막.kr/평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통목 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삼계탕 안 먹어도 삼복 더위 거뜬

사찰음식연구가 박상혜 추천 '여름 보양식'

일요일 아침, 법회에 참석하려고 새벽부터 부산을 떨며 사찰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법회에 참석하진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 마다 절을 찾아 기도하고 마음을 달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엔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기 싫은게 당연지사지요.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려면 양산과 부채, 손수건 등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바로 두꺼운 가사장삼을 수하고 땀방울을 흘리며 염불을 하고 있는 스님을 뵐 때입니다. 그때마다 "고기 한 점 드시지 않으면서도 기나긴 여름을 어떻게 버티실까?"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사찰에 보양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마다 특색 있는 보양식이 존재하는데, 깊은 산 조용한 암자에서는 산마를 이용해 보양식을 만들고, 바닷가에 자리 잡은 절에서는 우뭇가사리라는 해초로 만든 콩국으로 여름을 납니다.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나름대로 맛있는 여름 보양식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신선한 야채 · 버섯 이용해 원기 보충을

비싸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재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사찰음식을 공부하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제게 "스님께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는 건강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지극 정성한 마음으로 스님께 공양을 올리려는 그분들께 저는 손쉬운 건강식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버섯 등을 이용한 '사찰 보양식'이지요.

건강은 건강한 먹을거리에서 온다는 말이 있듯, 맑고 깨끗한 먹을거리는 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산사에서 배운 먹을거리의 지혜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기 오곡버섯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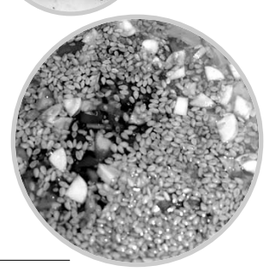
재료(4인분) : 잡곡으로 지은 찬밥 1공기, 표고버섯 4장, 느타리버섯 4장, 간장 약간, 죽염 약간, 참기름 약간, 황기 물7컵(황기 1줌+물 10컵)

① 표고버섯은 뜨거운 물에 데쳐 채썬 후 간장과 참기름에 살짝 버무린다.
② 느타리버섯은 뜨거운 물로 데친 후 죽염으로 간을 한다.
③ 잡곡밥은 표고버섯 우린 물 2컵을 넣고 믹서에 간다.
④ 냄비에 믹서에 간 잡곡밥과 황기 물 2컵을 넣고 끓여준다.
⑤ 마지막 남은 물 3컵을 넣고 끓이다 버섯을 넣고 한소끔 더 끓여 완성한다.
⑥ 죽염은 먹기 전에 넣어 간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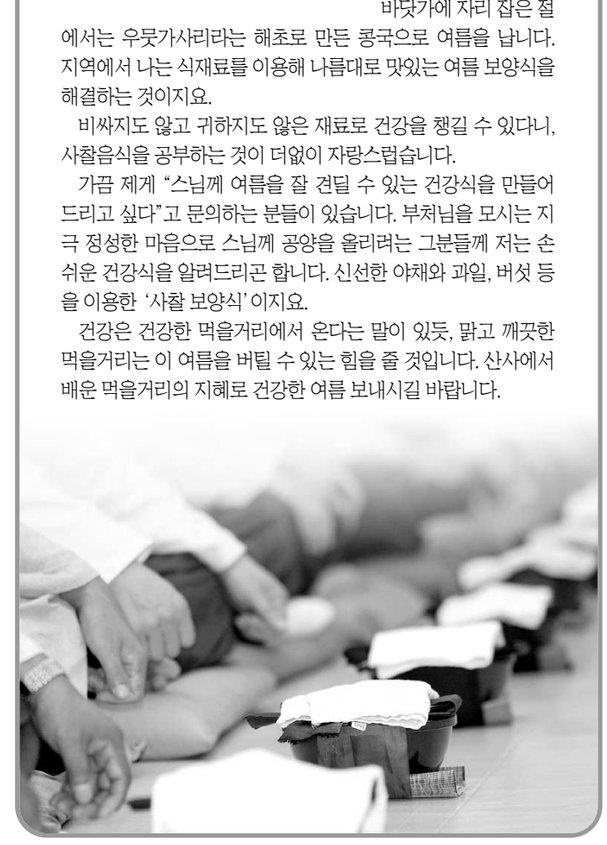
인삼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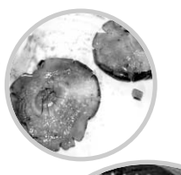
재료(4인분) : 오이1개, 당귀잎 1줌, 영양쌈 1줌, 소스(인삼 2뿌리,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참깨 1큰술, 녹차기름 4큰술, 죽염 약간, 감식초 1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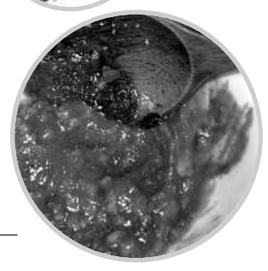
① 오이는 어슷썰기 해 물에 담가둔다.
② 당귀잎과 영양쌈은 한입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둔 후 물기를 빼준다.
③ 인삼은 작은 사각형모양으로 자른 후 청 • 홍고추는 곱게 다진다.
④ 인삼에 청 • 홍고추를 넣어 소스를 만든다.
⑤ 접시에 오이를 돌려 담고 자른 영양쌈을 올려주고 인삼소스를 뿌려서 완성한다.





밤소를 채운 표고 버섯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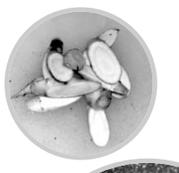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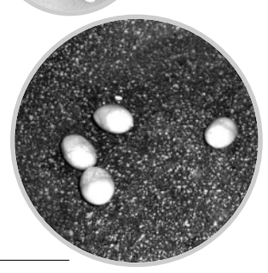
재료(4인분) : 표고버섯 8장, 유장(간장, 참기름 약간), 양념장(다진 호두 1큰술, 다진 잣 1작은술, 고추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설탕 약간, 참기름, 산초가루)

① 표고버섯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밑동을 떼어 낸다.
② 표고버섯은 유장을 발라 둔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표고버섯 안쪽에 양념장을 발라준다.
⑤ 200℃로 예열된 오븐에서 5분 정도 구워준다.
(프라이팬을 이용할 땐 중불에서 구워내고 토스터기를 이용해도 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수삼영양솥밥





재료(1인분) : 수삼 1뿌리, 대추 2알, 잣 4알, 잡곡 쌀 2줌, 은행 2알, 죽염 약간, 표고버섯 1장, 물 적당량, 양념장(국간장 1큰술, 다진 양파 2작은술, 다진 청고추 1작은술, 다진 홍고추 1작은술, 통깨 약간, 참기름 약간)

① 잡곡 쌀은 미리 불려서 물기를 빼 놓는다.
② 은행은 볶아 주고 수삼은 어슷썰기하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준다.
③ 작은 솥에 불린 쌀을 넣고 인삼, 대추, 은행, 잣, 표고버섯을 넣어 밥을 짓는다.
④ 양념장과 함께 낸다.

생활속에서 깨닫는 길이 참선에 있다

삼매체험 참선수행 30주년 - 참선 단식 7일간 집중수련

단기간 집중정진으로 참선수행 길을 찾는다 – 화두의심을 지어갈 줄만 알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득력하는 것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다.
화두의심만 바로 시작하면 깨달음안으로 들어가는 심지공부 – 세속의 모든 번민과 욕망 정신적 갈등에서 벗어난다.

금강단식과 참선의 특징과 효과

1. **예비단식 보식이 없다** – 단식 시작전 준비단식이 없고 단식종료후 곧 바로 정상식사가 가능
2. **단식으로 식욕을 해결하면 정신이 손에 잡히듯 분명해진다** – 정신을 모르고 살면 세상에 태어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철이 들기전에 세상을 마치게 된다.
3. 정신적으로 심약한 사람은 의지력 인내심 추진력 자재심이 배양되고 화내고 성냄을 고치고 자신감 신념을 증대한다. 초월적인 능력발휘, 성격전환
4. **금강단식은 일반 단식의 부담을 줄여서 쉽게 할 수 있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없다** – 체질개선 당뇨 고혈압 약 끊고 가능하며 피부질환 등 피부가 강해져서 치료 미용효과 크다. 체중감량은 하루에 0.5kg~1kg가능
5. 단식을 겸한 참선은 화두의심이 집중되어 가볍게 접근된다.
6. 정신과 신체의 개벽이라 할 만큼 변화가능함. 직장 가정 사회생활과 부적응에 대한 해결과 전환이 용이함
7. 통화후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 예약 가부전화요함
8.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기 바람.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상 및 인원 : 고교(사전확인요함)이상 일반인 70명
3. 수련일정(6박7일)
◆ 1차 : 06. 7. 31 ~ 8. 6 ◆ 2차 : 8. 10 ~ 8. 16 ◆ 3차 : 8. 17 ~ 23
4.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고현고 옆) 064)755-3322
5.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 자는 혜택이 있음)

즉심즉각 자성불도량 원명선원



학의 새로운 몸짓

양산 사찰학춤과 창작 사찰학춤 한무대서 공연

'2006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 국립극장 27일까지



현대적 해석 처용무도 눈길

전통 양산사찰학춤 만으로는 심심하다?

전통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양산 사찰학춤과 창작 사찰학춤 '학이 밭에 내려와 우줄우줄 춤추니 마음이 넉넉하다'가 한 무대에서 공연된다.

창작과 전통춤의 만남 국립극장의 야심찬 기획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가 6회를 맞았다.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2006'은 8월 2~27일 국립극장에서 전통춤과 창작춤의 향연을 벌인다.

양산 사찰학춤 공연은 8월 23~24일에 펼쳐지는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의 일곱 번째 무대. 국립무용단 이지영 단원이 '양산 사찰학춤에서의 자연형상적 동작 연구 및 해석'을 주제로 안무했다. 남성무용수 조재혁씨와 여성무용수 전정아 박윤정 이민영씨가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창작춤을 선보인다. 학춤의 동작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상에서부터 손짓 발짓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무용언어를 창작해냈다. 전통춤은 김덕명씨가 시연한다.

이지영씨는 "양산 사찰학춤을 응용해 학과 같이 고결하고 자유를 향해 비상하고 싶은 마음을 춤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사찰학춤과 더불어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는 바로 처용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너는 왜 내가 아니고 너인가'이다. 국립무용단 김남용 단원이 '처용무의 구도 연구와 동작의 심리적 분석'을 주제로 안무하고 춤추는 5인의 군무다.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나타난 사회의 죄악을 처용무의 역신 모습을 통해 이끌어내고 처용이 보여줬던 미덕과 여유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남용 단원은 "'너' '나'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왜곡돼가는 관계를 인간관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했다"고 안무를 소개했다.

총 여덟 개 무대로 진행되는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는 양산 사찰학춤 외에도 김은이(국립무용단원)의 '문둥광대춤 춤사위와 타 북춤 춤사위의 비교 연구 및 용어 붙이기'(8월 2~3일), 홍은주(선화예고 강사)의 '남도지방 농악 속의 북춤 비교 연구'(5~6일), 최준명(이화여대 강사)의 '살풀이춤의 正과 道의 의미'(12~13일), 노문선(국립무용단원)의 '진쇠춤에서 행해지는 몸체와 타악장단의 관계'(16~17일), 심현주(광주예술고교 강사)의 '진주검무의 유래와 춤사위 연구'(19~20일), 이혜경(선화예고 · 한예종 강사)의 '소고춤의 연희적 특징 연구'(26~27일) 등이 공연된다. (02)2280-4114~5

강지연 기자



전정아 박윤정 조재혁 이민영씨가 사찰학춤의 동작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유명 불자 강사 대거 출연

EBS-TV 방학특강 '나의 스무 살'에, 24일부터 3주간

EBS-TV가 여름방학을 맞아 사회 각 분야의 명사 15명을 초청, 그들의 젊은 날을 함께 돌아보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이 될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7월 24일부터 3주간 월~금요일 오후 1시10분에 방송하는 '청소년 방학특강-나의 스무 살'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3주 동안 교수 언론인 디자이너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 산악인 엄홍길씨,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씨, 도법 스님 등 불자들이 대거 강사로 나섰다.

첫주(7월 24~28일)에는 산악인 엄홍길, 시사만화가 박재동씨 등이 나와 '인생 외길, 한 우물을 파라'를 주제로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세우고 평생 그 길을 달려온 경험을 소개했다.

둘째주(31일~8월 4일)에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위해 평범함을 거부하고 뚝심있게 살아온 인생 선배들을 만난다. 불교를 정신적 지주라고 털어놓는 패션 디자이너 이영희씨를 비롯해 2006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인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윤구병 변산 공동체 학교 대표 등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마지막 주(8월 7~11일)에는 실상사에서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 등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강지연 기자

그림자에 색깔이?

中 · 日 컬러그림자극 '서유기' 공연, 27일까지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극 대가들이 '서유기'를 빛과 그림자의 세계로 끌어왔다.

그림자극 하면 떠오르는 흑백 공연이 아닌 색깔있는 그림자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8월 15~27일 서울 센트럴시티 씽크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서유기'는 대형 스크린상에서 인형은 물론 배경까지 흑백의 세계가 아닌 컬러 그림자를 선사한다.

색이 있는 그림자,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관절은 물론 눈동자까지 움직이는 80여개 인형들의 섬세한 동작이 압권이다. 특히 백골마녀가 해골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빗질을 하며 변신을 하는 장면은 마술과도 같아 관객들의 시선을 끈다.

중국 피영 극단은 인형의 컬러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당나귀와 소 등 동물가죽을 오래 걸쳐 가공한 후 손으로 정교하게 색을 입혀 완성시켰다.

서유기는 일본 극단 카게보우시와 중국 피영 극단의 공동제작 작품으로 1988년 초연 이후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매료시킨 히트작이다. 2004년 서울 공연때 전석 매진 사례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200년 역사를 지닌 중국 피영 극단의 칼라그림자극의 결정판으로 불리기도 하는 작품이다.

KBS 만화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성우팀이 출연해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역을 맡았다. 친근한 목소리 연기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낼 준비를 완료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로비에서 그림자 인형조작 모습과 원리를 소개하고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제1장 손오골 일행 길을 떠나다, 제2장 백골마녀의 동굴, 제3장 백골마녀의 변신, 제4장 백골마녀에게 잡힌 삼장법사, 제5장 손오공 도와줘, 제6장 손오공과 백골마녀의 한판 대결 등이다.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이 불경을 구하러 천축으로 여행하던 길에 만난 백골마녀와의 대결을 담았다. (02)2264-668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안숙선 명창 '흥보가' 공연

불자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 무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심야 완창판소리 무대를 올해도 선보인다. 심야완창은 2002년 안숙선 명창이 '수궁가'를 선보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매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무대다.

한여름 밤 국립극장 야외 하늘극장에서 펼치는 낭만과 풍류의 소리마당인 심야 완창판소리 안숙선 명창의 '흥보가'는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의 4번째 무대이다.

8월 12일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무대에서 안숙선 명창은 국립창극단의 제자 유수정 정미정 김차경 이영태씨와 함께 '김소희제 흥보가'를 심야완창으로 공연한다.

200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이일주 명창의 심청가(10월 28일, 달오름극장), 유수정 명창의 춘향가(11월 25일, 달오름극장), 송순섭 명창의 제야 완창판소리 흥보가(12월 30일, 달오름극장) 등으로 그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02)2280-4115~6

강지연 기자



달라이 라마 쓰던 철발우 백령도 연화정사에 기증





달라이 라마의 발우와 오색 타르쵸(사진 아래) 등 달라이 라마가 사용하던 소품들이 백령도 연화정사 발우전시관에 기증됐다. 연화정사 주지 지명 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연화정사 발우전시관에 발우 등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발우는 철발우(사진 위)로 지름 26cm, 높이 22cm 크기이다. 발우와 함께 기도후 신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나눠주는 오색 타르쵸, 창네, 살구, 향 등도 함께 기증했다.

이번 달라이 라마의 발우 기증은 지명 스님이 티베트 망명정부 다람살라에 수개월에 걸쳐 요청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연화정사의 발우전시관은 올해 5월 개관, 석주 스님 발우,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출가 후 40여년간 써온 발우 등 80여 점의 발우를 전시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全六券 90,000원

明光文化院 www.mkmunhwa.com

-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2-9 / 전화 043)222-2257
- 서울영업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롯데미도파 광화문빌딩 204호) 전화 02)720-082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89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8월 2일(음력 7월 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자기 내공에 놓으라

왜 백종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문 한마음선원은 모든 것을 자신의 근본 하나로 돌려서 자기를 밝히는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불 의식을 할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장 정근을 해서 지장보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래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천도재를 지내고 당대의 부모뿐 아니라 조상들을 위해서 백종과 같은 절차를 치러야 하는지요? 이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론과 실제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

답 우리 대중이 돌아가는데, 한 회사가 돌아가든지 한 나라가 돌아가든지, 공해서 같이 돌아가긴 하는데 같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쪽 소임을 맡고 이 사람은 여기 소임을 맡아야 하고 소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건 하나로 둥글게 돌아가는 동시에 이거는 이것대로 소임을 맡고 이건 이것대로 소임을 맡고 다 소임을 맡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닷물에는 주해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 소임을 맡고, 또 산에는 주산신이라는 이름을 맡고, 다 보살이 책임을 맡는 거예요. 또 주림신이라는 이름을 맡아 가지고 온갖 나무와 풀들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은 다 이렇게 똑같지만, 근본은 똑같지만 마음을 부리는 거는 다 각각이란 얘깁니다.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전부 마음을 내서 부리는 것은 다 각각이란 얘깁니다. 그렇듯이 지장은 지장, 관세음은 관세음, 이렇게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장이라는 것도 그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지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개든지, 12개든지 소임을 맡은 이름이 지장이다 관세음이다 칠성이다 뭐, 산신이다 해신이다 이렇게 모두 이름을 붙여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부리려면 "아무개야!" 하고 불러야 되죠? 아, 지금 당장 우리도 여기 주욱 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누구야!" 하고 그 소임자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장 정근을 할 때는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야, 이게 자기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감독이면 그 감독 이름을 불러야 하고, 직원이면 직원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고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루뭉수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산신보살 또 해신보살 또 주림보살, 그냥 수없이 많죠. 지신, 이런 것도 다 거기 속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주욱 있는데 그 소임 맡은 대로 이름을 붙여 놓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붙여 놓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소임 맡은 사람을 불러야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이는 데서 하는 일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데서 보살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름을 안 불러요? 알지도 못하고 뛰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교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교가 그냥 체인지가 돼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불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믿어서 그렇지 이게 안으로만 믿는다면 진짜로 최고란 얘기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할 때에 자기가 영혼을 불러 주고 영혼에 그 모든 것에 혜택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맞아져 들어가질 않은 거죠. '하나님, 주님' 하고 바깥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데 형식은 미사를 드리고 꽃하고 뭐 이렇게만 하고선 그냥 지내는데, 원칙은 그게 맞는 거예요, 형식은. 근데 진짜 이 안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상은 왜 차리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물주머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물주머니 안에서는 상 차려서 먹고 뭐 만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모두 습관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지금 상을 차려 놓고 하는 거까지 습관이 돼 버렸죠, 오히려 습관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이 주머니에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을 차려 놓고 선 영가를 불러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주머니를 벗어나면 먹고 똥 싸고 하는 것도 다 그냥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관습이 더 생겨서 여기서 조상들을 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바깥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떡 하나 이렇게, 이 떡은 이름 그대로 우주떡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이 빵떡은 되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방편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떡 해 놓고 과일이나 놓고 꽃이나 놓고 향, 초, 그리고 물 한 그릇은 이런 다기 그릇에, 요만한 작은 그릇에 놓지 말고 큰 그릇에 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천도할 때는 또 딴 그릇에, 큰 그릇에다 놔라. 이런 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재를 지내는데 우주떡 하나에다가 과일 세 가지를 한 접시에다가 놓고 향, 초, 흰 꽃, 위패하고 천혼문 쓰고 큰 그릇에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것도 없어도 되는데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건 자손들에게 교훈도 주고 조상의 은혜도 알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은 삼혼(三魂)이 항상,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이 몰라요?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아마 '이 괘씸한 놈!' 그러곤 뒤돌아서서 후적후적 갈 거예요.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돼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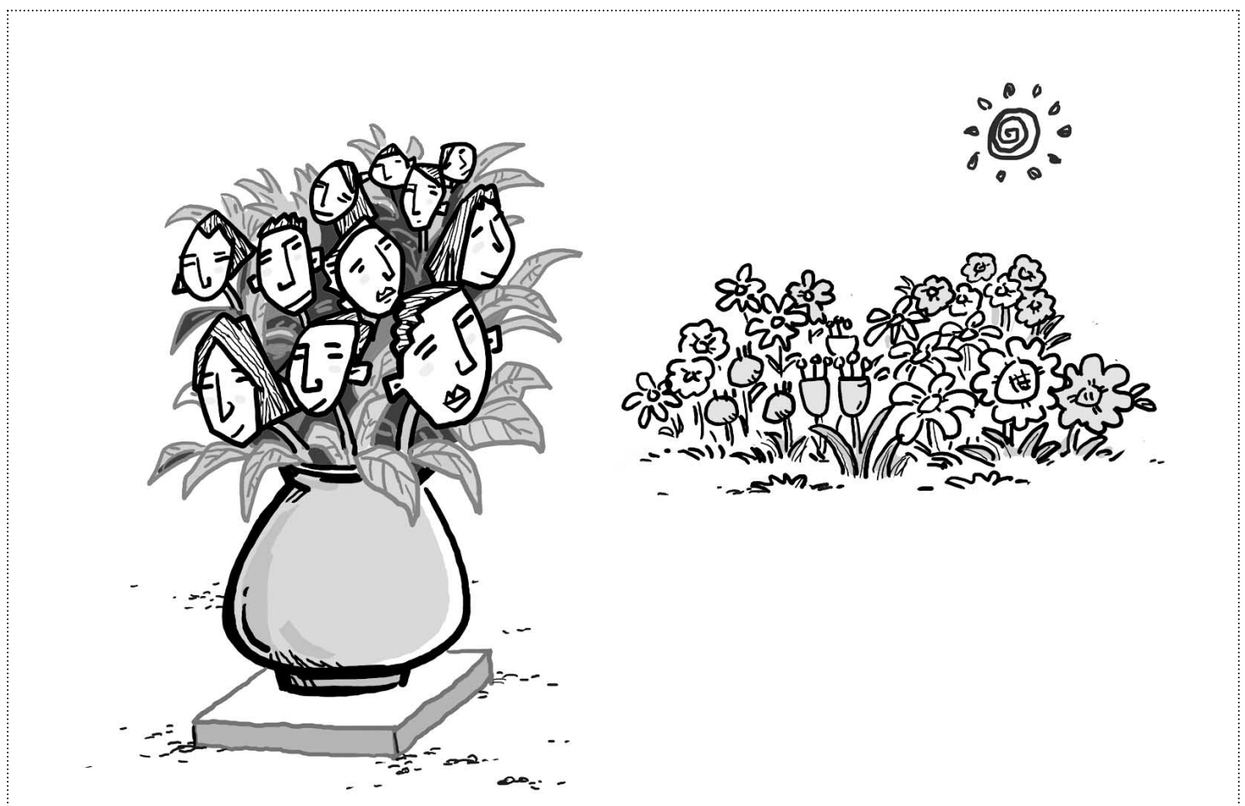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마음의 도리밖에는 없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문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절실한데 절에 가서 스님들께 "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절에 간 색시란 소리 듣지도 못했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놓고 스님들 말씀처럼 해 나가게 되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식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공부가 어려워요.

답 이거 봐요.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당신이 갈대라면 흔들리겠지만 갈대가 아니라 어떠한 폭풍이 친다 해도 그 뿌리가 패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된다면, 장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건 스님들이든 스님이 아니든 똑같습니다.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볼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한데로 돌아가고 불성은 유생 무생이나 축생들의 불성이나 다 똑같지만 그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는 막이, 약간의 막이 있죠. 왜냐하면 짐승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차원이 다르죠. 불성은 같지만, 즉 생명은 같지만 말입니다. 개미라는 그 생명은 똑같지만 차원이 낮죠. 아주 질이 낮죠. 뱀이라는 차원도 사람 차원하고 또 다르죠, 불성은 같지만. 그러니까 아주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쥐어서 이 불성이 똑같으니까, 개미나 풀의 생명이나 꽃의 생명이나 똑같으니까 전부 껴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그 생명들을 다 한데 합쳐서 꽃꽂이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꽂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꽃을 맘대로 꽂을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꽃꽂이라면.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꽃송이를 다 한데 묶어서 한번 꽃꽂이를 해 보세요. 꽃꽂이를 해 보시면, 이 꽃꽂이 속에는 천차만별로 돼 있는 꽃이 너무나 가짓수가 많은데도 나쁜 것 좋은 것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 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유생 무생을, 전체 산천초목, 모든 물에 있는 가지가지의 그 생명들을 꽃으로 생각하고 한데 한번 묶어 보면 아주 찬란한 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기같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지만, 이건 무너지는 거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능력 있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연기를 두 가지로 사용하죠? 연기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속세에서 연기를 쓰는 것은 허망한 것, 흩어지는 것 이런 것이 구름과 같이 흩어진다 해서 연기에 비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이것이 차원이 아주 낮은, 그냥 이렇게 불 때서 나오는 그런 차원의 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는 건 이 능력으로 인해서 갖은 각색의 꽃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연기 말입니다. 그렇게 조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못할 바가 없죠. 다 코 달리고 눈도 달리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달렸잖아요. 만약에 역적의 집에 가서 고공(雇工)을 살면 역적이 되는 거고, 선지식의 집에 가서 살면 그 사람도 물이 들고 배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물들지 않으려야 안 들 수가 없이 그만 물이 들어서 선지식이 돼 버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길잡이를 잘 만나야 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자주 틈내서 절에 다니면서 공부해 나가세요. 자기가 변소에 가면 변소도 법당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이 몸뚱이도 법당이 될 수 있어요, 축소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없다면 그게 우주가 뭐고 부처가 뭔지, 고가 뭐고 낙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에요. 이게 방편이자 원인이고, 원인이자 실상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하게만 해 나가세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문 절에 다니면서 영가 천도에 대해서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포르투갈 귀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살아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며, 만약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어 놓고서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차원에 따라서, 즉 영체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맘대로 자유스럽게 못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라는 것은 죽었으면서도 산 사람한테 매달려 다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그냥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는 유령으로 그저 돌아다니는, 어느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데든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붙어 돌아다니는 그런 유령이 있고, 또 악령, 이거는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그냥 다니면서 자기는, 얼른 쉽게 말해서 구더기가 똥이 있어야 그 배를 채우듯이 그 악령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악령이지 그 악령으로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는 악령이 따로 없고 유령이 따로 없고, 유체가 따로 없고 영체가 따로 없고, 심체가 따로 없다. 즉 불성이 따로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그 실상의 주인공에 의해서만이 천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항상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날까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생각하고 창조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서 코드 꽂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또 빼기도 하듯이, 또 저 문을 열고 닫듯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천도를 한다' 이러면 향 한 개비하고 물 한 그릇 떠 놓으면 세상만사가 편안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아주 떳떳해진 사람에 한해서는 향 한 개비나 또는 물 한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형식에 불과하죠. 내 마음에 영원토록 흐르고 있는 물이 있으며 영원토록 켜 주고 있는, 즉 말하자면 자가발전소가 있으며 즉, 촛불이 있다 이 소립니다. 또 향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에, 먹은 사이 없이 항상 충족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연기를 말하는 거죠, 연기. 즉 능력!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가들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향을 피우는 것은 이쪽 사람의, 즉 말하자면 자비의 보시 있잖습니까? 그런 에너지를, 마음을 내면 그 에너지가 모든 데 향처럼 그 능력의 빛이 그렇게 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향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30면으로 계속

게을리 생각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29면에서 계속

마음에 충족하게 있으니까 마음내는 것도 자유고, 불을 켜는 것도 자유고, 끄는 것도 자유고 같이 먹는 것도 자유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를 때에는 이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하는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다 이런 거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 소가 도살장에 간다 또 가난한 사람이 병을 앓는다 이럴 때도 한생각 아무 조건 없이 방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절에 와서 주인공을 믿어야 되지. 이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거를 떠나서 방생을 하세요. 고집 세우고 안 오겠다는 거 우정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남편이라도 안 오겠다는 거 굳이 오라고 그러면 부러지죠. 그러니까 좋게, 언제나 이익하게, 딸이 돼야 할 땐 딸이 되고, 동생이 돼야 할 땐 동생이 되고, 아내가 돼야 할 땐 아내가 되고, 아주 끝간 데 없이 친구로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말, 행 자체를 부드럽게 가져야 해요.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우면 자꾸 나가죠, 따뜻한 데를 찾아서. 그래서 따뜻하게 해 놓으면 자꾸 들어오죠, 밖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보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성을 진실히 믿고 거기에다 모든 걸 놓는 공부를, 맡겨 놓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해서 놓고, 언짢게 생각이 돼도 놓고 밉게 생각이 돼도 놓고 밉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인지요?

문 사람들은 모두들 저마다의 꼭 해야 할 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을 만나서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된 저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공부를 해 나가다가도 '꼭 이 길밖에는 없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스님께 여쭙니다.

답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름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 **한 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터득해야 하고 벗어나야!**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듣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 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에서 얼마나 쪼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느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 세상에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나가 다,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난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성시켜서 났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의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닿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나큰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뿐이겠습니까. 생활이 불교고 불교가 생활이고 또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지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하는데 어디에 역점을 둬야 하느냐. 생활이라면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고 한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죽거려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써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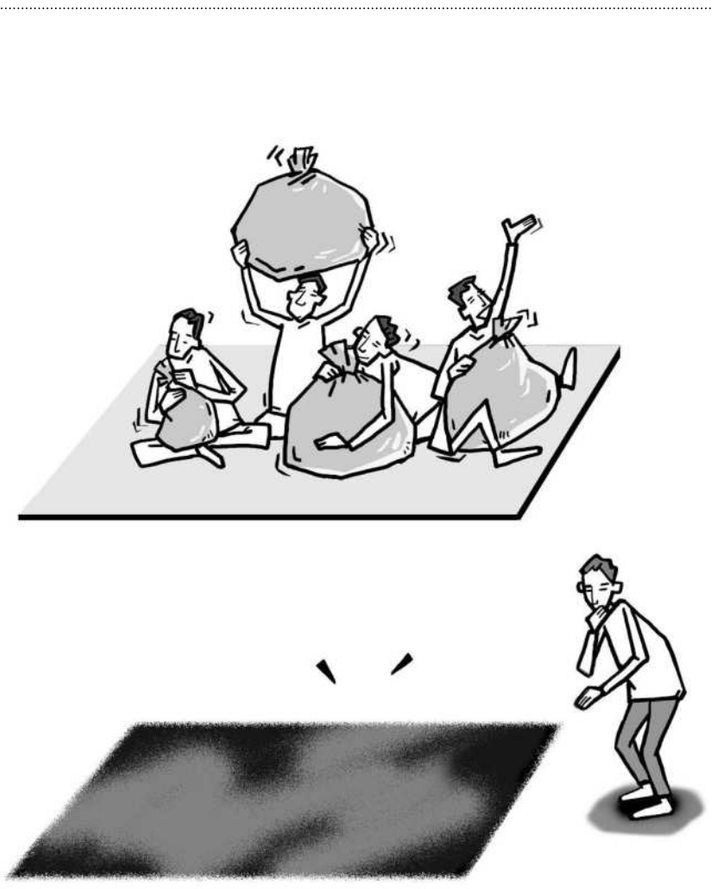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공 고

종령 2006-1

종회법 시행규칙

제1조 이 종령은 종회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중앙선거관리위원 또는 각 교구선거위원은 대한불교 원효종 종적을 가진 승려로 하여야 한다.
②종적을 가진 승려인 이상 입종연수나 법계에 대하여서는 관계치 않는다.
제3조 각 교구에서 승려가 없어서 5인의 선거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때에는 각 교구 종무원장이 선거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종정은 총무원장 중앙종도회장들과 협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각 교구를 정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한다.
㈀ 대한불교 원효종의 각 교구는 원칙적으로 종단 직할교구(서울특별시)와 광역시와 도등 정부행정구역에 따라 정한다.
㈁ 등록사찰의 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에 수개의 교구를 들 수 있다. 광역시와 도등 행정단위 내에 대한불교 원효종 등록사찰이 하나이거나 교구 선거위원 5명을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한 교구와 통폐합을 할 수 있다.
㈂ 다만 등록사찰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1년 내에 포교당이나, 사암을 개창하거나 또는 개창준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정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종회법 제6조 제2호에 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오가 있을 때에는 종정은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 음

㈎ 종회의원선거를 고의나 과실로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의원 3명이상이그 선출이 무효로 인정된 때
㈏ 종회의원선거에 관한 서류를 선출종회의원 임기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여 선출된 의원의 선출경위에 대한 적법성을 판별할 수 없게 할때
제6조 종정의 전항 해임처분은 해임대상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지방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서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종정이 해임하고 교구종무원장에 통고하여야 하며, 절차는 제6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8조 각교구 종무원장이 전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고의나 과실로 가공한 때에도 종정은 전항과 같이 각 교구 종무원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제9조 각 교구에 종회의원에 소속된 유권자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거나 각 교구에 배정된 종회의원 입후보자가 유권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때에는 각 교구종무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령 2006-2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불교 원효종 사무처 소재지로 종헌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0번지 소재 안양암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안양암이 불법점거 당하여 사실상 사무소 역할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안양맘 회복시까지 임시 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구체적인 장소는 종정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2006.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공포와 함께 대한불교 원효종 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로 하였음을 공고한다.

종령 2006-3

종령 2005-2 종정의 임원에 대한 서리 임명에 관한규정(이하 서리 임명규정이라고 함)개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왕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종정은 필요하다 인정한 때에는 서리로 임명된 임직원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부 칙 (2006.7.24)

제1조 이 개정국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 본문 제2조 (종정은 원로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총무원장 서리등 기타 결원된 집행기관의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의 규정은 원로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정은 원로원 의견을 듣지 않고 임직원에 대한 서리임명을 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 개정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7.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

내가 변해야… (하)

원혜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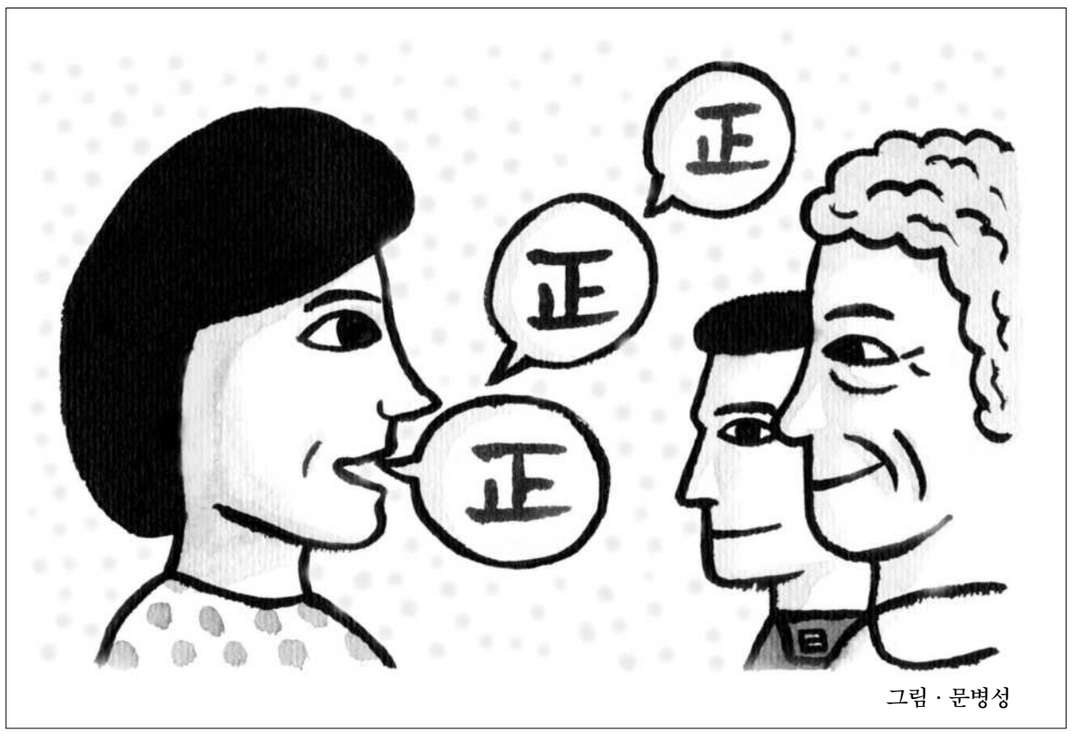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말 줄이고 조심하니 주위 사람들과 편안
'실천' 이야말로 진정한 신행임을 깨달아

어느 날이었다. 오랫동안 말썽을 부리던 아랫니 하나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1주일간의 묵언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가 말을 건네면 눈으로 웃음 지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 끄떡이고, 조금은 불만족스러워도 입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냥 조용히 있게 됐다.

또 식사할 때도 평상시의 왕성한 식욕 대신 두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아주 조금 잘라 입을 살짝 벌리고 조용히 밀어넣는 행위를 하고 있노라면 평생 '분노'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정숙한 여인네가 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달라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직원들이 "원 부장은 배가 너무 나왔어. 그래서 어디 예쁨 받겠어?" 라고 이야기를 걸어오면 처음엔 못들은 척 사무실을 나가고, 두 번째 또 그러면 상황을 봐서 "알았어요"하고 언성을 높이고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었던 나였다.

하지만 본의 아닌 묵언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하고 웃으면서 넘어갔다. 그러자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후로 거친 말도 확연히 줄었다.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그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을 줄이고, 내 행동과 말에 대해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정도 외에는.

그런데 이런 나의 말과 행동과 사고가 주위 사람들의 태도변화를 유발시켰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우연치 않은 내 태도변화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아함경>에 나오는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가 하얀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五蘊)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如實知)로 해탈을 얻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순수성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순수성에는 너무 관대하다. 자신은 순수하다는 전제아래 다른 사람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대하니 그 모든 마음이 얼굴과 행동 하나하나에 드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뒤돌아보면 나는 엄마가 화난 이유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내 아들이나 부모님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물론 어른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엄마에게 "힘드셨죠"라는 감사의 말씀보다는 엄마에게 따지듯이 아이의 상태를 물은 것이다. 엄마가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엄마를 대하자니 엄마의 화를 받아낼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길까 무서워 오기가 생겼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다.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존재가 가벼워지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었다. 나는 내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됐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 그 마음이 말과 행동에 배어나오는 것이다.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엄마에게 전해야 할까. 고민 고민 하던 차에 사무실에서 승진소식이 들려왔다. 제일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랬니?" 하시면서 무뚝뚝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자식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기로 하고 연락을 드렸다.

그랬더니 엄마는 흥분된 목소리로 "수고했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킬뻔 했지만 열심히 평상시의 어조를 유지하며 그동안 여러모로 돌봐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다. 누구나 했을지도 모를 말이지만 난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니다,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고생이 많은데 기특하구나" 하셨다. 이때까지의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떠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승진했다는 사실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았노라고 순수하게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되는 걸, 왜 진작 못했을까.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스런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서 사성제를 제시하시고 처방의 가장 구체적 실천법으로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하지만 처음 신행을 할 때는 하나도 어려운데 여덟 개는 무리다 싶어 정어(正語 · 바른 언어)와 정견(正見 · 바른 이해) 두 가지만 목표로 정하고 신행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다보니 정사유(正思惟 · 바른 생각)도 필요하고 정업(正業 · 바른 행위), 정정진(正精進 · 바른 노력)도 필요했다. 정업을 위해선 정념(正念 · 바른 명상)과 정명(正命 · 바른 생활), 정정(正定 · 바른 집중)도 해야 했다.

물론 앞으로도 또 어떤 갈등이 생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헤쳐 나갈 힘이 생겼다는 자신감이 있다. 직원들과 대화할 때는 가벼이 나를 표현하며 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더러는 칭찬도 듣고 있다.

엄마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또 너그러워진 딸을 어여삐 바라보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내 변화가 가져다 준 행복이다.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신행에 있어 마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이라는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고 배웠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신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늘이 더욱 파랗게 느껴졌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탈종공고
● 사찰명 : 극락사
● 주 지 : 도원(윤영희)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517-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장락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